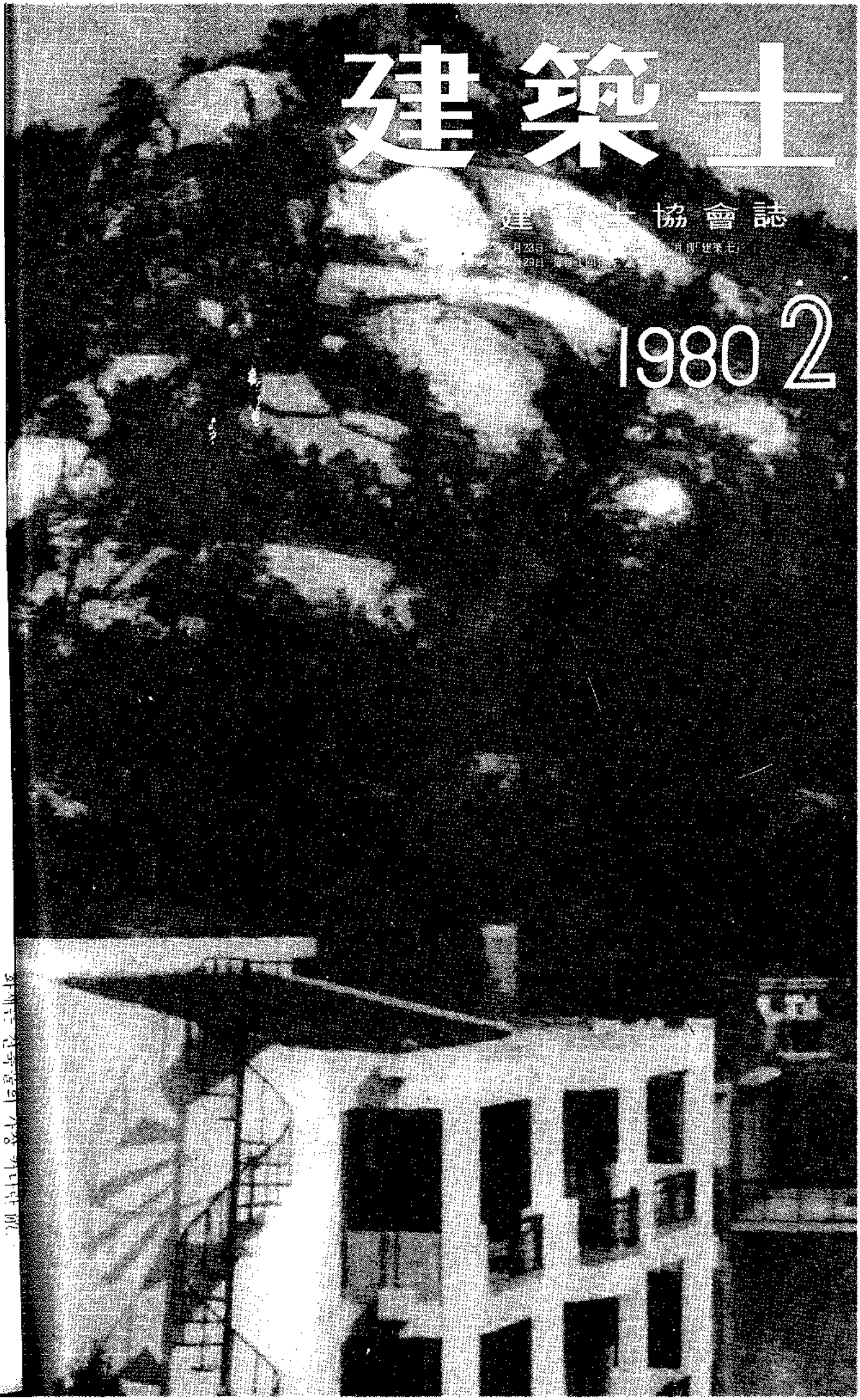
建築士

建築士協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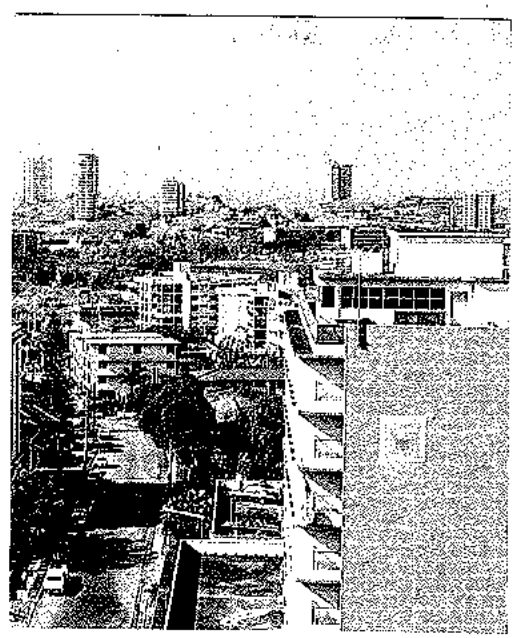
1980 2



화재는 건축물의 가장 커다란 적,
근본적인 화재예방은 건축자재의 防火기능에
있읍니다.

금강 불연 내외장재는
*750℃의 불속에서도 타지않는 완벽한 防火기능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럭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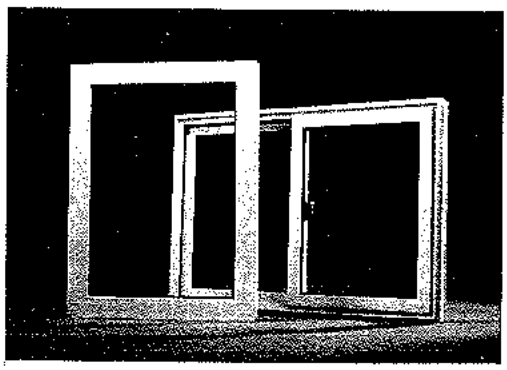
럭키 하이샤시(HI-SASH)
현대감각이 넘치는 새로운 창문

럭키는 西独 레하우社(REHAU PLASTIKS GmbH)의 기술을 도입해 획기적인 창문 건축재인 럭키 하이샤시를 개발, 보급하고 있읍니다.
창문의 공간미를 최대한으로 살리며, 치솟는 난방비도 최대한 절약해 보십시오.

❶ 우수한 방음, 방수효과
일폐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음,방수효과는 물론, 먼지의 침투까지 막아줍니다.

❷ 냉난방 에너지절약
재래식 창문에 비해 熱損失率이 1/4로 줄기 때문에 냉난방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❸ 뛰어난 耐蝕 및 耐久性
외관이 미려하며, 습기, 가스, 햇빛(자외선) 공해등으로 부터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본사 : 서울 중구 양동 282 (주) 럭키프라스틱 제1사업부
(직통)22-7569, (대대표)771-32, 구내 835, 836
부산 : 부산 진구 연지동 353 (주) 럭키연지공장
(교환)89-1231~4

럭키 하이샤시

* 창호 부문의 국내 최대의 전문회사에 걸맞는 최고 최상의 품질과 기술로 고객에 드립니다.

럭키 하이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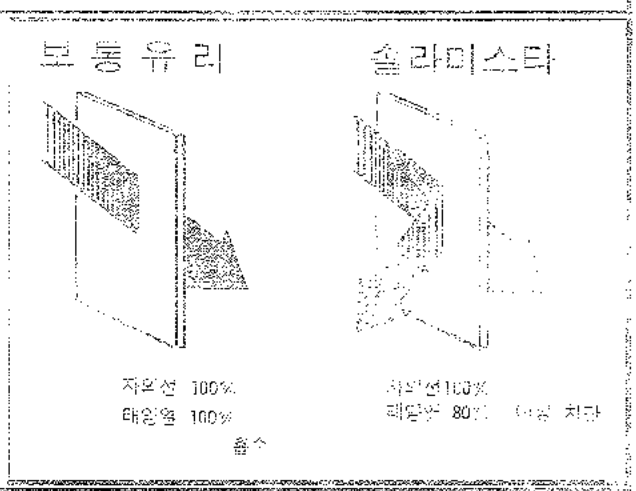
유리창 단열이 문제입니까?

솔라마스타 필름을 바르십시오.

단열필름 \ 단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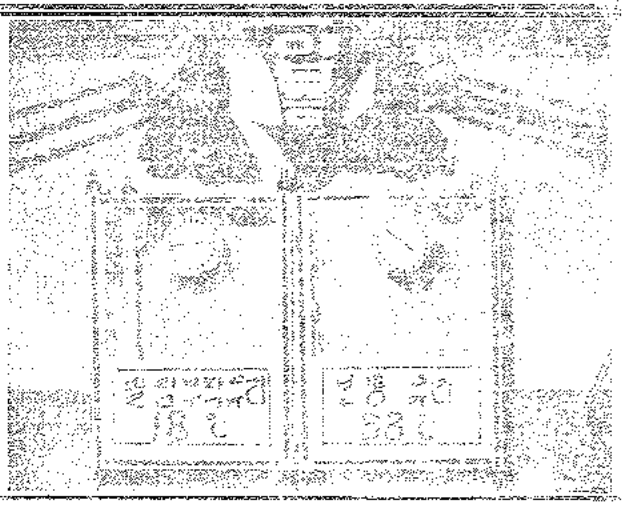
1. 80% 이상의 단열효과를 보장합니다.

- 겨울 : 유리창으로 손실되는 대부분의 열을 막아줍니다.
  ※ 시장후 난방용 기름이 현저히 적게 드는것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여름 : 태양열을 차단하여 냉방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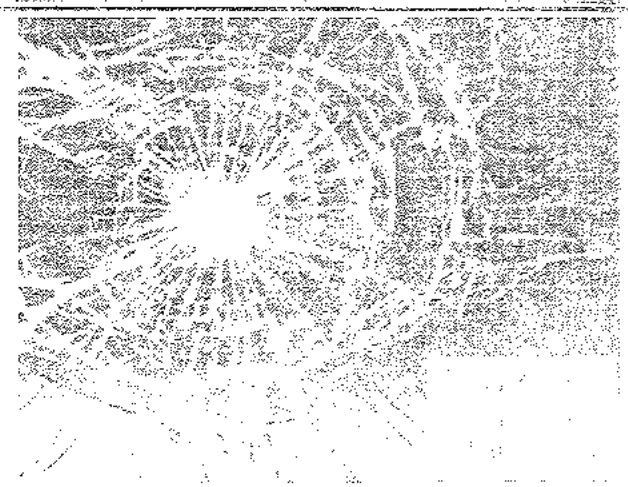
2. 솔라 마스타는 자외선을 100% 차단 합니다.

- 자외선은 우리의 시력을 훼손합니다.
- 자외선은 진열상품을 변색 훼손합니다.
- 미려하고 고상한 색상으로 건물의 외관과 실내의 미적 효과를 높여 줍니다.



3. 솔라 마스타는 외부충격에 안전 합니다.

- 강반효과가 귀 유리파편에 [illegible] 붙도록 줄입니다.
- 건물이나 차량내부에 부착하면 외부에서 투시가 불가능 합니다.
  (내부→외부투시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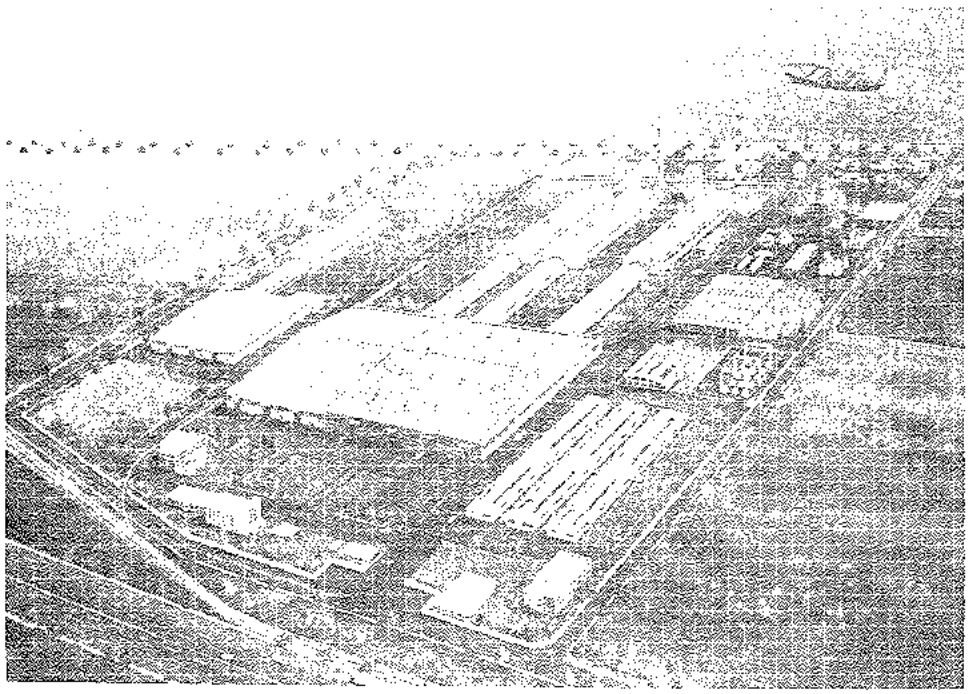
제조원 : JENERAL SOLAR CORPORATION 45/S SOUTH STONESTREET AVENUE, ROCKVILLE, MARYLAND 20850 U.S.A. TELEX. 89-8402

GSC 한국선솔라마스타(株)
SUN SOLAR MASTER CORPS.
영업부직통 : 252-5098, 567-2346

群山FOLAT 工場起工

"奉仕하는 企業 韓国유리"는 이제 世界의 韓国유리로 跳躍하고 있읍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世界 最高 水準의 유리를 生産할 수 있는 FLOAT 工場起工으로 이제는 名実共히 世界속의 韓国유리로 躍進하고 있읍니다.



제 품 규 격

맑은유리 Clear Sheet Glass								무늬유리 Figured Glass							
2 mm		3 mm		5 mm		5 mm대형		2.2mm		3 mm		4 mm		6.8mm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규격	매수
24×36	17	36×72	6	48×72	4	60×72	3	30×50	10	48×72	4	48×72	4	48×72	4
24×30	20	36×60	7	48×60	5	72×72	3	24×48	13	48×60	5	48×60	5	36×72	6
18×36	22	32×60	8	36×72	6	60×96	3	24×36	17	36×72	6	36×72	6		
16×32	28	36×52	8	36×60	7	72×96	2			36×60	7	36×60	7		
12×36	34	24×60	10	32×60	8	72×84	2			36×52	8				
		30×50	10	36×52	8	84×96	2			26×60	9				
		24×48	13	24×60	10	60×120	2								
		24×36	17	30×50	10	72×120	2								
		20×36	20	24×36	17	84×120	1								
				24×30	20										
				18×30	27										

◎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mm)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20	2134×3048
10	84×120	2134×3048
12	84×120	2134×3048

※ 弊社에서는 群山FLOAT 工場이 稼動될 때까지 당분간 FLOAT 유리를 直接 輸入하여 供給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韓国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서울特別市 永登浦区 汝矣島洞 1의 154, ☎0311, 0911, 3711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 2 仁川 ☎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月光面 伊川里345　釜山 ☎ 4066~4070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 132 호
구입년월일	. .
대한건축사협회	도지부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目 次 1980. 2

協会記事 …… 2

■ 論 説

現代都市 建築物의 社会性 …… 呂 鴻 九 …… 4
韓国民家의 類型別 分類 …… 金 鴻 植 …… 8
瞻星台에 대하여 …… 宋 旼 求 …… 14
재미로 읽는 構造 …… 李 昌 男 …… 18

■ 会員作品 …… 25

安箕泰 同和建築(銀行研修院) 朴商浩 石林建築(住宅)
黃一仁 建元社 (学校) 李永熙 전화사 (教会)
洪哲洙 韓国文化建築(寺刹)

■ 隨想 速成스케치에 制動을 …… 安 日 成 …… 39
総会에 다녀와서 …… 梁 元 永 …… 41

建築文化財를 찾아서(1) 벨기에領事館 …… 42
建築工事積算要領 …… 정림건축적산부제공 …… 46
建築行政相談 …… 58
표준설계도서 운용규칙 …… 64
月間建築情報 …… 67
海外作品 …… PROCESS …… 75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 員 金奉勳
〃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李琛會
〃 李文輔
〃 洪性穆
〃 洪淳寅

発行人兼 編輯人 · 金斗燮 / 登録番号 · 第라 - 1251
登録日字 · 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 · 1980年 2月29日 / 通巻 第132号
発行所 · 大韓建築士協会 / 住所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 : 73 - 9491 ~ 2
印刷人 : 郭得龍(三文印刷所) 中区 乙支路 3街
電話 : 265 - 4558

지부장회의 광경

안보교육 영화 관람하는 직원들

제 1 회 이사회의 개최

일 시 : 1980. 1. 18

장 소 : 협회회의실

부의안건

제 1 호의안 : 1980년도 각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제 2 호의안 : 대의원 취임승인의 건

제 3 호의안 : 월정회비 미납회원 조치의 건

제 4 호의안 : 예산집행 기준변경의 건

제 5 호의안 : 회원 재적년수 계산 기준 결정의 건

제 6 호의안 : 자금 일시 차입의 건

제 7 호의안 : 기타사항

참 석 : 회 장 : 김 두 섭

총무이사 : 박 우 하

이 사 : 김 정 철, 박 래 운, 한 영 수

감 사 : 박 성 규, 이 종 수

제 2 회 이사회의 개최

일 시 : 1980. 1. 29

장 소 : 협회회의실

부안안건 의

제 1 호의안 : 전남지부 총회에 관한 건

제 2 호의안 : 기타사항

가) 1980년도 위원위촉의 건

나) 표준설계도 관리자 지정에 관한 건

참 석 : 회 장 : 김두섭

총무이사 : 박우하

이 사 : 김규태, 김정철, 박래운, 한영수

감 사 : 박성규

제 1 회 편찬위원회 개최

일 시 : 1980. 1. 30 16 : 00시

장 소 : 협회회의실

참 석 : 위원장 : 김정철

위 원 : 이문보, 윤도균, 오창희; 김봉훈, 윤봉원, 홍순인

결의내용 가) 1월호 회지합평

나) 2월호 편집 계획(안) 검토

제 2 회 편찬위원회 개최

일 시 : 1980. 3. 3 16 : 00시

장 소 : 협회회의실

참 석 : 위원장 : 김정철

위 원 : 이문보, 홍성옥, 오창희김봉훈, 홍순인

결의내용 가) 12월호 회지 합평

나) 1월호 편집계획(안)검토

경북지부 전입회원

성 명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등록번호	면허번호	월 일
권 영 근	내외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 영주읍 영주리382－23	3900	32	2－449	2. 26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경북
성 명 : 이승교
명 칭 : (주)신진엔지니어링
소 재 지 : 종로구 낙원동 284－6
전 화 : 73－3352
면허번호 : 2－357
등록번호 : 합동 194
월 일 : 2. 22

본 적 : 서울
성 명 : 이윤용
명 칭 : 정운합동건축
소 재 지 : 영등포구 당산3가 398
전 화 : 64－4667 －1
면허번호 : 2－409
등록번호 : 합동 115
월 일 : 2. 27

●경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 경북
성 명 : 김두하
명 칭 : 신진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전 화 : 4306 7－6
면허번호 : 2－494
등록번호 : 경북제 63호
월 일 : 2. 29

경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 울
성 명 : 동 정 근
명 칭 : 용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11
전 화 : 4215
면허번호 : 2－1401
등록번호 : 1
월 일 : 1. 26

본 적 : 경 북
성 명 : 홍 기 원
명 칭 : 중앙건축사무소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공평동 45
전 화 : 44－9046
면허번호 : 2－1742
등록번호 : 경북 제66호(합동)
월 일 : 2. 29

본 적 : 경 남
성 명 : 백 봉 상
명 칭 : 대구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태평로1－23
전 화 : 44－9056
면허번호 : 2－469
등록번호 : 33
월 일 : 2. 29

現代 都市 建築物의 社会性

呂 鴻 九

「都市 建築은 都市 生活의 자극제이어야 하며 都市 生活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建築은 하나의 장치이기 以前에 都市 市民의 心理的 욕구를 充分히 消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 建築이 주변환경(都市 환경)에서 돋보이기 為해 과장되거나 그 환경을 압도하게 될 때는 이미 市民을 為한 그릇으로서의 意味는 절반 以上을 상실한 것이 되고 建築과 市民과의 관계는 不便한 관계로 発展하게 될 것이다. 建築 計劃은 建築物 自体가 必要로 하는 計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접 장치물과의 관계, 그 建築物이 소속하는 都市 生活에 관한 計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現代 都市 社会는 農村에 比해 여러 面에서 両面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간단한 面과 복잡한 面의 서로 相異한 두가지 側面을 갖고 있다. 例를 들면 기계화된 業務라든지 여러가지의 必要한 주방 施設을 갖춘 부엌 살림은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作業 時間을 단축시키며 作業 수행을 便利하고 容易에 병행해서 業務나 음식의 種類는 더 늘어 나게 되고 여가 時間의 무료함이나 지루함을 소비하기 為한 다양한 게임을 創案하기도 하고 미니카 수집등의 취미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都市에서 生活 領域의 다변화 내지 다양화는 実質的인 意味에서 그 必要性이 不可避한 경우도 있겠지만 都市의 産業化에 偽한 무료함에 対処하기 為해 市民 스스로 어떤 자극을 만들려는 데서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人間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一生을 바칠 수 있는 動物의 분류라기 보다는 주위 환경과 끊임 없이 대화를 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動物에 속한다. 便利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상황을 만들기 為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며 새롭고 신기한 일이나 사건을 만들어 내기 為해 주어진 상황을 人為的으로 拡大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다시 便利하게 바꾸고 이를 다시 복잡하게 하는 반복된 過程을 연출하게 된다. 「데스몬드 모리스는 이러한 人間이 自身의 환경에 보이는 反応과 類似한 反応을 보이는 動物로서 원숭이, 개, 여우, 너구리, 곰 等을 들고 있고 이와 反対의 集団으로 分類될 수있는 動物로서는 괭이, 개미 핥기, 뱀, 독수리 等을 들고 있다. 前者의 集団에 속하는 動物들은 자극에 対하여 機会的인 動物로 지칭되고 있으며 이들은 계속적인 자극을 必要로 하고 있다.

農村에서의 生活이나 活動에 対할 領域선택과 都市에서의 領域 선택의 差異는 이러한 論理에서도 그 說明이 可能한 것이다. 끊임 없는 自然으로 부터의 자극에 接하게 되는 農村 生活은 人為的인 자극이 훨씬 덜 必要할 것이고 늘상 새롭고 변화있게 자극과 상황을 만날 機会를 갖고 있다. 그러나 都市의 生活이나 活動은 単純化내지 規格化된 日程表에 짜여지게 되고 따라서 農村보다는 훨씬 적은 상황의 変化와 자극의 상태가 지속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都市 生活에서는 市民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 상황의 変化를 促進시키고져 한다. 単純히 자포 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必要한 상황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무자극이나 무변화로 因한 권태와 초조함으로 부터 탈피하고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現象은 都市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로 発見할 수 있다.

이러한 都市의現象을 表現할수있는 代表的인 言語는 多様性일 것이다. 都市의 다양성은 그 人的 構成이나 施設의 分布, 空間의 種類에서도 明確히 說明될 수 있다. 都市와 農村의 人的 構成을 比較해 보면 都市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都市에서는 農村에 比해 서로 相異한 職業이나 배경을 갖인 사람들 상호간의 접촉 빈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社交라는 名目下에 서로 다른 職業을 갖인 사람들 사이의 交流가 意職的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異質的인 사람들 사이의 접촉은 機会的 性格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바쁜 業務와 꽉 짜여진 틀에서 살아 가는 계층에 더 많다는 事実은 異質的인 사람들 사이의 意職的이고 機会的인 交流가 자극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使用됨을 보여 준다. 都市의 施設 역시 農村의 그것 보다 훨씬 다양하다. 물건을 사고 파는 商業 施設의 例를 들어 보자. 農村에서는 傳統的

인 市場 하나로서 그 마을에서 必要한 物件을 사고 팔수 있지만 都市에서는 市場 以外에 백화점, 전문 商店, 쇼핑 센타等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施設도 여러 가지로 分類되어 있다.

즉 市場은 소매 市場과 도매 市場으로, 백화점도 고급 商品 취급 백화점과 저렴한 商品 취급 백화점으로 나누어 지고 있으며 쇼핑 센타도 単純한 商品 판매 위주의 쇼핑 센타에서 위락과 여가 活用을 겸한 쇼핑 센타까지 多樣化 해가고 있다. 住居施設 역시 마찬 가지이나.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가 있고 이들이 다시 다양화 해져서 buplex, terraced house, patio house 로 分類되고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等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 이 以外에도 공원이나 오락 施設도 그 種類와 規模가 다양하게 分布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劃一的이기 쉬운 都市 構造와 단조로웁기 쉬운 都市 環境을 人間 스스로 변화 시켜 보고져 하는 意図의 一面이라고 말할 수 있다. (勿論 機能的 必要性에 依해 생기게 되는 것도 부인하지 않지만). 보다 자유롭고 보다 넓고 보다 변화 무쌍한 농촌에 比해 都市는 規格化된 그릇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그릇 속에 사는 市民들에게 許容될 수 있는 活動의 선택 범위란 매우 미미하다. 흔히 都市를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엮어진 것으로 說明하고 農村이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장소로서 表現된다면 各各의 環境 속에 살아 가는 住民들에게 作用되는 자극의 差異는 相当히 큰 것이다. 都市의 人工的이고 単調로운 環境 속에서 生活하는 人間은 여러가지 신경 증세와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고 끔찍한 犯罪를 저지르기 쉽다. 정상적으로 自己 자극을 만들지 못하거나 비 정상적인 方法으로 自己 자극을 얻으려는 결과이다.

都市 再開発을 하고자 할 때에 対象이 되는 地域中의 하나는 社会的 病理 現象이 심각한 地域일 경우가 많다. 都市에서 再開発이 必要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들 여러 理由들의 共通된 基本 원인은 対象 地域의 現在의 性格이나 機能이 現在 그 都市가 必要로 하는 性格과 機能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活動의 침체, 土地 利用上의 混雜과 不適合, 建物의 老朽化, 犯罪 発生等 의 제반 不合理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것이 再開発의 目的이고 이러한 개선을 為한 외연적으로 表現되는 것이 建築의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를 達成하기 為한 手段과 過程으로서 表現되는 것이 바로 建築과 都市 設計라는 形式을 通한 環境의 개선이 되는 것이다. 都市 環境의 개선이란 말은 너무 자주 듣고 또 너무 흔하게 使用되기 때문에 그 意味가 쉽게 귀에 들어 오면서도 具体的으로 무엇이 환경의 개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의 개선인지에 対해서는 선명하지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그 뜻하는 바 意味가 달라 질 수가 있겠지만 都市 生活과 建築과의 상호 관계에서의 環境 개선이란 「스트레스」의 除去와 能率的 都市 活動을 보장할 수 있는 環境의 追求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建築物의 社会性은 매우 重要하다. 市民이 都市 生活을 해 가는 過程에서 (農村보다 훨씬 人為的인 상황에서) 어떠한 「스트레스」 (具体的인 例로서 mirror glass 로 인해 길을 걷는 市民이 glare 를 받는다든지 채광이 안된다든지 하는 상태도「스트레스」의 상태로 생각할 수 있음) 를 받지 않는 상태는 市民建築를 環境과의 조화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市民은 不安하지도 않고 초조라거나 지루하지도 않고 권태롭지도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환경으로 부터 받게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密集된 人工的 都市에서 農村에서와 같은 環境을 追求하기란 거의 不可能할지 모르지만 人間은 이를 達成하기 為해 人為的으로 自然을 都市에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適定한 人口密度 水準으로 人口数를 조절하고져 노력하고 있다. 경직화 해가고 劃一化해가는 都市에 自然을 끌어 들이기 為해 街路樹를 심고 분수를 設置하고 公園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環境의 悪化가 人間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 내기 為한 動物 実験을 継続해 오고 있다. 「칼 혼」같은 사람은 쥐를 通한 実験에서 社会 組織이 붕괴되고 번식이 정지되며 모든 形態의 병상이 悪化되는 現象인 「行動 水準 低下」라는 現象은 密集의 状態와 過多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밝혀냈다.

都市의 再開発이 서울과 釜山等에서 施行되고 있다. 再開発이 流行病처럼 集団的으로 추진 施行되고 있다. 再開発 対象地가 무더기로 発表되고 1년에 몇개의 地域에 얼마만한 高層 建物이 들어 섰느냐를 앞장 세우며 成果보다는 実積이 強調되는 경우가 많다. 最近 15年사이에 수 많은 高層建物이 再開発 過程을 通해 세워졌다

그리고 市民들이 都心에서 느끼는 것은 都心에는 숨 쉴 空間밖에 없다는 것이다. 道路와 10層以上의 建物들 그리고 하늘 뿐이다. 하늘도 時間이 감에 따라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늘도 確保하고 緑地도 確保할 必要性을느끼고 있다. 人間은 人工的 環境에서 보다 自然的 環境으로 부터 더 많은 자극을 받고 훨씬 더 安静된 生活을 할 수있다. 過密된 都市, 過密된 空間은 자극을 必要로 하는 사람들의 動物的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都市 規模의 適正値를 論할 때 一般的으로 都市의 제반 施設物이 그 都市에 사는 市民들에게 不便함이 없이 욕망을 充足시켜주고 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이는 物質的 充足만이 아니라 精神的 充足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物質的으로 充足한 状態에서 過程이 動物의 生態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人類학자와 社会 학자사이에서 実験되었고 過密은 動物들의 生態系를 파괴시키는 원인이된다. 結果를 얻었다. 실지로 都市의 施設은 農村의 그것 보다 훨

씬 우월하 고 便利할 뿐아니라 어느 정도의 生活 水準을 보장해 주고 있다. 都市 社会학자들은 都市 人口의 集中원인을 이러한 점에서 찾고 있고 경제학자들 역시 都市가 農村보다 外部 경제적 與件이 良好하기 때문에 都市로 人口가 모여든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의 犯罪는 農村의 犯罪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하다 [illegible] 外部的 與件에 따라 左右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都市의 生活이 他律的 흐름이라면 農村의 生活은 보다 더 自律的이다. 이는 兩者의 生活 方式이나 그 組織의 構造的인 差異에 依해 만들어지는 結果로서 보다 더 自律的이 되기를 갈구하는 人間의 本質的 性向에서 보면 現代的 都市는 人間에서 너무 많은 것을 強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T. V광고에서 間接的으로 시사되고 있다. 「샐러리 맨」의 바쁜 生活 복잡한 생활로 일어나기 쉬운 위장 장애나 소화불량 치료약의 광고가 바로 都市 生活의 他律性과 이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와 副作用을 說明하고 있다. 現代 建築物의 社会性은 이러한 觀点에서도 強調되어야 한다.

人間이 社会的 動物이고 政治的 動物인 것은 事実이고 그 結果로서 생긴 것이 都市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律이 보장된 與件이지 人間이 어디에 예속되거나, 노예화된 상황을 결코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것은 過大化되고 過密化된 都市에 사는 市民들에게 어떻게 건전한 자극제를 提供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自律을 누릴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社会학자와 심리학자등과 더불어 都市의 建築物을 다루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重要한 과제인 것이다. 社会의 제반 病理 現象은 그 社会의 物理的 環境의 良好의 정도에 달렸기 때문이다. 学生들을 通해 実施된 몇가지 実験들의 結果는 단조로운 環境은 時間이감에 따라 긴장감을 造成시키고 신경계통의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어 여러가지의 파괴적 行為를 誘発시켰다. 単調로움은 노곤함, 방황감, 의욕의 결핍을 초래하고 다시 불안, 초조, 짜증으로 変하여 종국에는 느여음을 불러 일으킨다.

建築物과 都市空間을 다루며 結果的으로 人工的 都市環境을 決定짓는 일을 하는 建築家와 都市設計家들의 역할은 요즈음과 같은 급속한 都市化 時代에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都心建築이 再開発을 通한 高層化가 必然的일 것이고 따라서 高層化로 形成되는 都心의 環境이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고 自律的인 충동을 제공해 주기 為해서는 都市의 建築物이나 空間은 市民이 活動하는 배경으로 끝나도록 해야한다. 배경은 市民이 活動하는 過程에서 場所를 提供할 뿐이고 직접적인 간섭이나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市民과 그들의 活動을 담아 두는데에서 그 義務와 役割을 마쳐야 한다. 배경의 役割은 市民들의 제반 活動과 여러가지의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충동을 自然스럽고 自律的으로 発動시킬 수 있어야한다. 배경이라는 것은 市民과 対等한 位置에 설 수는 없는 것으로 어떤 目的을 為한 行為를 促進시켜 주고 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建物이나 都市의 多様한 空間들이 市民을 압 [illegible] 의 活動이 人工的인 建築이나 空間들에 얽매이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建築家나 都市 設計家가 創造하는 建築物이나 空間은 単純한 形態나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自然에 대치될 수 있는 創造物이어야한다. 自然에 대치되는 創造物이기 為해서는 콘크리트 일색일 수는 없을 것이고 아스팔트 일색일 수도 없을 것이다. 다양하고 조화된 構成이 絶対로 必要하다. 다양하다는 것은 선택적이라는 意味인 同時에 非画一主義的이기 때문에 배경으로서의 役割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환경(배경으로서)은 都市에서의 市民 活動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게 된다.(여기서 都市에서의 市民 活動의 다양성이란 都市라고 하는 農村보다 비자극적인 環境에서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 내기 為해서 市民 스스로가 단조로운 것을 분파시켜서 여러 개로 쪼개 논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都市의 建築物이나 空間의 計画은 単純한 그 自体의 機能이나 造形性으로 始作되거나 끝날 수없는 것이다. 완벽한 都市的 배경물이 되기 為해서는 보다 광의적인 計画 接近方式과 機能이나 造形에 対할 해석이 必要하다.

훌륭한 建物은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이 必要한 것이고, 훌륭한 都市 空間은 市民이 必要로 하는 것을 必要한 場所에 갖고 있어야 한다. 住宅街에 둘러 쌓인 호텔(実例는 永東에 있지만)과 自体의 空地와 나무를 갖고 있는호텔이 市民에게 주는 자극은 相異할 것이고 여기서 느끼는 市民의 心理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都市의 建築일수록 市民이 거기서 느끼게 될 心理를 해석한 계획이 必要하다. 이제 建築物이나 都市의 空間은 그것을 所有한 個個人의 것으로 끝나거나 만족되지 말아야하며 그렇게 될수도 없을 것이다. 서울에는 좋은 建物이 너무 많지만 이와 比例해서 너무 많은 저항감을 준다.

自助的 建築 方式으로 지어지는 農村 建築(傳統的 意味로서)은 오랜 관습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정을 通해 그곳에 居住할 사람의 心理的 욕구를 機能과 더불어 充足시켜 주고 있으며 住民과 建築物은 各者의 役割을 充実히 지키면서 相対의 領域을 침범하지 않는다. 農村에서는 建築物이나 어떤 空間이 여직까지 한번도 住民을 압도하거나 우위를 점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建築物은 人間에 가장 근접된 울타리이면서도 人間의 活動을 制約하지 않았고 단지 배경으로서만 存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人間은 보다 넓은 환경을 갖고서 보다 넓은 活動

반경을 누릴 수 있었다.

現代 都市의 建築物은 그 材料에 있어서 너무도 견고하고 일단 이루어지면 그 경직성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 變化하는 환경 여건에의 적응이 한번 잘못되면 수정은 거의 不可能하게 되고 수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정이 不可能하면 그 곳에 사는 市民은 不便과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헤어 나기가 어렵고 結局에 建築物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파멸되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거대化되어 가는 現代 都市의 建築物은 미래의 市民의 都市 生活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都市 社会에 必要한 建築物은 市民의 君主로서의 建築物이 아니어야한다. 우리 都市 社会에 必要한 建築은 지나친 과장이 없어야되고 不必要한 잔재주가 除去되어야하며 都市 生活의 単純한 構成 要素로 充分하면 될 것이다. □

(漢陽大学校 工大 副教授)

알 림

회원 작품 기고는 다음 요령에 의해 원고를 작성 투고 바랍니다.

작성요령
1. 도면작성은 트레싱 paper나, 켄트지에 inking할 것.
2. 축척표기는 도표로하여 축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것. (例 0 1 2 3)
3. 1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1. 도면작성 가) 평면도($\frac{1}{100}$, $\frac{1}{200}$)
   나) 단면도($\frac{1}{100}$)
   다) 배치도($\frac{1}{200}$ $\frac{1}{300}$ $\frac{1}{600}$)
   라) 주요부분 상세도($\frac{1}{30}$ $\frac{1}{60}$) (必要時)
2. 설계개요서 : 일반적 기술보다는 계획과정과 계획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하기 바람. 200자 원고지 × 3 ~ 5매
3. 사진 : 가) 전경사진
   나) 내장사진
   다) 부분사진(Detail Design 에 주안점을 줄것.)
   라) 설계자사진(명함판 싸이즈로 프로필이나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음).

韓国民家의 類型別 分類

金 鴻 植

우리나라 民家의 平面構成은 크게 외통집, 양통집, 겹집, 곱은자집 등 네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 중 곱은자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이것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一字집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곱은자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一字집이란 오양간이나 벽장이 덧달려서 평면 모양이 ㄱ자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붕의 용마루가 一字로 생긴 집을 말하고, 곱은자집(꺾음집)이란 평면 모양이 ㄱ자임은 물론이고 지붕의 용마루가 ㄱ자이어서 회첨골이 형성된 집을 말한다. 회첨골에는 빗물이 모이기 때문에 초가로서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고 내부의 구조 처리도 꽤 복잡하므로 기와집이나 부잣집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초가집으로서 곱은자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의 안채 하나만을 본다면 위에서 분류한 형태와 같겠지만 사랑채, 행랑채, 헛간채 등이 함께 배치되면 그 배치 모양이 여러가지가 되므로 해서 평면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어떤 지역에서는 안채에 사랑채를 곁다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행랑채만을 붙이는 수도 있고 또는 안채만으로 구성되는 수도 있다. 또한 상류계층들은 집을 지을 때 아예 큰 집을 짓는 경향이 있으며 하류계층들은 자그만 안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헛간채나 사랑채를 덧붙이는 방식을 쓰게 된다. 그리고 농작업의 방식에 따라서 앞마당, 뒤안, 바깥마당 등이 엄연하게 구분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바깥마당은 공동의 마을(타작) 마당을 이용하는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농작업 자체가 작업공간으로서의 바깥마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은 어떤 지역의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마을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민가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가의 평면 형태는 계층에 따라 몇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며 또한 이것이 건축된 시기에 따라서도 그 모양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북부형이니 서부형이니 하여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그것의 경제적 여건이 아닌 기후적 여건에 연결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대화 되어 가는 현재의 민가에 있어서 이러한 학문태도는 未來指向的이라기보다 과거의 회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1. 외통집

외통집은 집의 모양이 一字 형태로서 용마루 아래 방들이 한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한다. 구조적으로는 맞걸이 3량집, 전퇴집, 전후좌우퇴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전퇴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고 맞걸이집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방에 꽤 널리 퍼져 있으며 이것을 겟집이라고 부른다. 전후좌우퇴집은 사대부집에만 쓰이는 구조이지만 18세기 말 이후에는 민가에서도 삼남지방에서 중농계층의 집으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다.

외통집은 대개 한 채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안채+헛간채, 안채+사랑채+헛간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각각 쌍채집, 세채집이라고 부른다. 외채집은 전에는 외거노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이었거나 혹은 이제 막 독립한 가난한 계층의 분가한 집으로서 장차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쌍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초기단계의 집이다. 따라서 외통집들은 하류계층의 집이며 다만 전후좌우퇴집만이 그 집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원래 중농계층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걸이집은 일반적으로 3칸집인데 4칸집도 드물게 있다. 이 집은 거의 외거노비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믿어지며 독립적인 경리생활을 영위 했다기보다는 마을 부잣집의 부속사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남하하는 산간내륙지방에 적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서는 양통집과 더불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태백산맥 속에 존재했었던 화전민의 집도 이런 유형이 꽤 있었다.

퇴집은 3칸一字퇴집이 주류를 이루고 드물게 4칸一字퇴집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칸집은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방이 구들이거나 가운데 마루를 시설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부엌을 제외한 방 앞에 전퇴를 만들고 여기에 마루를 시설하여 퇴마루를 삼거나 아무것도 시설하지 않고 흙바닥을 이용하여 토방을 삼거나 한다. 이 곳은 작업공간이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완충공간이기도한데 중부지방에서는 뜨럭 또는 뜰판이라고 부른다. 보통 웃방 앞에 소죽을 끓이는 큰 솥을 건 작업부엌을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부엌이 필요치 않을 때는 웃방을 전퇴까지 키우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방 앞에는 토방을 만들며 여기에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면 마루를 까는 것이다. (원래 이 마루는 들마루로서 편상처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오면 그 규모도 커지고 집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마도 이러한 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형태일 것이며 외거노비 또는 소작농들이 주로 이용했다. 이들이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헛간채 또는 사랑채를 지어서 쌍채집 혹은 세채집으로 증축해 갈 수 있었다는 데 이 집의 큰 장점이 있었다. 이 집은 전국적으로 하층민의 집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인데 특히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 토지가 비옥하여 경제잉여가 많은 — 지역 즉 태백산맥 서쪽의 평야지대로서 평안북도에서부터 삼남지방의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며 그 숫자도 상당하지만 다만 다른 점은 북쪽으로 또는 내륙쪽으로 갈수록 폐쇄적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개방적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후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3칸퇴집의 일종으로서 웃방을 나누어 사랑방이나 도장방을 두는데 이것을 각각 一字사랑방집, 도장집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한 지역에 분포하는데 전자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지방에 드물게 퍼져 있으며 후자는 양통집이 일반적인 동해안지방에 있어서 가끔 보는 형태이다.

3칸퇴집에 헛간채 또는 사랑채가 곁들여 배치되면 쌍채집이 되는데 안채 맞은편에 배치될 때는 二(두이)字집, 안채 모에 배치될 때는 ㄷ자집이 된다. 헛간채는 보통 맞걸이 3량 3칸집이며 가운데는 헛간, 한쪽에는 오양간, 다른 쪽에는 사랑방이나 광이나 수렛간 등이 만들어진다. 헛간채에 방이 놓였을 때는 사랑채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헛간채가 된다. 이들의 분포 역시 앞의 퇴집과 같은데 외채집과 다른 점은 농촌경제에 필수적인 경리시설을 갖춘 집으로서 앞서보다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작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해안, 남해안 등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주로 해안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쌍채형에 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해 지면 집을 하나 더지어서 ㄷ자형태의 집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집이 모두 一字인 집은 세채집 혹은 一字ㄷ자집이라 부르며 안채가 곱은자이고 행랑채는 一字인 집이 결합된 것은 튼ㄷ자집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의 평면구성은 각각 3칸전퇴집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으며 안채에 부속사가 배치된 방법, 즉 안채의 양 옆에 날개처럼 배열되는 경우와 맞은편 및 그 옆에 배치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아주 예외적으로는 행랑채가 ㄱ자집으로 안채인 一字집과 더불어 튼ㄷ자 모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는 전통적 법식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던 19세기 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채집에 행랑채가 곁들여서 네채집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튼ㅁ자 모양을 이루며 세채집이나 네채집 모두 3칸一字퇴집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지만 그 수는 극히 드물고 전통성이 강한 지방 또는 하층민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집이 세 채 혹은 네 채로 구성되는 집들은 양통집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겹집과 양통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채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겹집과 혼용되고 있는 삼남지방과 제주에서는 이런 방식이 널리 쓰이고 양통집이 일반적인 안동에서도 집이 두 채 내지 세 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ㅁ자나 ㄱ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2. 양통집

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 방이 두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하며 구조적인 특징은 3평주 5량 혹은 3평주 3량집으로서 반드시 집 가운데 기둥들이 배열된 집을 말한다. 이러한 집들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여기에서는 양통집이라 부르며 남한에서는 일부 분포하고 이것을 겹집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중부지방 일부에서는 두줄백이집이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의미에서 뒤에 설명코자 하는 겹집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이북 지방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뒤에 설명하는 겹집과의 커다란 차이는 구조에 있어서 겹집이 2고주 7량 혹은 1고주 5량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붕이 우진각으로 많이 처리되는 데 비해서 양통집은 합각지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다. 한편 외통집의 전후좌우퇴집과 다른 점은 양통집이 칸수가 같은 방들을 앞뒤로 놓는 데 비해서 퇴집은 가운데에 한 칸 크기의 방을 놓고 앞뒤로 반 칸 크기 즉 퇴칸을 배열하는 점이다.

평면은 원래 田字의 평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이와 비슷한 것은 제주도의 2칸 막살이집과 昇州郡의 田字집이 있다. 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겹집에 가까운 것이며(특히 구조가 2고주 7량으로서 양통집과는 다르다) 후자는 완전 양통이긴 하지만 평면구성에 法則性이 없어서 그것의 生態的인 근원을 밝히기가 곤란하고 오히려 서부해안 지방에서 발달한 겹집이 양통집과 결합하는 형태로서 탄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田字의 평면은 현재 제주도와 남부해안 지대에만 소수 존재하며 과거에는 가장 빈한한 하층민의 주택으로서 남북을 막론하고 널리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싶다. 집들은 따로 부속사를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지처럼 다른 집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소작농이거나 어민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나 남부해안은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적었고 대신 개간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었으므로 생산력이 저급했던 17~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막살이집으로서 임시방편으로 막 지은 집이라는 뜻이며 근자에는 제주 4·3사건 이후에 많이 지어졌고 지금 남아 있는 집들은 대개 이 시기의 집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한편 후자는 가게라는 특수한 기능을 갖거나 사랑채 등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통집의 전형적인 형태는 6칸양통으로서 영동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 역시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평면구성은 중앙 앞쪽으로 마루를 까는 것이며 이곳에 온돌이 들어서는 것은 마루방이 온돌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추세의 하나로서 17~8세기 이후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지방인 원산에서 울진 사이까지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변형된 형태로서 중부내륙의 산간지방이나 서해안 또는 경남 창녕지방에서도 드물게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점은 영동형이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타지방의 것들은 전면 벽이 없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으로서 이는 기후관계인 겨울의 눈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영동지방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평면 형태이므로 자영농계층의 집이지만 다른지방에서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색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가는 산간지대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바로 면한 해안지방이라는 점이 같다고 볼 수 있겠고, 대개 부속사가 없으며 담장도 뒤안을 중심으로 뒤안에만 따로 쳐지는 수가 많다.

6칸양통집의 다른 형태 가운데 하나는 안동형인데 이것은 그 맥락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것이다. 이 중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평면 구성을 갖는다. 가운데 앞으로 봉당을 놓고 뒤로 마루를 배치하며 한쪽으로는 부엌과 안방, 다른쪽으로는 마굿간과 상방을 배열한다. 마굿간 위에는 다락이 시설되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마굿간이 외부로 나가고 여기에 상방이 설치되며 뒤쪽으로 고방이 만들어진다. 이런 집은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주변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형태인데 경기도 서해안 혹은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평면이 있다. 안동지방에서는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상류계층의 집들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지니며 여기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대부분 거리채(사랑채와 유사하며 거리방, 광, 고방 등이 있고 이것이 안채에 가까이 붙어 있음)를 두며, 보다 여력이 있으면 행랑채를 따로 만들었다. 이 지방에서 19세기 이전의 하층민 집들은 맞걸이집이었고 상류계층은 양통집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상류계층들이 ㄱ자집 혹은 확대된 양통집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현재는 이런 형태의 집을 하층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제주형집은 특히 작은방이 있는 3칸집(한칸형)의 경우 안동형과 비슷한데 그것의 구조, 평면 구성의 맥락 등으로 미루어 봐서 겹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6칸통집이 확대되면 8칸 내지 10칸양통집이 되는데 이것들이 크게 구분되는 점은 부엌 안에 정주간이 있는 것과 없는 점이다.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함경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중농 속 자영농 이상의 계층의 집이며 대농계층의 경우에는 二字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 되면서 부속건물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도 부속건물은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외통집이고 맞걸이 3량 구조이다.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은 정지(부엌+봉당)가 맨끝에 붙어 있는 경우와 정지 바깥쪽으로 고방과 방앗간 등이 있는 경우(방 구성은 각양각색)로 대별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부엌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자영농계층이 두텁게 형성된 동해안, 남해안의 도서지방 등 우리나라 해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농업을 주로 하는 산간지대에 많으며 양통집이 분포하는 강원도지방에 많다. 이러한 양통집들은 동해안의 경우 자영농계층에서 출발한 부농들이 기거하는 집이고(대농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평면 형태를 가지며 서울지방의 것과 비슷하다) 내륙산간지방의 경우에는 경기도쪽에 가까울수록 자영농계층이 이용하는 집으로서 이 때 부농들은 경기도식의 곱은자형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양통집들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집 - 자영농에서 부를 축적하여 부농이 되는 사람들의 집 - 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의 겹집과 쌍벽을 이루어 널리 분포하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규모만 컸지 집안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고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곱은자집과 결합하면서 도시의 6칸양통집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겹집도 아니고 양통집도 아닌 형태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서 양통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고 특히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집장사들의 집이나 아파트 평면구성은 모두 이것에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약간의 지방적 특색이 가미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그것만도 아닌 다른 요소 즉 그러한 경향에 대한 민중적 요구도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6칸양통집의 발전 형태 가운데 또 하나의 형태가 사방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건물의 측면 즉 건물의 합각부분(까치구멍)으로 대문이 나 있는 집이다. 이것은 사방 어느쪽에서 보더라도 3칸집이기 때문에 사방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9칸 내지는 12칸사방집이 있으며 가운데 공청 또는 대청을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된다. 이것은 황해도와 강원도의 접경인 광주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대에 분포하며 그곳에서는 부농계층에 속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현재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필자가 조사한 바와 같이 가게집(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갖거나 충북(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서처럼 산간지대의 화전민과 연관을 가진 집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집들은 태백산맥 화전민들의 집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현재도 강원도 산리에서 볼 수 있다.

사방집은 가운데 대청 부분에 통풍과 채광이 일체 되지 않아 너무 비위생적이었으므로 집 가운데 구멍을 뚫어 햇볕이 들게 한 집이 있는데 이것을 따리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9칸따리집, 12칸따리집이있으며 이것보다 더욱 규모가 커지면 대농계층의 ㅁ자집이 되는 것이다. 9칸따리집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코자 하는 곱은자와 유사하다. 이 집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서해안지방에 소수 분포하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며 가장 가난한 계층의 집이거나 지은지 오래된 집인 경우가 많다. 대개 이와 같은 내부 폐쇄적인 형태는 치안이 불안한 산간 또는 이것과 연결되는 해안지대에 많았으며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이 집이 도둑을 막기 위해 많이 지어졌으며 특히 구한말과 같이 치안이 불안한 시기에 널리 유행한 형태로 보여진다.

3. 겹 집

겹집이란 一字집으로서 한 용마루 아래 방이 일부는 두 줄로, 일부는 한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한다. 즉 가운데 칸들은 앞뒤에 퇴를 두어서 방들을 한 줄로 배치하고 양쪽은 퇴 없이 상하로 방들을 배치하는, 외통집과 양통집이 혼용된 집을 말한다. 이런 집의 구조는 대략 2고주 5량 혹은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2고주 7량의 집도 드물게 분포한다. 충청도지방에서는 이 집을 두줄백이집이라고 부른다. 이것과 양통집 및 외통집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외통집의 전후좌우퇴집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구조 방식이나 방의 배열 기법이 비슷하며 분포지역도 남부내륙지방으로서 서로 겹친다. 그러나 다른 점은 겹집의 경우 대개 전면이 4칸으로서 가운데 대청이 있고 맨끝의 방이 상하방으로서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데 비해서 전후좌우퇴집의 경우는 대개 3칸집이고 대청이 없으며 맨끝의 웃방이 하나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대신 뒤에 설치되는 골방이나 전면의 툇마루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큰 경향이 있으며 특히 웃방옆의 툇마루는 상당히 커서 5자 내지 7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와서 이 길이는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칸(대략 8자)을 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집에는 먼저 2칸겹집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에 분포하며 집의 평면은 앞서 설명한 양통집의 田字 모양과 비슷하나 구조는 양통집(이것의 구조는 3평주 5량이 대부분이고 대개 구들 위에는 고미를 얹은 천정을 하여 2중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과 달라서 5량 내지 7량이다. 2칸 막살이 겹집형은 평면이 田字 형태로서 부엌 안에 고방이나 마굿간이나 디루를 두는 모양으로 구분된다. 분포지역은 제주도에 상당수 있으며 남해안지역에서도 드물게 보인다. 이용하는 계층은 대단히 빈한한 계층으로 남해안을 제외한 이북의 3칸외통집과 마찬가지로 주로 소작농계층의 집이다.

제주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3칸집으로서 그 모양은 부엌 안에 작은방이 있거나 작은방이 없는 것으로 대별되는데 중앙에 대청을 두고 한쪽에 상하로 구들과 고방을 두었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겹집으로 보는 것이다. 분포는 제주도 전역에 걸치며 북쪽에는 작은방이 없는 3칸집이 많은 편이다. 이 집은 자영농계층의 집으로서 단독으로 쓰이지는 경우는 드물고 반드시 부속사가 덧붙여지는데 부속사만 있는 집은 역시 소작농 내지는 약간 가난한 자영농계층의 집이고 대개는 안거리와 밖거리라고 하는 쌍채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밖거리에는 방 하나와 헛간, 마굿간 등이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도에 있어서 4칸겹집은 부엌 안에 작은방과 식당으로 이용되는 챗방이 상하로 배치되는 집으로서 이 곳의

상류계층이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자영농계층이 많이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집은 한 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채와 묵거리라는 부속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바깥채에는 대개 대문간이 놓이고 농촌에서는 대문 (대문 시설이 없는 울래라는 출입구)이 따로 시설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4칸집은 소위 읍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흔히 보여지는 평면 형태이다.

겹집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예는 삼남지방에서 보이는 것으로 부엌, 큰방, 대청, 사랑방의 순으로 배열되는데 부엌은 정지방과 부엌으로 상하가 나뉘고 사랑방은 상하방으로 나뉘며 대청과 안방 앞에 퇴마루가 놓이는 형태이다. 이러한 집이 변형되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겹집이 나타나며 남해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겹집의 맨끝에 붙어 있는 사랑방이 부엌의 바깥쪽에 이어져서 부엌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열되므로 고용인이 없는 자영농계층의 집에서 불을 쉽게 땔 수 있는 즉 주부의 동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겹집 형태는 남해안의 도서지방과 제주도에 분포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런 집들이 두 채 혹은 세 채,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사까지 포함하여 네 채가 구성되는 예가 많으며 이 경우 대략 ㅁ자 모양을 이루지만 육지의 집과 달라서 안마당만 있을뿐 바깥마당은 존재치 않고 대신에 뒤안 공간이 크게 발전하여 이곳에는 부엌 또는 대청에서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양통집의 공간 개념과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안마당이 집안에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는 안마당이 바깥마당으로서 완전히 외부에 공개되고 뒤안만은 경리시설의 중심지로 이용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부에서는 해안으로부터 약간 들어가는 내륙지방에서는 겹집이 보통 단독으로 쓰이며 가끔 부속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살림채만은 안채 하나에서 단독으로 이용되고 최근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주택에 있어서 一字집의 형태는 대략 겹집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 많으나 다만 퇴마루 앞에 유리창을 달아서 추위를 방지하고 대신 앞마루가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커지는 경향은 일반적인 것이고 보통 한 칸의 크기 개념이 전에는 8자에서 지금은 10자의 경우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4. 곱은자집

곱은자집은 ㄱ자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안도지방에서는 꺾음집이라고 부르는데 충청도 용어인 곱은자를 학술용어로 쓰기로 한다. ㄱ자집이란 말은 최근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ㄱ자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방에서의 곱은자집은 20세기 이후에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곱은자집이 외채로 지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며 장차 사랑채 혹은 행랑채를 짓기 위한 임시적인 현상이다. 표준적인 형태는 가운데 대청을 두는 5칸곱은자 형태인데 그 밖의 여러가지 변화된 것도 있다. 즉 오양간이 몸채 밖으로 빠져 나온 오양간 곱은자집과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으로 살림방을 배치하는 가운데 부엌집, 그리고 5칸대청집에 살림방들이 증가된 6칸 내지 7칸 가운데 대청집들이 있으며 남해안지방에는 대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엌이 가운데 위치하는 특이한 형태도 있다.

오양간 곱은자집은 강원도 산간지대에 꽤 분포하는 것으로서 부엌에서 오양간이 곱은자로 덧달린 형태일뿐 오양간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계층 구분이 불가능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오면 오양간이 몸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것은 약간 오래된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가운데 부엌집은 삼남의 내륙지방에 드물게 분포하여 역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운데 대청집은 살림방이 증가된 형태이건 아니건간에 모두 중부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평면에 있어서 간판격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집 역시 자영농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부분이 다음에 설명할 튼ㄷ자형식을 이룬다. 가운데 대청이 없이 구들로만 형성되는 중앙구들집이 있는데 이 집은 중부내륙지방에 드물게 분포하고 6·25전후의 임시적인 건물로 나타났던 것같다. 대청이 있는 가운데 부엌집은 남해안지방의 특수한 형태로서 앞서 설명한 곱은자집과는 사실 그 맥을 전혀 달리하는 평면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곱은자 외채형집은 전국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며 그 평면형태도 다양하고 주로 자영농계층 가운데 상류층이 이용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튼ㄷ자형태는 곱은자집 안채와 一字型 사랑채 또는 행랑채로 구성된 집으로 안채는 대략 5칸 가운데 대청집이고 사랑채는 맞걸이 3칸집이다. 여기에 대문간을 내는 경우와 대문을 따로 시설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들은 모두 태백산맥 서쪽의 중부지방에 꽤 많이 분포하며 역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형태 가운데 ㄷ자집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서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꽤 분포하며 ㄷ자의 터진 곳을 전면으로 삼는다. 이것은 그 맥락을 찾아본다면 똬리집의 전면 부분이 없어진 형태이고 이러한 집들 앞에 一字행랑채를 배치하여 튼ㅁ자를 이루는 형태는 경기도와 안동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보는 것이다.

ㅁ자형집은 가운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이 ㅁ자로 구성되고 앞쪽에 대문간과 바깥마당이 구성된 집을 말하는데 이것을 경북에서는 뜰집이라고 부르고 경기도에서는

ㅁ자집이라고 부른다. 도시 또는 사대부집은 형태가 약간 변형되어 之字 모양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집들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히 도시지역에 널리 분포되었던 것이며 지방에서도 안동에는 유달리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ㅁ자집에 一字 행랑채가 덧붙여져서 ㅁ자 이상의 형태가 되면 이것은 사대부집이므로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토호 내지는 대농계층의 집들만 취급한다. 개성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ㅁ자집은 사실은 ㅁ자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ㅍ리집으로 보여진다.

ㅁ자집 가운데 가장 형태가 많은 것은 곱은자 두 채가 형성되어 튼ㅁ자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들의 안채 평면구성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곱은자집으로서 대략 비슷하고 다만 사랑채만이 다를 뿐이다. 사랑채는 대문간의 유무, 대문간이 대청을 향하는 경우와 부엌을 향하는 경우 혹은 대문간을 꺾어지게 만드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주변의 산세, 대지조건, 안채의 방위, 나아가서는 집주인의 운세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들은 중부지방에서 꽤 많이 분포하며 대농계층의 집이고 더욱 살림이 증가되었을 때는 바깥마당 옆에 一字型의 부속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타 지방에서는 대단히 드문 형태이고 사대부 내지는 대농계층의 집에서 이용되는 형태이다. 그 이유는 대농들의 집이 다분히 개인적 취향이 강조되므로 중부지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튼ㅁ자집을 모방하여 짓는다는 것은 서울과의 연관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대부를 제외하고는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들이 도시에서 나타날 때는 서민주택으로서 ㄷ자집이 가장 많고 부잣집으로서는 乙字집, 工字집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세기 중반 이후에 발생한 도시형식의 신형과 맥락을 갖는 것이다. 신형은 근본적으로 양통집이긴 하지만 집의 모양은 대략 ㄱ자 모양이 많고 특히 안방이 마당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ㄱ자집이 채광과 통풍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장차 아파트 평면도 一字집에서 ㄱ자집의 집합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금성종합건축)

瞻星台에 대하여

宋 旼 求

瞻星台는 新羅 善德女王在位時(632~646) 天文台로서 築造되었으며 東洋最古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세밀히 觀察하면 당시로서는 完璧한 天文台의 構造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看過하고 막연히 天文台였을 것이라고만 보아 왔다. 좀더 究明한 学者는 돌의 個数가 362個이고 여러가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 十干·十二支등의 表現으로서 記念的인 築造인 것이라는 것이 瞻星台에 대한 判断이였었다.

人智가 結集하여 이루워진 築造物이라는 것은 外形上 單純한 것이라도 그것이 이루워 짐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成遂되는 것이 아니며 規模의 大小를 불문하고 現在나 過去나 복잡한 過程이 背後에는 깔려 있는 것이다.

瞻星台를 理解함에는 몇가지 予備的인 推定을 設定하여야 한다. 그것은

「옛 부여의 풍속에는 비 오는 것과 별 나는 것이 고르지 않아 오곡이 익지 않으면 그 허물을 곧 임금에게 돌려 마땅히 바꾸든지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記錄이 魏志東夷伝에 실려 있다.

이것은 어느나라건 古代나 現代나 天文觀測이 중요하며 最小限度로 天文觀測에 의하여 農耕의 指針을 잘 履行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責任은 觀測者에게 돌아 올 것이고 觀測者는 正確한 觀測과 判断을 必死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라는 것은 능히 想像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은 人間의 마음과는 같지 않으며 宇宙의 神秘는 現代科学의 発達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을 古代의 觀測과 判断의 差異의 責任을 져야 함으로서 모든 記錄이 後世의 우리에게 伝하여지지를 못한 原因이 아닌가 생각 된다.

宇宙의 神秘는 古代 Greece에서 整数의 比例로서 說明해야 하듯이 東洋에서도 그러하다.

周易의 繫辭上伝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하늘을 一, 땅은 二, 하늘은 三, 땅은 四, 하늘은 五, 땅은 六, 하늘은 七, 땅은 八, 하늘은 九, 땅은 十이다.

천수(天数)도 五, 지수(地数)도 五다.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 천수는 二五, 지수는 三○이다. 무릇 천지의 수가 五○이요 또 五다.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

대연(大衍)의 수는 五○이지만 그 쓰는 것은 四九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천지(天地)를 형성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형성하고, 이것을 四로 세어서 四시를 형성하고, 기수(奇数)로 시초(蓍草)를 손가락에 끼워 윤(閏)을 형성한다. 五년이면 다시 윤달이 든다. 그러므로 다시 시초를 손가락에 끼운 뒤에 걸어놓는다.

건(乾)의 책(策)은 二一六, 곤(坤)의 책(策)은 一四四, 모두 三六○이니 이것은 一年의 날 수에 해당한다. 두 편(篇)의 책이 一만一천五二○이니, 이것은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以上과 같이 宇宙를 数에서 解析하려는 것은 東西가 같으며, 여기서 특히 重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大衍의 数는 50이지만 그 쓰는 것은 49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天地를 형성하고, 하나를 걸어서 三才를 형성하고…」라는 句節이 지닌 無窮無盡한 뜻이다.

大衍의 数라는 것은 根拠가 확실치 못하다고 한다. 十干·十二支·二十八宿의 合計라는 說, 太極·両儀·日月·四時·五行·12月·24気의 合計라는 說 등등이 있으며, 三才라 함은 天地人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如何間에 그 句節이 解釋여하에 따라서는 Pythagoras의 定理의 原型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Diophantos가 Pythagoras定理의 整数解를 구하는 方法의 Hint가 감추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理由는 49를 둘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整数는 24와 25이다. 또 49는 7의 自乘이며 25의 自乘에서 24의 自乘을 減하면 7의 自乘이 된다. 그런 고로 7 : 24 : 25는

整数恵比로서 三辺의 比가 이러한 三角形은 直角三角 形이 된다.

이러한 方法으로 整数恵比를 찾아내면 無限히 많은 Pythagoras定理의 整数解를 구할 수 있다. 例를 들어 9의 自乘은 81이며 81를 両分하면 41과 40이 된다. 41의 自乘에서 40의 自乘을 減하면 9의 自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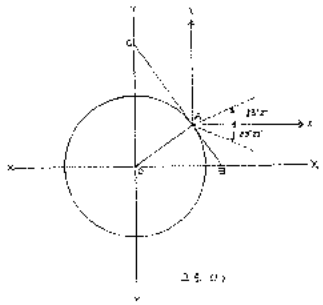
그러므로 7 : 24 : 25는 人 : 地 : 天이고, 또 9 : 40 : 41도 역시 人 : 地 : 天이 된다.

三国이 정립한 高句麗, 百済, 新羅의 都邑이 7 : 24 : 25 및 9 : 40 : 41에서 定하여 진 것이다. 즉 新羅의 경우 夏至의 太陽의 日南中高度의 仰角은 자를 垂直으로 세워 놓고 41의 높이에 그림자가 9인 地域이 慶州라는 것이다. 9 : 41은 人 : 天이기도 하다. 高句麗는 7 : 25, 百済는 9 : 40을 취하였다.

따라서 新羅는 夏至의 太陽의 日南中高度의 仰角을 9 : 41을 取함으로서 瞻星台 역시 基本尺度는 9 : 41에서 이루워진다. 또 이러한 整数恵比라야만 天文観測에 誤差를 極少로 막을 수 있고 直角은 容易하게 구하여 진다.

다음에 一年에 두번 있는 밤·낮의 時間의 길이가 같은 春分·秋分의 太陽의 日南中高度의 仰角은 天文観測에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때의 仰角에 90度를 더 한 角은 北極星의 位置를 가르키게 된다.

그 理由는 그림(1)에서 円O를 地球라고 하고 A点을 가령 慶州라고 하면 A点을 지나 円O에 接하는 切線을 그으면 切線BAC는 水平線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OA는 垂直이 된다. 다음에 Y軸은 北極星을 向하며 X軸은 赤道로서 春分·秋分때의 太陽의 位置를 向한다. 만일 A点에서 X軸·Y軸에 平行線 AX′·AY′를 그으면 無限히 먼 太陽과 北極星에서는 이것이 만난다. 따라서 이 2個의 平行線은 太陽 및 北極星과 A点을 이은 것이라고 생각 하여도 큰 誤差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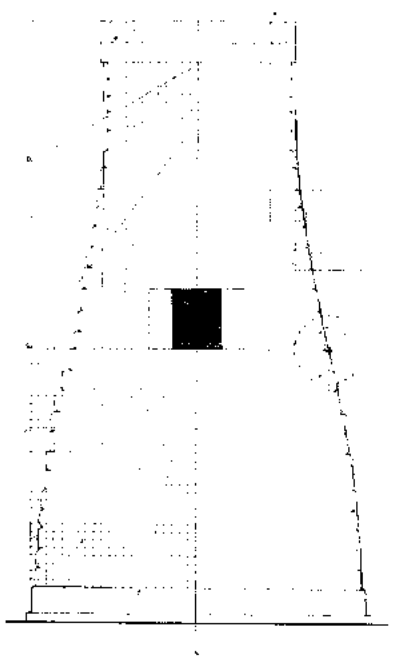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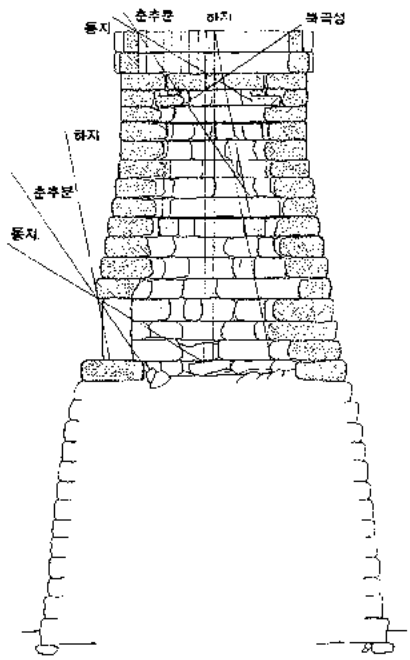
따라서 △BOC에서

∠AOB=∠BCO=∠CAY′

∠X′AY′=∠R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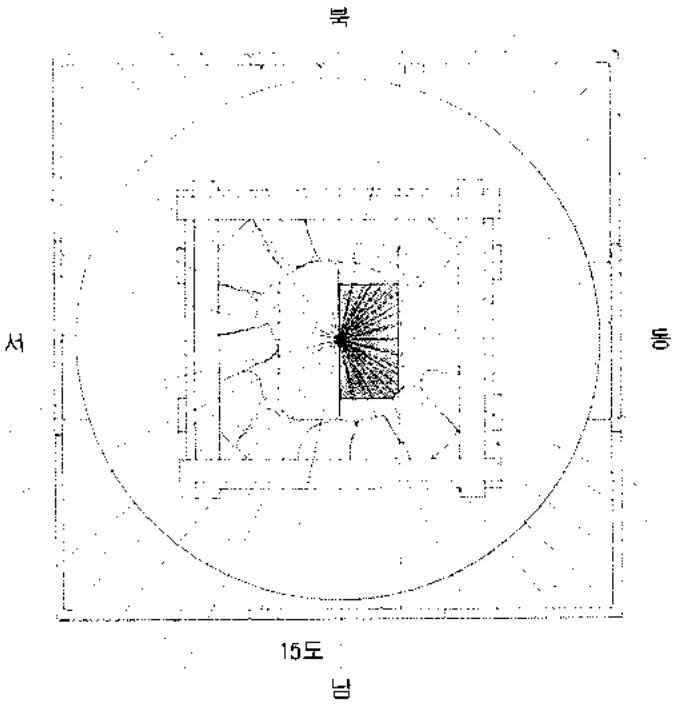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関係로 AX′는 春分·秋分때의 太陽의 位置를 向하며, 이에 90度를 더한 AY′는 北極星을 向하고 ∠X′AY′는 A点의 緯度를 나타 내게 된다. 夏至와 冬至는 AX′를 경계로 左右에 23度27分을 취하면 그때의 太陽의 位置를 알 수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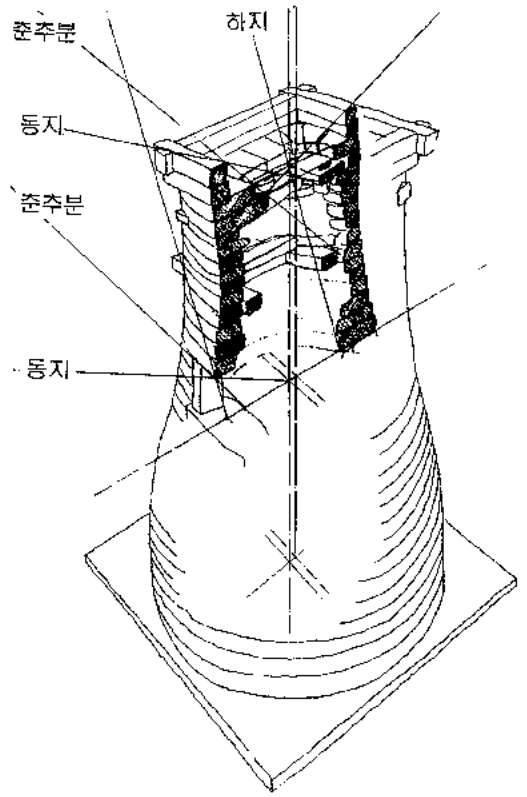


이러한 予備知識을 가지고 瞻星台를 세밀히 觀察하면, 그림(2)에서 上部 井字型으로 짜진 正四角形의 一辺이 太陽光線을 받는 部分이기 때문에 基準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쉽게 判斷이 된다.

內面에 있는 正四角形의 2分의 1를 9等分하고 瞻星台의 垂直中心線을 취한후 이에 頂点에서부터 9等分한 単位를 41個 취하면 中央에 있는 開口部의 下端과 一致하게 된다. 그 点을 O라고 하면 AOB는 夏至때의 日南中高度에서의 太陽光線의 進入方向이며, AC는 春分·秋分, AD는 冬至때의 進入方向이다.



평 면



단 면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OC는 21単位이며 側面의 曲面은 最初의 9単位와 같은 幅으로 하고 X軸方向으로 5単位식 分割한 뒤에 Y軸上에 9単位를 直径으로 한 円을 그린다음 三角函数曲線을 作圖하면 優雅한 瞻星台의 모습을 얻게 된다.

이 曲線은 다름 아닌 黃道十二宮의 曲線의 半을 취한 曲線이다. 이 垂直으로 된 黃道十二宮의 曲線은 頂上에서 얼마든지 座標変換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簡単하며 A点에서 願하는 角度로 斜軸을 밖으로 내보내면 曲面에서 重直으로 斜軸에 座標를 移動시키고 이것을 다시 頂上에서 水平으로 座標移動을 시키면 된다.

以上에서 外形에 대한 新羅사람들의 天文台로서의 役割를 치밀하게 考慮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그림(2.2′)의 断面을 觀察하면 頂上部 平面의 正四角形內部에 또 正四角에 가까운 작은 矩形이 하나있으며 2分의 1을 돌로 막고 모서리를 正南을 向하는 中心에 一致시켰다. 이것은 半은 開口部로서 觀測에 私用하고 다른 半 돌 部分은 裝置를 세우는 발판으로 利用한다든가 낮에는 瞻星台內部의 中心線과 돌의 모서리의 線이 一致하면 瞻星台內部에서 正南을 얻게 된다.

內部에는 井字形으로 짠 돌의 横架材가 頂上部에 가까운데와 外部돌 段数로 보아서 25段되는 部分에 2個所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XY座標를 얻기 위한 것이라 判斷된다.

上部는 觀測者, 中央은 座標調節, 下部 즉 側面에 開口部가 있는 Level에서는 座標記録者, 이렇게 하여 夜間에는 開口部로 照明을 投射하여 記録에 支障이 없게 하는 동시에 觀測에도 밝어서 觀測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리라 생각 된다.

이와 동시에 太陽의 入射角을 보면 가장 重要한 春分·秋分때의 太陽의 進入路가 中央 井字形標架材에 그림 (2)의 AB와 같이 이루워 진다. 따라서 이 線에 直角을 이루는 方向이 CD임으로 이 方向에 맞추어 미리 裝置을 設置하고 待機하였다가 마지막 調整을 할 수 있게 한다. CD는 北極星을 向한다.

夏至때의 太陽의 入射角은 EF이다.

또 冬至때는 台의 中央開口部를 利用하며 이것은 GH이다.

H는 頂上部 9等分点의 垂直線과 一致한다.

平面을 觀察하면 中心과 平行한 線은 28宿중의 一宿의 幅이며, 每宿마다의 觀測을 確然히 区劃지을 수 있게 되어있다.

만일에 疑晦와 十二支가 組合되어서 쓰여졌다면 이것은 遊尺(Vernier)와 같은 役割을 하는 놀라운 結果가 나온다.

結論은 不分明하였던 瞻星台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觀測者의 記錄이 남은 것이 없기때문에 더욱 詳細한 것은 알길이 없으나, 外形과 構造만으로 推定하여도 完璧한 天文台였었다는 것을 再三強調하는 바이다.

註1) Pythagoras定理의 整数解에서 最数에 대하여 다음의 比가 成立한다.

3 : 4 : 5　　5 : 12 : 13

6 : 8 : 10 – (倍 3 : 4 : 5의 倍 7 : 24 : 25 省略)

8 : 15 : 17

9 : 12 : 15 – (倍 3 : 4 : 5의 倍 9 : 40 : 41 省略)

10 : 24 : 26 – (倍 5 : 12 : 13의 倍 省略)

註2) 台의 頂上部에서 觀測用窓口의 端部에 수직에 줄을 달아 底部에 내려보내면 星辰을 鍾의 位置에 비롯 記錄이 可能함.

줄은 微風에도 움직임으로 瞻星台와 같이 上部에서 作業하는 것이 바람직함. □

(東亞大 工學 代表)

新刊　**韓國傳統木造建築圖集**

1. 柱心包式建築／2. 多包式建築／3. 折衷式建築／4. 翼工式建築／민도리집建築／圖版解說／東洋三國의 傳統木造建築年表／찾아보기

編著者　韓國建築家協會

값　15,000원

發行處　一　志　社

재미로 읽는 構造

李 昌 男

建築士誌를 받아들고 책장을 넘기다 "構造"라는 單語만 보여도 얼른 外面하는분들, 억지로 읽다보면 한 페이지당 하품이 두번 이상 나오는 建築士들을 위하여!!
재미있고 쉽게!! 그러나 가끔 쓸만한 말도 있는 그런글.
이것이 筆者가 스스로 세워놓은 울타리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울타리 밖 줄집으로 달려가지만 한잔 이상은 절대로 안마시는 習性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建築士들은 設計라는 美名아래 땀흘려 번 남의 돈을 요리조리 쓰게 만들고 있다. 과연 그 돈이 다 들어야만 했었는가? 反省할 良心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自責해 본다.

數많은 無名兵士의 죽음으로 因해서 번쩍이는 별을 달게된 將軍, 그러나 部下를 많이 죽였다는 그 戰歷을 믿기에 그의 이른바 作戰에 生命을 맡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顧客인 建築主들은 建築家의 傲慢함을 역겨워하면서도 참는다는 것쯤 눈치챌줄 알아야 한다.

하물며 變함없는 旧式工法으로 계속 다른 犧牲을 일삼는 無責任한 建築家가 될수야 있겠는가?

여기서 筆者는 그동안 익힌 몇가지 잔재주를 紹介 하여 資源戰爭時代를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해본다.

1. 지게型 옹벽

建築工事에 附隨되는 옹벽, 土木構造物이라는 理由로 土木設計에 떠맡기려해도 如意치가 않다. 기껏 생각해낸게 建設部 標準図나 기타 構造책자를 참고하여 얼버무려 보기도 한다.

逆T形옹벽이나 L形옹벽은 가장 일반화한 것이며 옹벽뒷면에 쌓이게될 흙의 무게를 利用하는 제법 合理性을 가진 形式이다. 옹벽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Cantilever 벽체만으로는 불경제적이라 생각될때 Buttress를 두어 보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副作用이 있게 마련이다. 옹벽의 安定性을 위하여는 Over-turning (転倒), Sliding(滑動) 및 地般의 支持力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옹벽 뒤의 흙을 利用하다 보면 土工事量이 많이 증가하게 되며 現場事情에 따라서는 그 工事自体가 不可能할 때가 많다.

어떤때는 멀쩡한 굳은땅까지 따내가며 所定깊이까지 흙파기를 해야한다. 또한 이렇게해서 施工되는 옹벽은 결코 그 工事費가 적게드는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흙파기量을 될수록 줄이면서도 같은 効果를 얻는 方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筆者가 고안한것이 여기 紹介하는 "지게型옹벽"이다.

옹벽기초부분 지반이 좋고 옹벽뒷면 흙파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서는 使用하기 적합한 構造方式이며 여러現場에 施工하여 좋은 効果를 얻은바 있다.

대체로 그 断面은 그림 2와 같으며 크게 가, 나, 다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부분은 보통 옹벽과 같은 cantilever応力을 받는 壁体로서 그 固定端이 되는 下部에는 거대한 짐뭉이인 concrete덩어리 "나"가 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는 굳이 콘크리트의 質이 좋을必要가 없으며 큰돌을 섞어 配合한 貧配合 concrete도 좋다. 더구나 이 "나"부분의 뒷면은 그아래 "다"부분 뒷면과 더불어 거푸집대기가 필요없는 부분이다.

짐받이콘크리트 덩어리는 그 自重과 위에 실린 흙重量과 協力하여 土圧에 의한 Over-Turning에 逆方向으로의 安定性을 附與하며 따라서 "다"부분에는 별로 큰 応力이 作用하지 않게 된다. 까닭에 "다" 부분 断面의 配筋은 주로 基礎地盤反力에 의해서 計算된다. 이상 간단한 構造概念을 說明하였으나 各部断面의 応力과 크기는 地質狀態와 높이에 따라 Over-Turning, Sliding, Soil Bearing을 확인한 후 断面算定 하여야 한다.

참고로 서울市内某處에 施工된 지게型 옹벽断面을 옮기면 그림 3과 같다.

거의 岩이나 다름없는 난단한 땅을 깎아내고 옹벽을 設置해야 하는때도 있다. 土圧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니 옹벽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 이런경우의 해결策으로 筆者는

다음方法을 많이 使用하고 있다. 역시 흙파낸 면에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 거푸집을 절약하여 一種의 重力式옹벽이므로 貧配合콘크리트로 施工한다. 옹벽工事后 옹벽의 段上에 建物의 荷重을 作用시켜서 安定性을 높인다. 다만 建築工事時期가 옹벽工事時期와 맞지 않을때 (三柱 빌딩)에는 그期間의 安全을 위하여 EARTH ANCHOR를 施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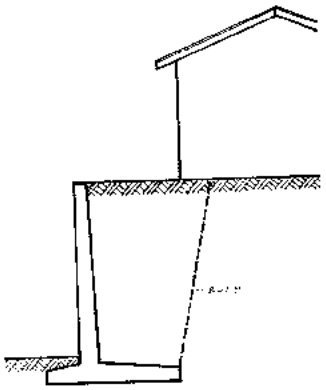


그림 1. 逆T型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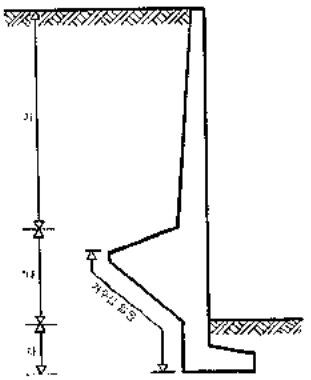


그림 2. 지게型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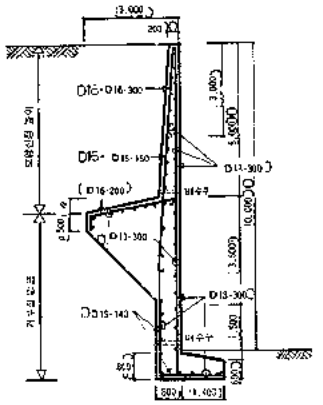


그림 3. 지게형 옹벽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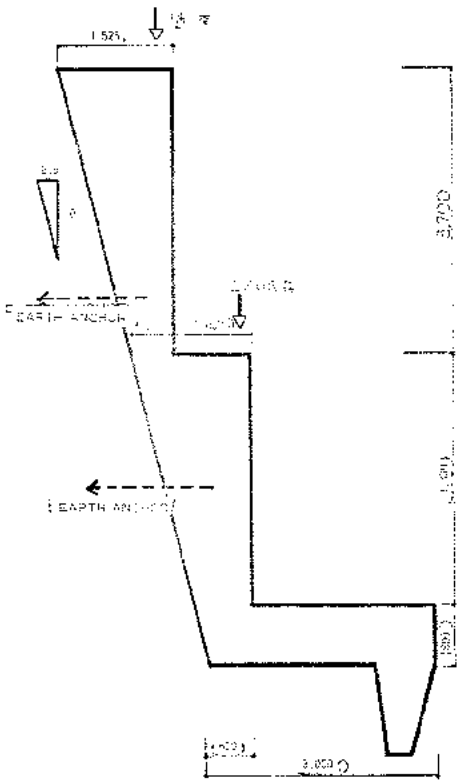


그림 4. 옹벽단면例(三柱 Bldg)

도 한다. 기둥은 이들 보가 交叉되는곳마다 두되 굳이 規則的인 配列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平面생긴대로 있어도 되는곳에 두면 足하다. 層數에 따라 다르지만 기둥間을 줄이는 대신 깊이를 늘여 마치 壁体의 一部 [illegible] 계획하고 줄으며 심하지는 아예 耐力壁으로 設計하기도 된다. 철근콘크리트는 비싸고 벽돌이나 콘크리트는 값이 싸다고 하는 固定觀念을 버려야 한다. 設計가 끝나 完結을 마치면 반드시 건가 삼뜻된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工事費가 적게든다는것을 實感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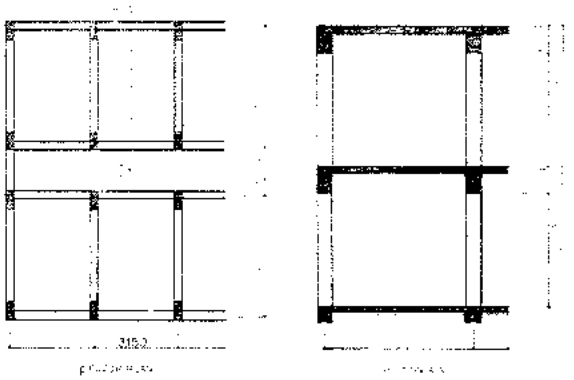


그림 5. 기숙사 평면 및 단면

2. 철근콘크리트構造의 經濟 span

여기서 說明하고자 하는것은 一般的인 얘기가 아닌 特殊部分에 關한것이다. 아파트, 기숙사등 層마다의 平面이 同一할때, 特히 1層이나 地下室에 特別한 넓은 空間을 必要로 하지 않는 建物에서는 심한 表現으로 "기둥이 많을수록 經濟的인 構造物로의 設計가 可能하다."라고 말할수 있다. 外壁이나 間壁을 따라 보를 전부 보내되 보巾은 가급적 벽체두께에 맞추고 보높이는 窓이나 出入門을 제외한 上部全部로 한다. 이렇게 하면 보높이때문에 추가로 層높이가 높아지는 일이 없어 層高가 2.6m로 해결되기 壁마다 보를 두었으니 slab 配筋이 많아질리 없고 짧은 span에 무리하지 않은 높이의 보이므로 主筋의 굵기는 普通 16mm로도 충분하다. 地球의 重力은 위에서 아래로 向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向한 部材 즉 기둥이 많을수록 힘의 흐름이 円滑한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1층이나 지하室에 넓은 空間이 필요한 때에도 方法은 있다. 작년에 준공된 호텔서울가든(1979. 11월 建築士에 發表됨)은 호텔客室層을 耐力壁으로 計劃하고 下部 共用空間에는 기둥을 配置하여 두가지 條件을 다 만족시키게 되었다. 호텔客室內에 기둥이 없어 使用하기에 便利함은

물론이고 工事費도 많이 節減되었다.

현재 工事中인 新濟州觀光호텔은 그림6 과 같은 재주를 부려 목적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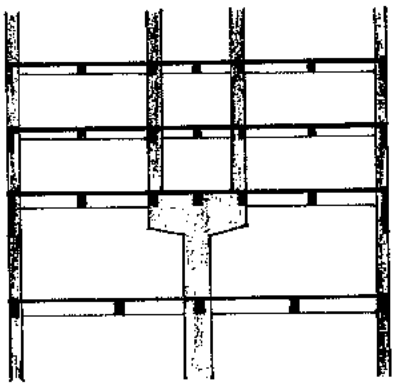


그림6. 신제주호텔 부분단면

3. Staggbred transverse wall beam

筆者가 생각해낸 構造方式은 아니나 몇번써본결과 반응이 좋은것같아 紹介하기로 한다. 역시 아파트나 호텔, 기숙사같이 고정間壁이 많은 建物에 적용하기 좋은 構法이다. 美國, cauada 에는 많이 流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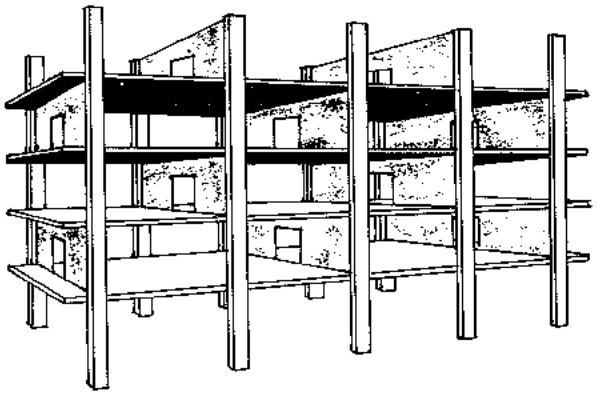


그림7. STAGGERED WALL BEAM SYSTEM

그림7과 같이 기둥은 建物의 前后 두列에만 配置하고 壁보를 層마다 어긋나게 設置하면 기둥과 보 없는 훌륭한 構造가 이루어진다. 最上層이나 最下層 必要하면 中間層 어디에나 無柱無壁空間을 마련할수 있는 長点이 있는 反面 여러가지 制約條件이 있다. 壁보에 생기게 마련인 開口의 크기와 位置가 그것이다. 물론 開口의 크기는 적을수록 좋고 span 의 中央에 位置할수록 有利하다. 壁보 個個의 応力은 各壁보의 上下에 붙은 slab의 荷重을 지탱하기 위하여 생기며 마치 한層높이의 h-beam을 기둥에 붙여놓은듯한 형상이 된다. slab를 tbeam 의 flange 로 이용함은 물론이다.

橫荷重에 対한 耐力도 좋은 훌륭한 構造方式이다.

4. 地下室이 떠오른다.

주어진 垈地與件에서 가장 많은 延建坪을 얻어 내도록 設計하는것이 有能한 建築士가 되는 條件中의 하나 처럼 되다보니 駐車場, 機械室等이 점차 地下3, 4層으로 쫓겨 내려가게 된다. 高層建物의 tower 部分은 물론 地上層이 없거나 또는 一部 低層部만 있는 部位도 전부 地下室이 들어서게 마련이다. 地下室 깊이가 별로 깊지 않거나 또한 깊드라도 그 範圍가 넓지 않을 때는 그대로의 解決方法이 있겠으나 大型建物의 地下室은 그렇게 간단히 넘겨지지 않는다.

地下室 層数가 늘어갈수록 地下水圧은 上昇하게 되는데 建物의 重量은 그에 못미치기 때문에 급기야는 배가 물에 뜨듯 地下室이 地下水에 뜨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実例를 들어가며 입이 아프도록 說明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建築士들이 意外로 많기에 간단히 說明을 곁들어 보기로 한다.

国民学校에서 U字管現象에 관한 공부를 했다. 한강물 깊이 10m에서의 水圧과 우물물 10m 깊이에서의 水圧은 다 같이 10t/m²이다. 地下室 周圍에 몰려드는 물은 그게 地下水이든 下水道 터진물이든 関係없이 그 水位의 높낮이에 따라 水圧이 發生한다. 水量의 多少가 아니라 水位의 高低가 水圧値이다. 흔히들 地下室을 파도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程度인데 무슨 水圧걱정을 하는가? 라는 質問을 해온다. 줄줄 흘러나온 물이 나갈데가 없어 地下室 바닥 上部 3m까지 찼다면 設計用 水圧은 3t/m²인 반면 아무리 많은量의 물이라도 잘 흘러나가 地下室周辺壁을 1m 以上 浸水시키지 못한다면 設計用 水圧은 1t/m²로 足하다. U字管을 利用하여 水圧 press나 油圧 press 를만들어 쓰는 것을 보면 쉽게 理解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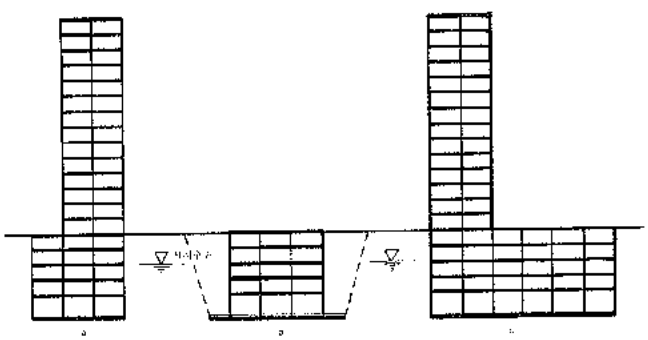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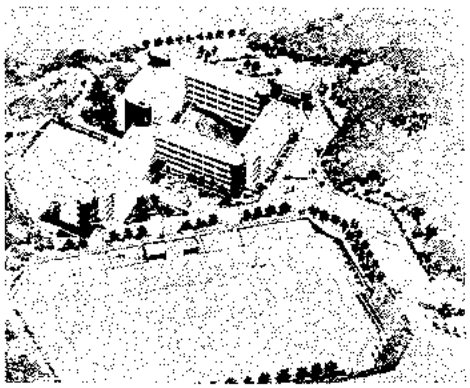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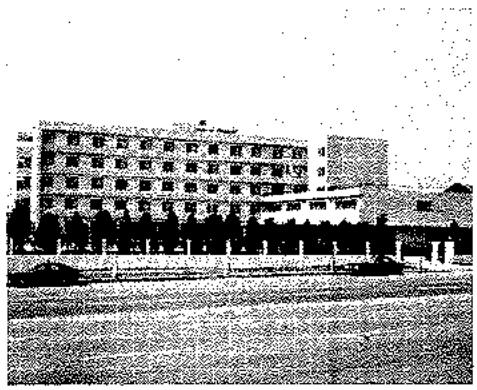


그림8. 지하실

그림8에서 (a)와 같이 地下室 部位가 地下層에 比해 별로 크지 않을 때는 별 無理 없는 設計가 可能하다. 地下室 周辺의 흙은 地下室 外壁과의 摩擦力이 地下室 浮上을 防止하기 때문이며 설사 그 摩擦力이 水圧보다 적드라도 바닥 slab를 내밀어 그 위에 흙이 담기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b)가 그의 說明이다. 그러나 그림 (c)와 같이 地下室 範圍가 커지면 周辺흙과의 摩擦力에는 限界가 있으며 만약 그 값이 安全側에 들드라도 긴 span 의 地下室 바닥構造를 地中보에 依存한다는 것은 無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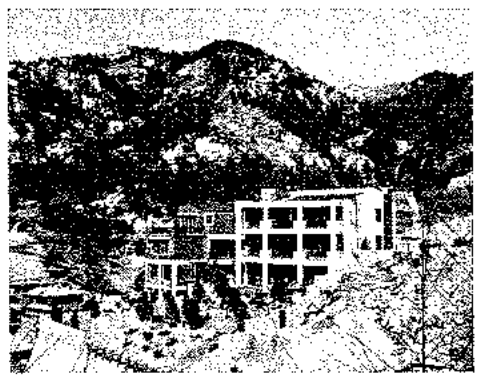


黃一仁学校　建元社



安箕泰 銀行研修院　同和建築

洪哲洙寺刹　동서건축



朴商浩住宅　石林建築

李永熙教会　建和社

朝興銀行 研修生活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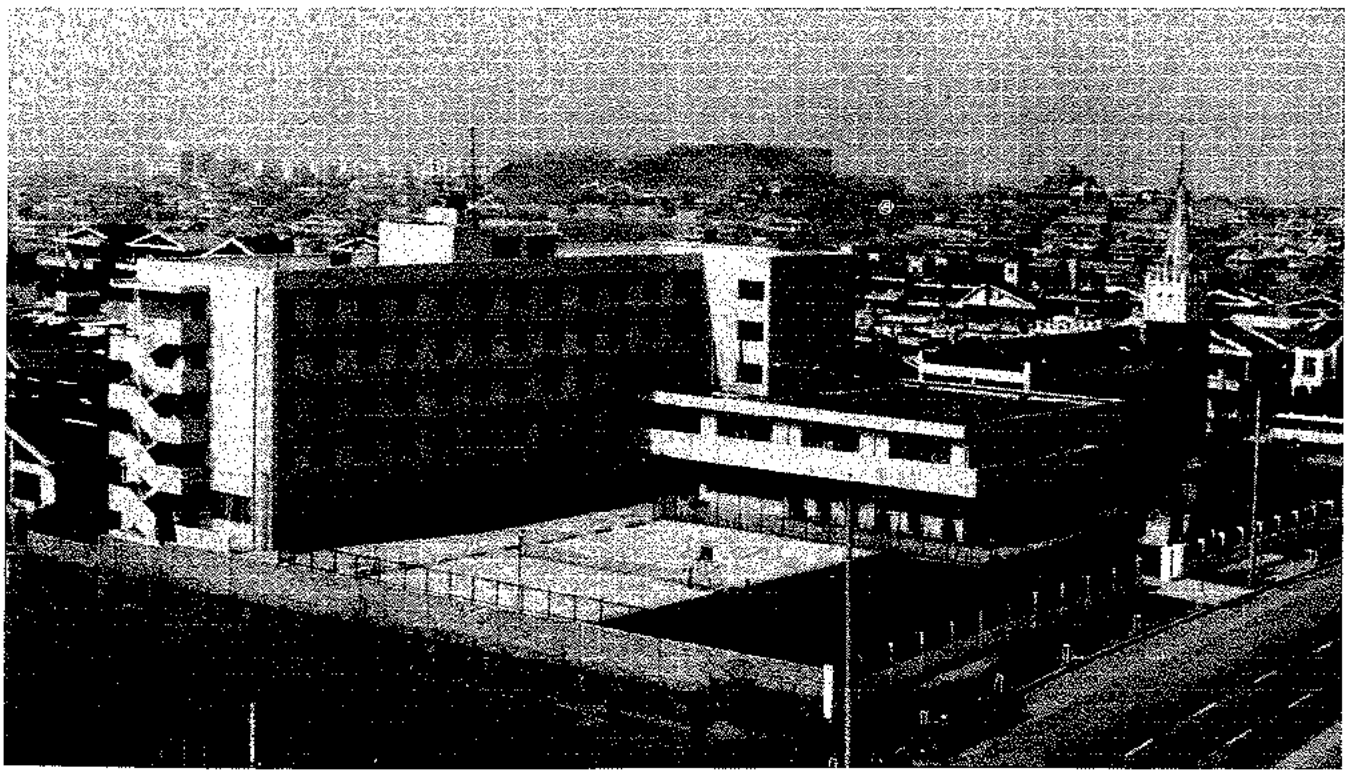
安箕泰 同和建築研究所

位　　置：서울特別市 강남구 논현동
構　　造：鉄筋콘크리트造　　地下1層 地上5層
建物面積：延面積 5,01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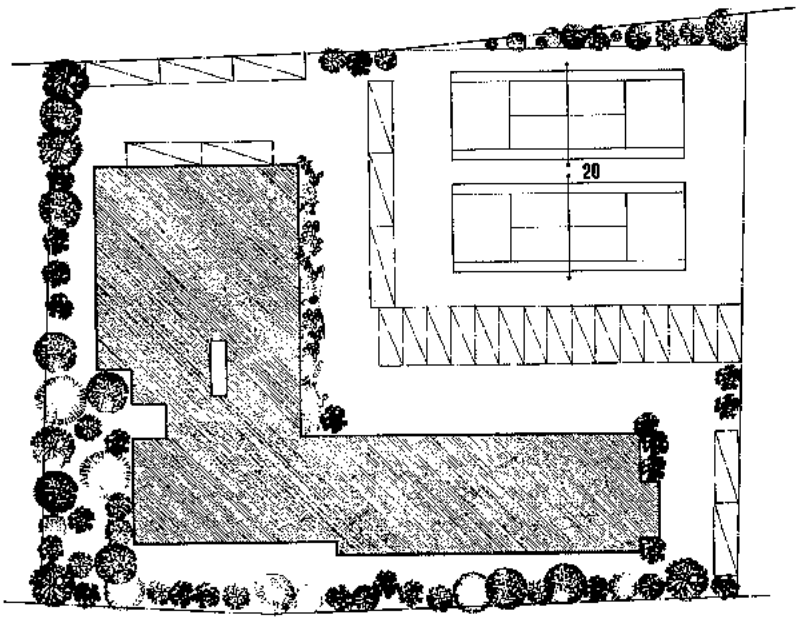
1層 1,091m²　3層 645m²　5層 645m²
2層 1,087m²　4層 645m²

설계개요：

本 建物은 行員의 研修 및 서울地区의 独身者를 위한 生活舘으로 充分한 厚生施設은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基本要件은 그 나름대로 충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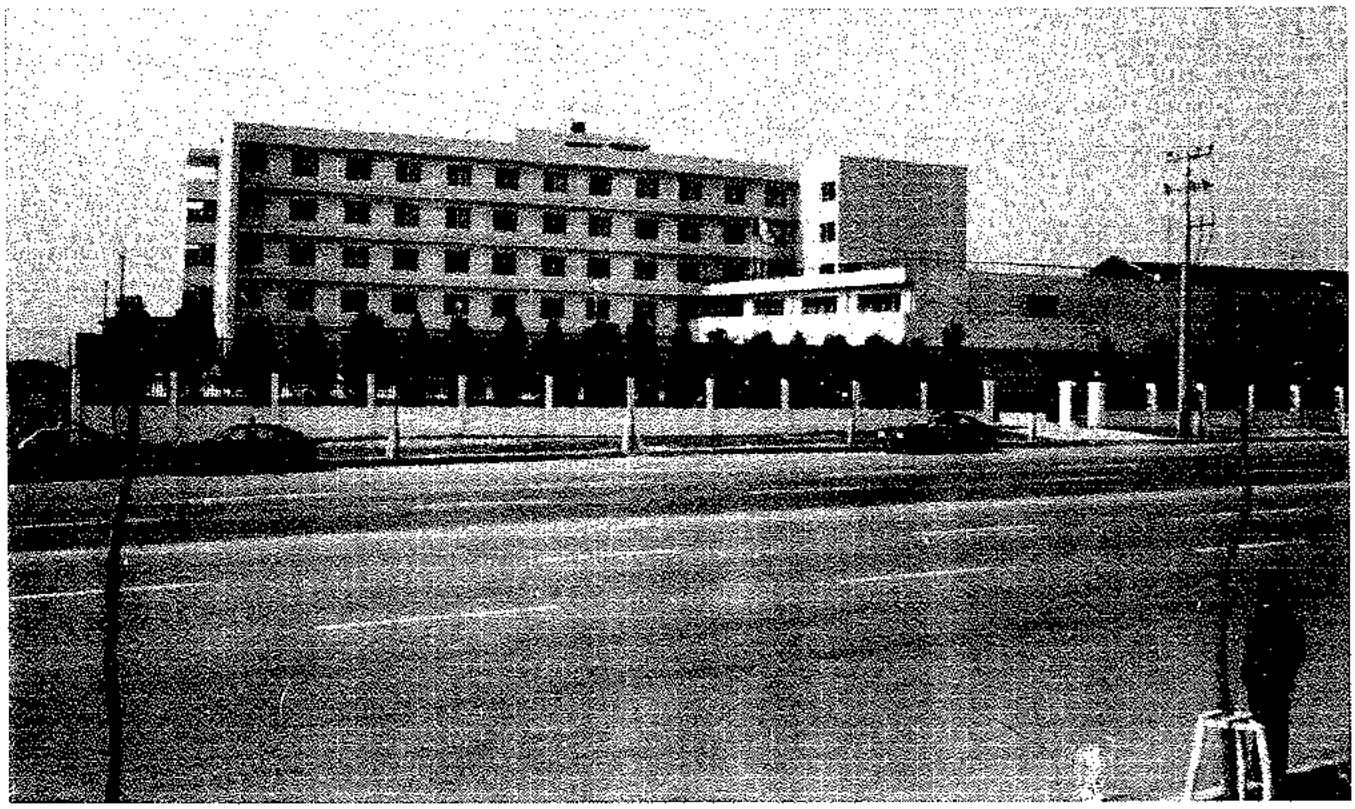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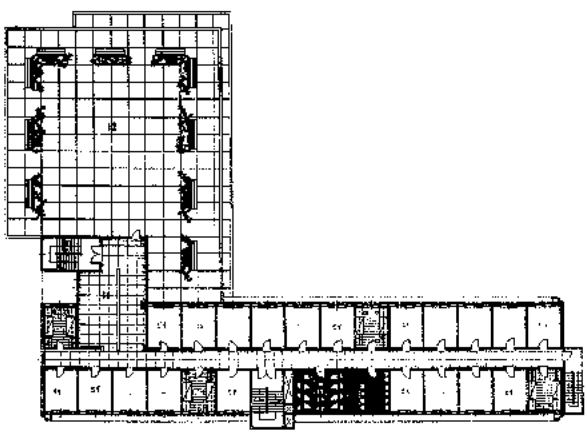


① 식당
② 주방
③ 면회실
④ 관리사무실
⑤ 교재창고
⑥ 교수실
⑦ 응접실
⑧ 상의실
⑨ 연수생합숙소
⑩ 침실
⑪ 휴게실
⑫ 루프테라스
⑬ 오락실
⑭ 세탁실
⑮ 기실·부엌
⑯ 목욕탕
⑰ 창고
⑱ 기계실
⑲ 주차실
⑳ 테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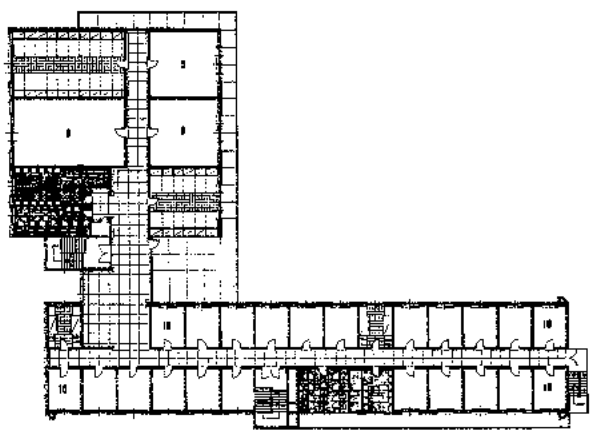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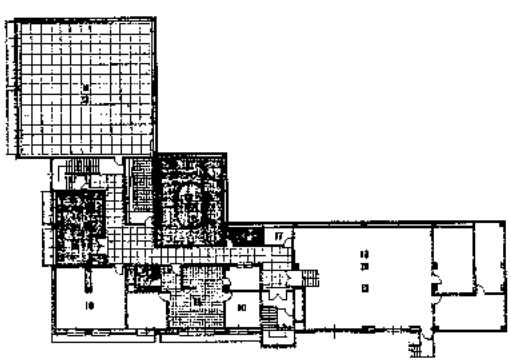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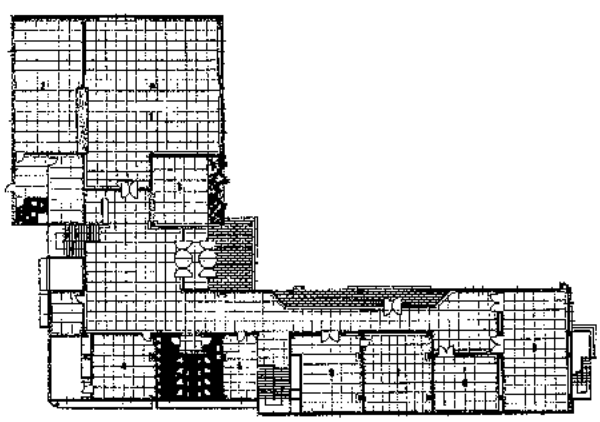


3~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대각회 보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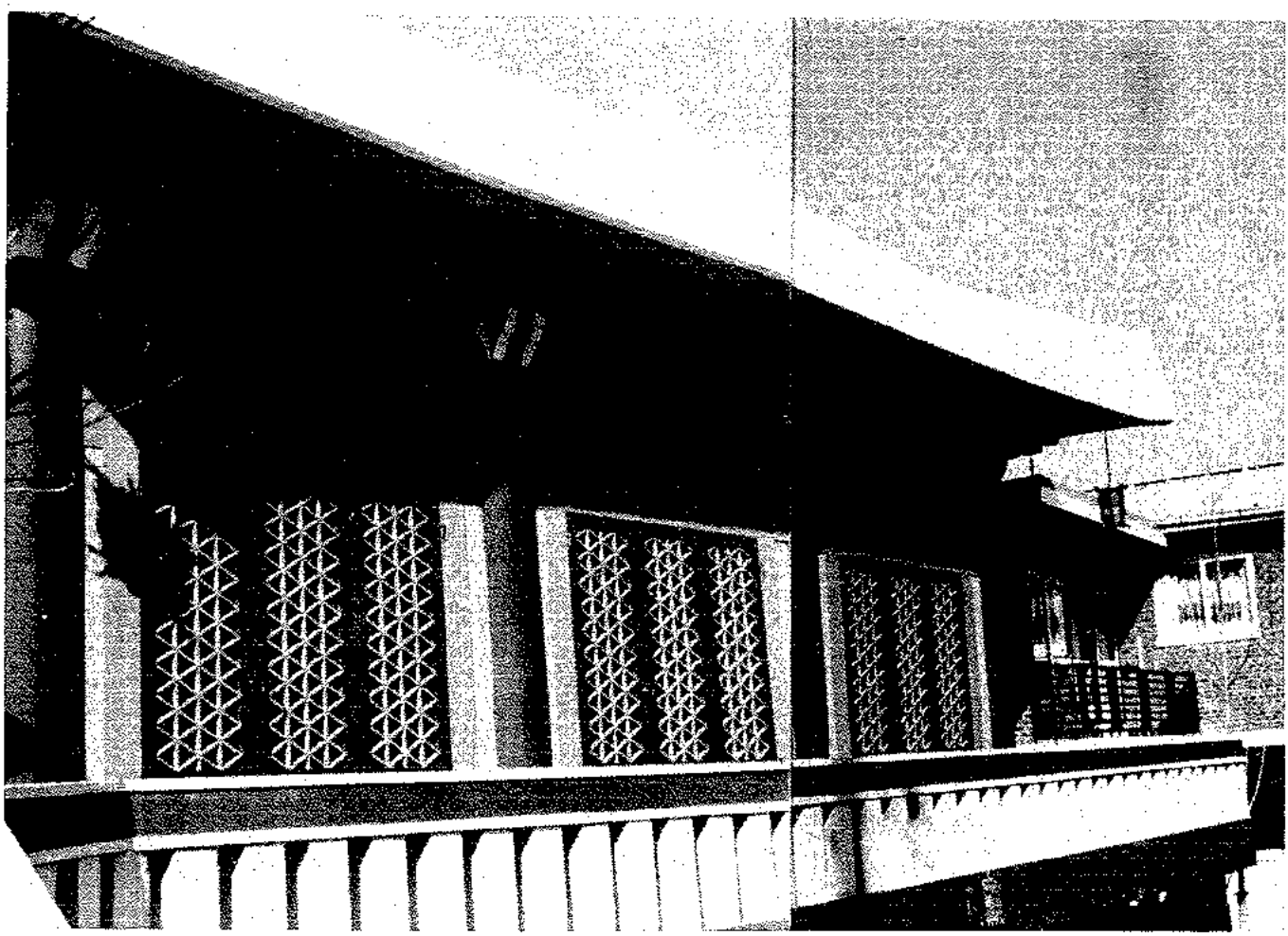
洪 哲 洙 韓国文化建築

소 재 : 서울 정능
면 적 : 60평
구 조 : 철근콩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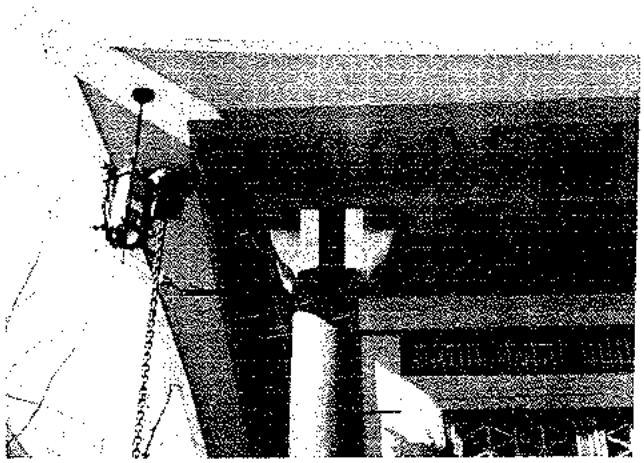
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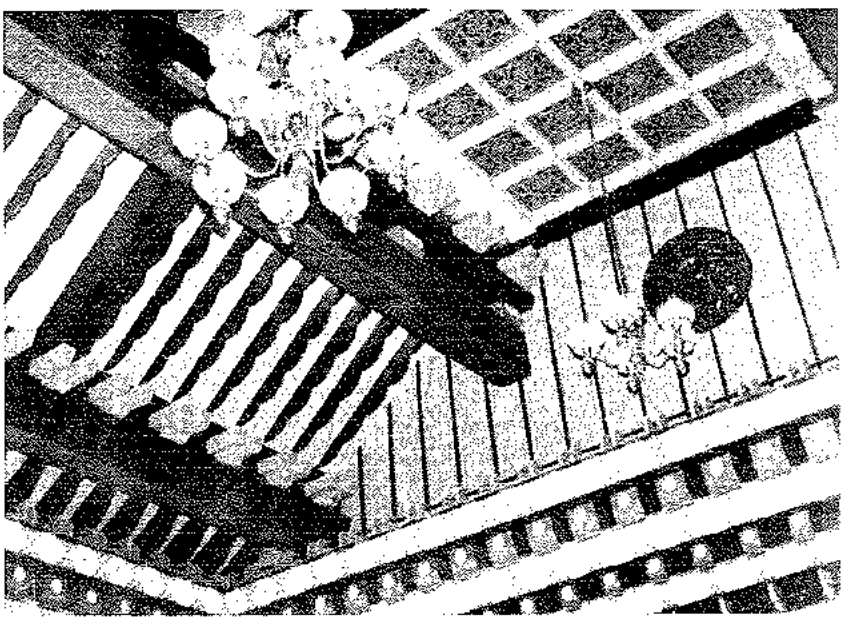
사찰 설계를 다루게 됨에 현대건축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무작정 옛 목조 건축만을 이식 답습 할수는 없다고 본다.

금번 본 법당설계는 규모는 작으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우리 조상의 얼을 살리면서 현대 건축 감각에 맞도록 시도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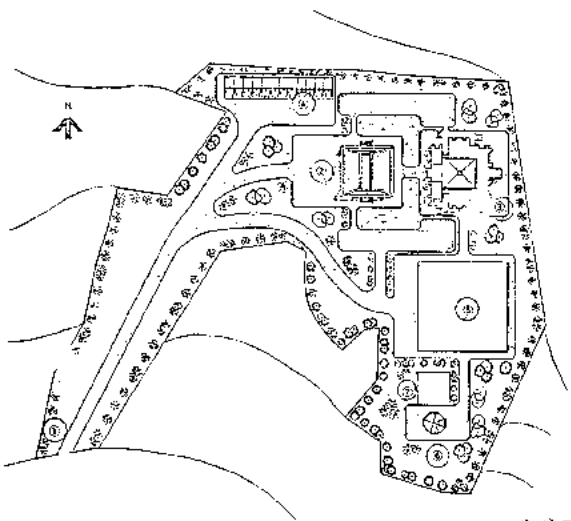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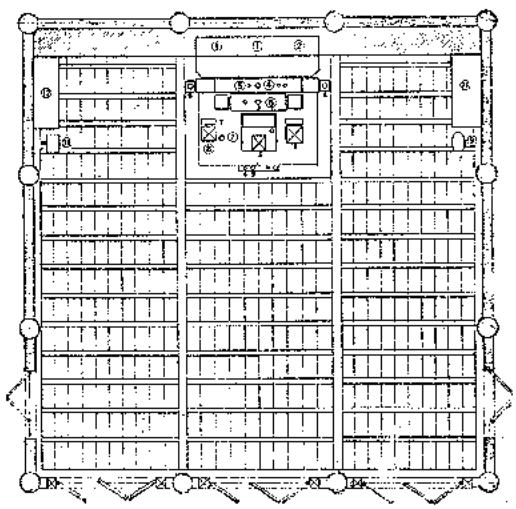


1. 시찰 진입로
2. 법당
3. 묘사체
4. 주차장
5. 금당
6. 휴게실
7. 연못

1. 釋迦生尼佛
2. 妙　　塔
3. 多宝如来
4. 引　　燈
5. 香　　爐
6. 숫　　대
7. 坐　　鍾
8. 방　석
9. 短
10. 境床床
11. 爐　壇
12. 副佛壇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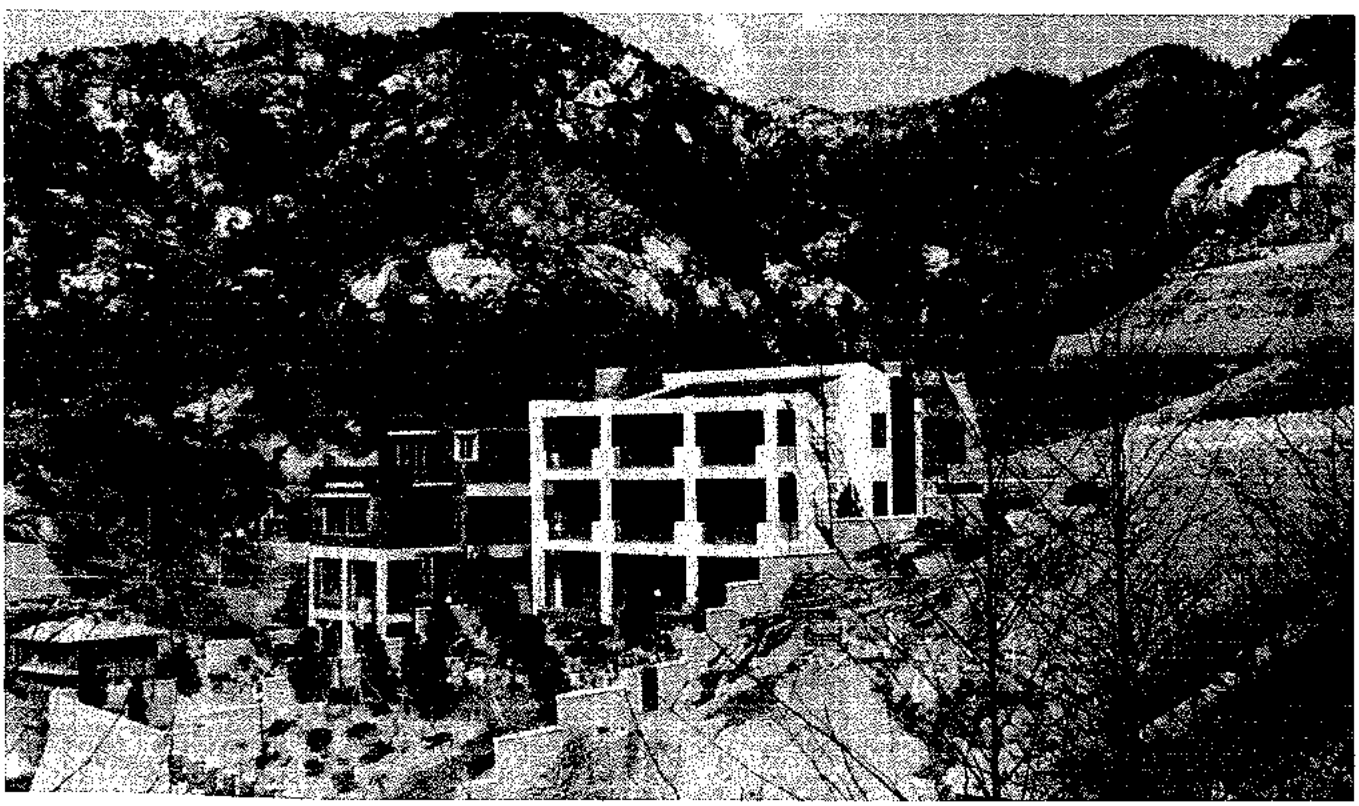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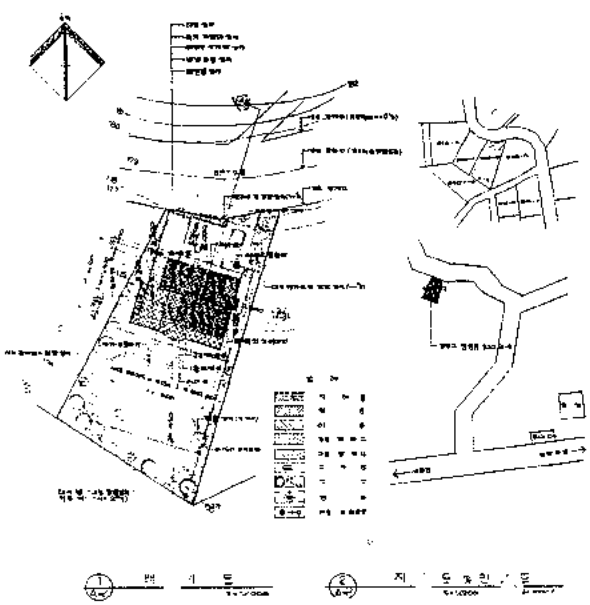
평면도

朴 商 浩 石林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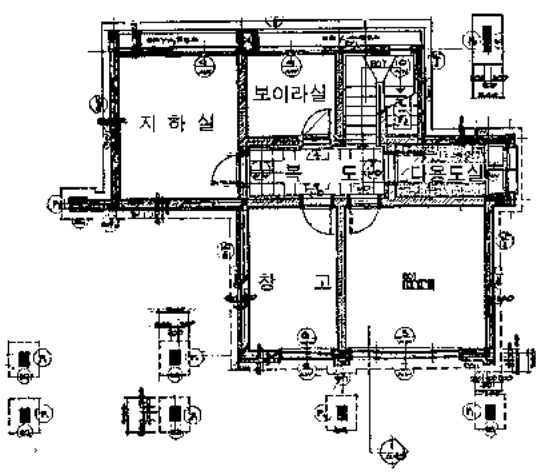
건 물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대 지 면 적 : 605m²
건축연면적 : 지층 7m²
1 층 72m²
2 층 59m²

계 요 : 자연 환경이 비교적 좋은 평창동 주택단에 산수 경을 배경으로 한 경사지로서, 남측면의 조망이 좋아 각층에 옥외 테라스를 두어 차경(借景)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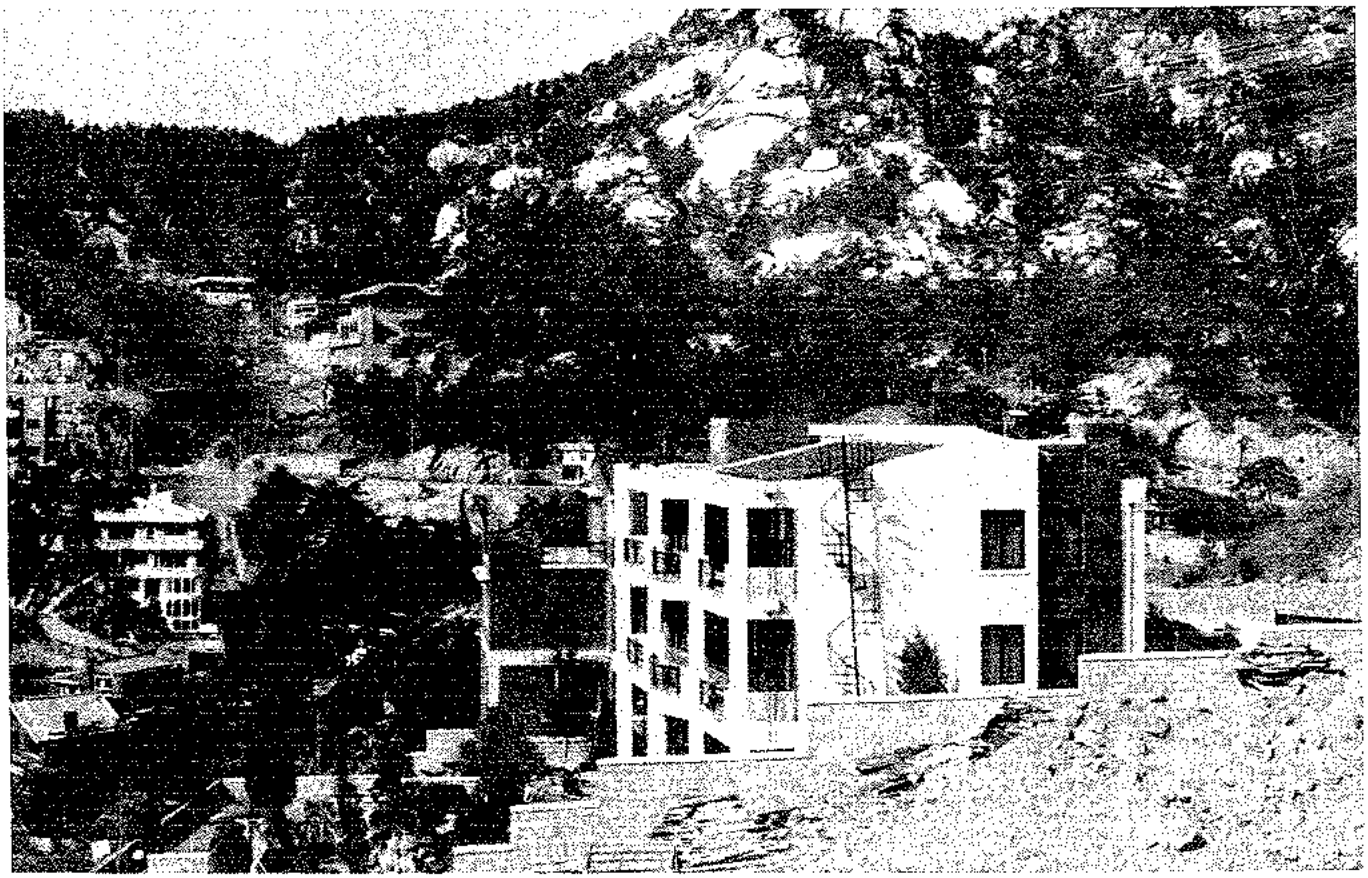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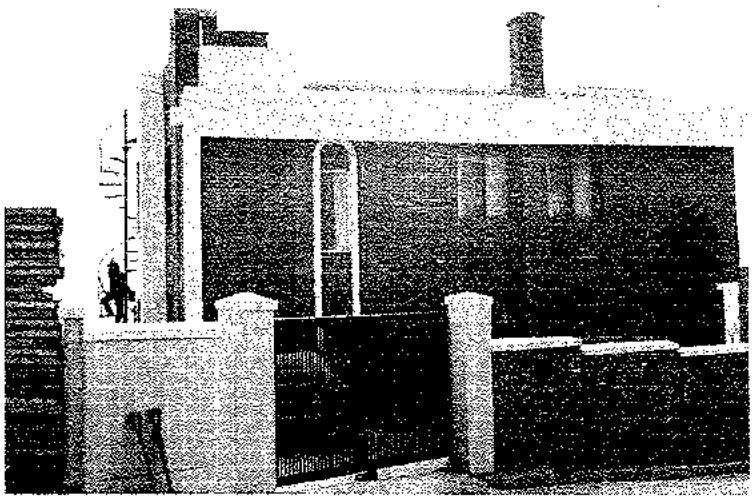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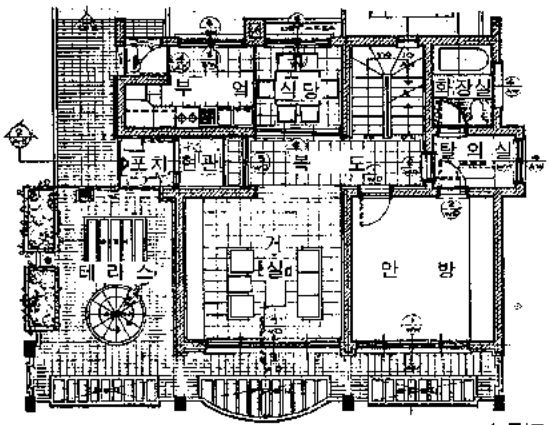


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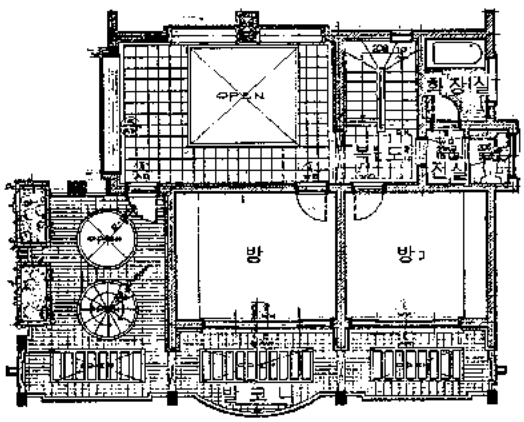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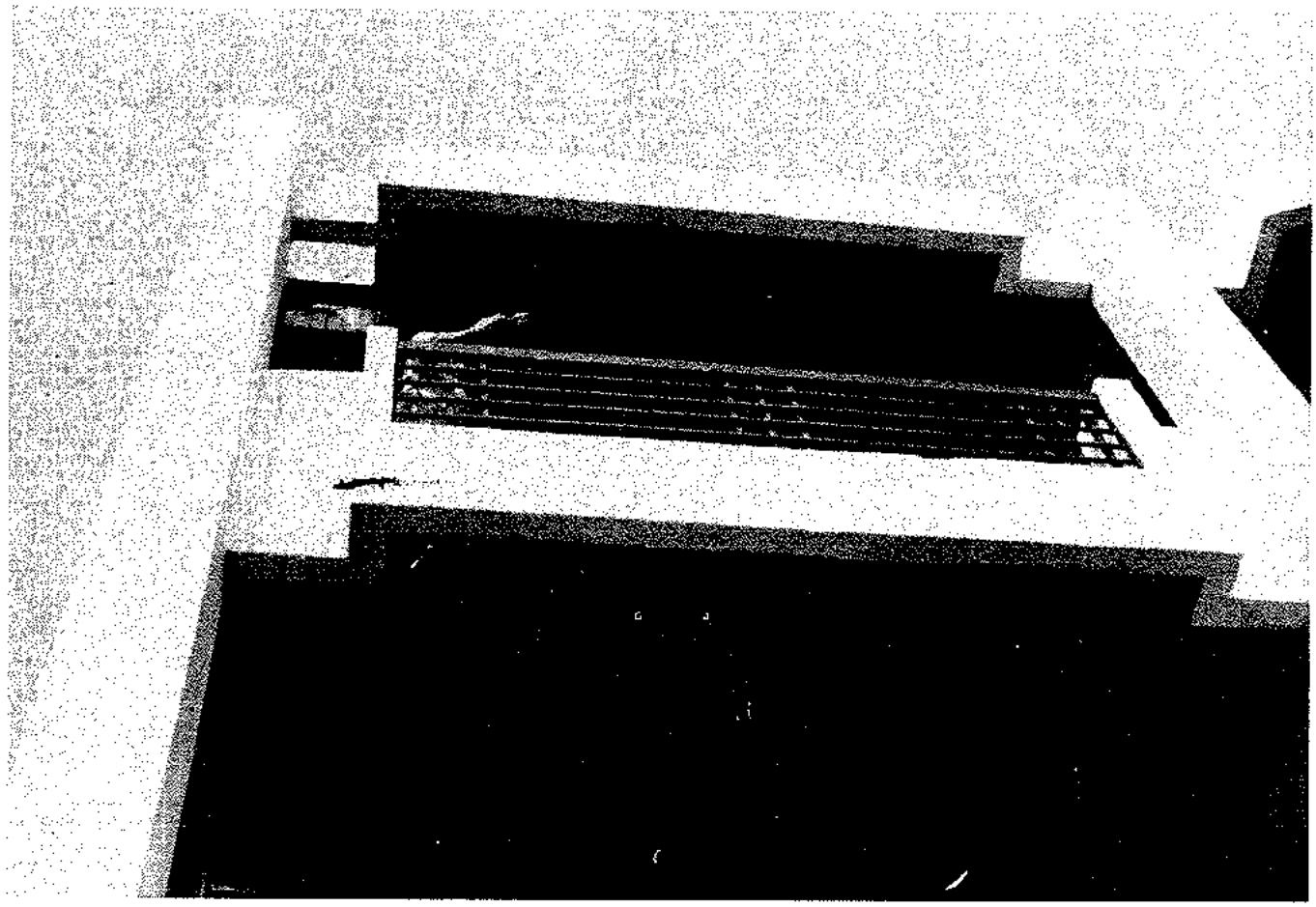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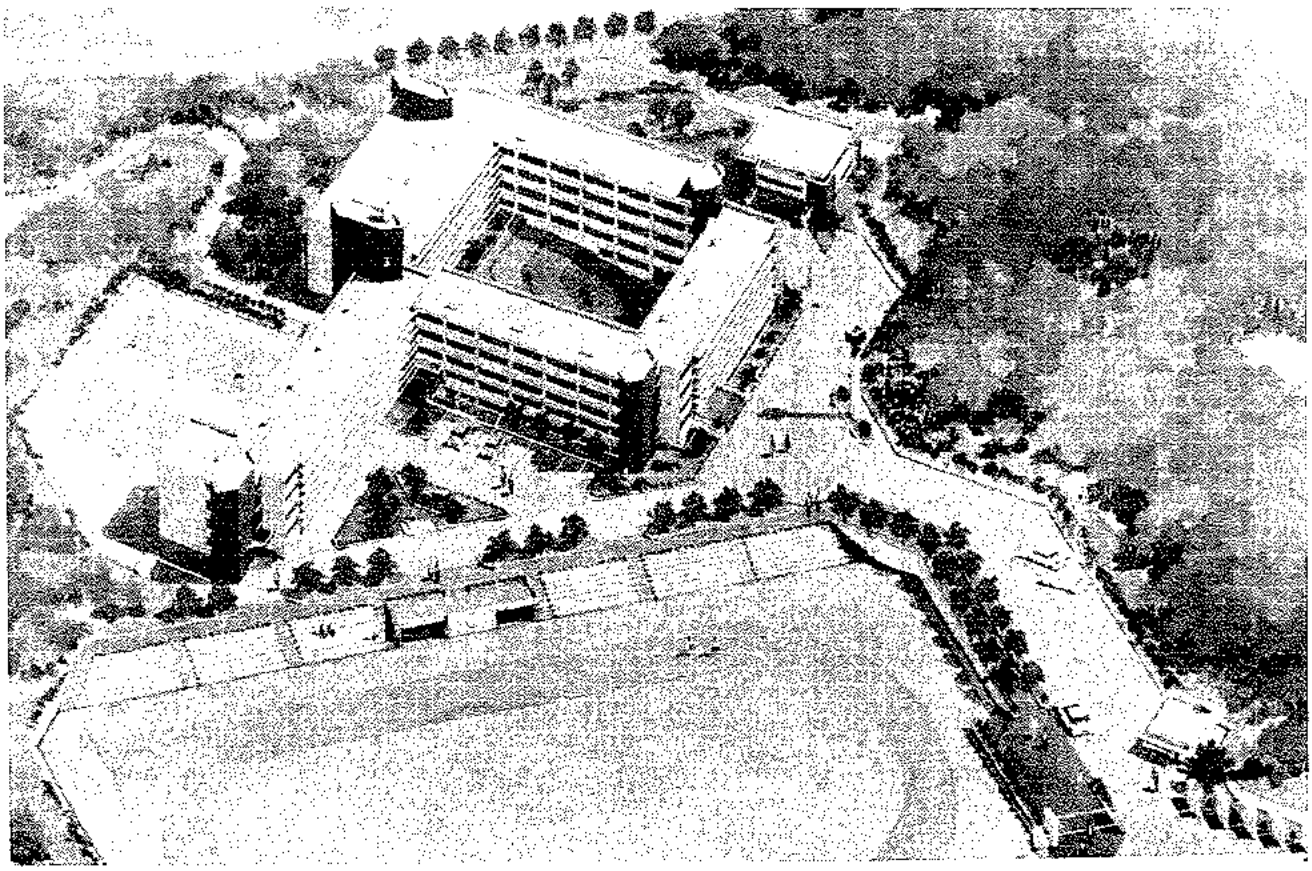
측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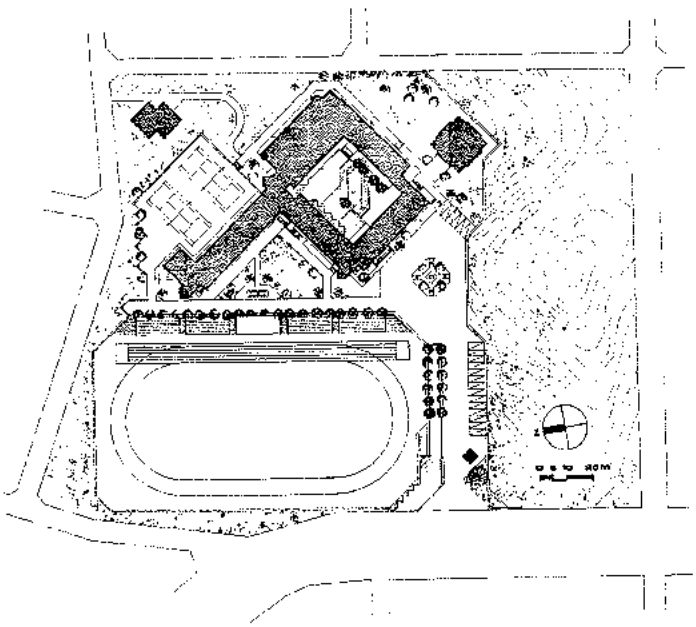
천호상업고등학교

黃 一 仁 (종합환경연구소 一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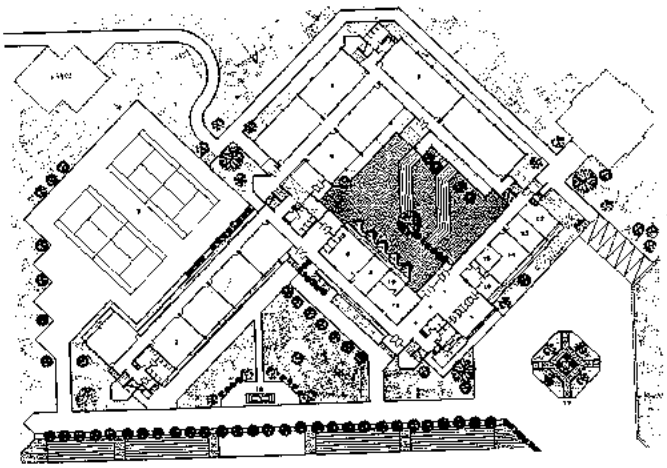
건물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축면적 : 1,350m²
연 면 적 : 6,020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P. C조립공법(지상)



① 생활관 ⑦ 다목적교실 ⑬ 교수실
② 외부교실 ⑧ 교장실 ⑭ 양호실
③ 테니스코트 ⑨ 재단사무실 ⑮ 방송실
④ 타자실 ⑩ 창고 ⑯ 숙직실
⑤ 상업계산실 ⑪ 서무실 ⑰ 기념탑
⑥ 과학실 ⑫ 상담실 ⑱ 국기게양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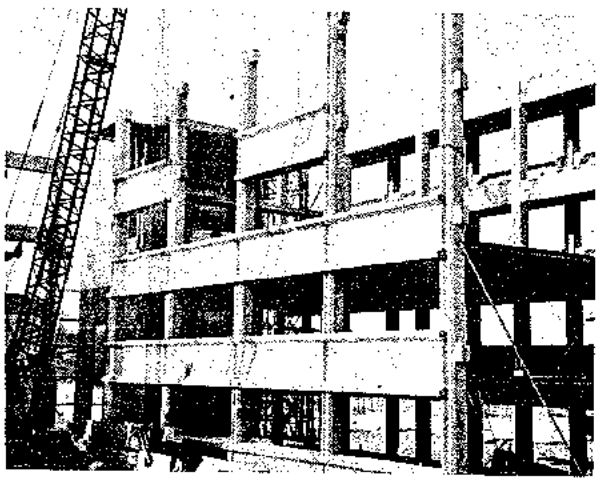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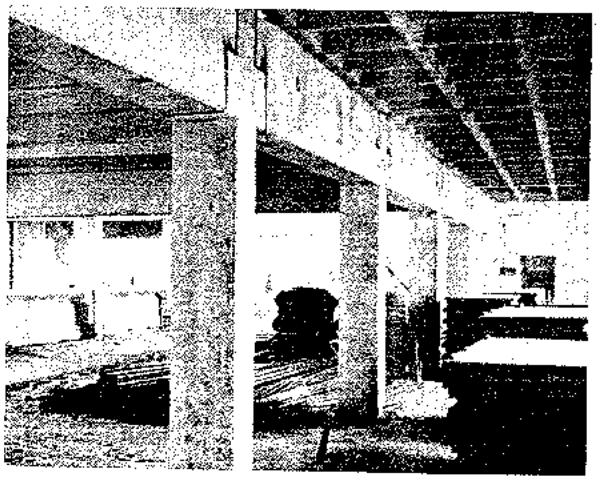
←설계개요 :

본 학교는 계단실에 의한 5개의 코어와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4.5m모듈의 교실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조에 의해 정해지는 남북방향과 지형에 의해 생기는 이와 45°로 엇갈리는 두 개의 축으로 site가 구성되어 있다. 교실 동들은 서로 둘러 싸여진 옥외 공간이 형성되도록 배열되고 특히 주 출입구를 통과하여 바로 연결되는 내정은 커다란 Open space로써 이 건물의 주 공간이 되어 각 교실로의 출입이 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고 학생들의 만남이 여기서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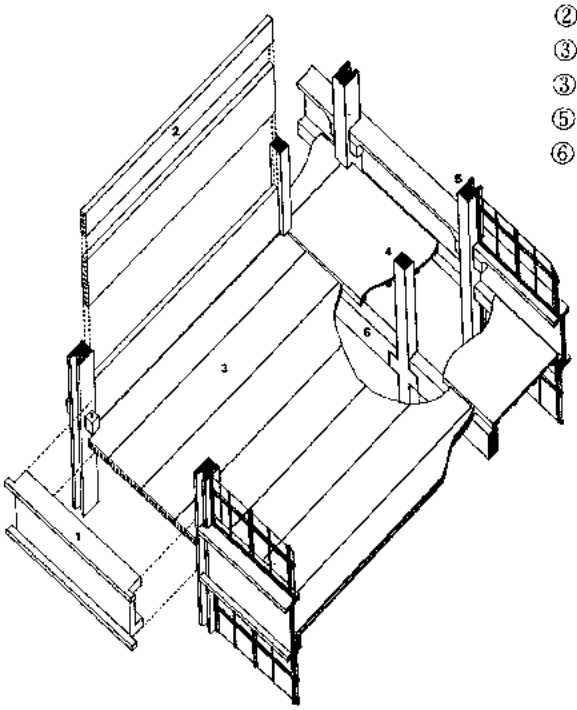
학교는 모듈 코오디네이션이 용이하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각 부분들의 구성 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조립공법의 적용에 가장 적합한 건물의 한 종류이다.

이 학교는 지하 부분 및 코어(계단실)을 제외한 모든 부재를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조립토록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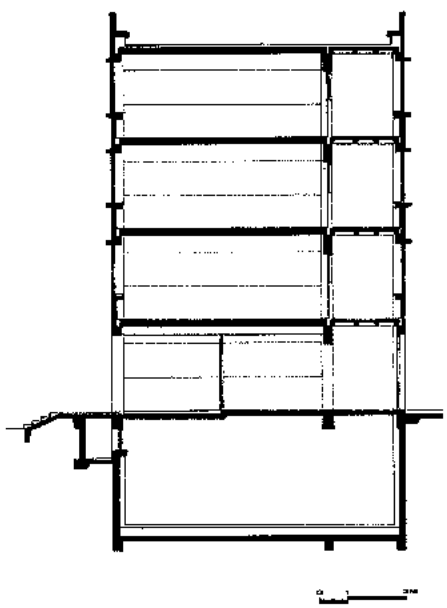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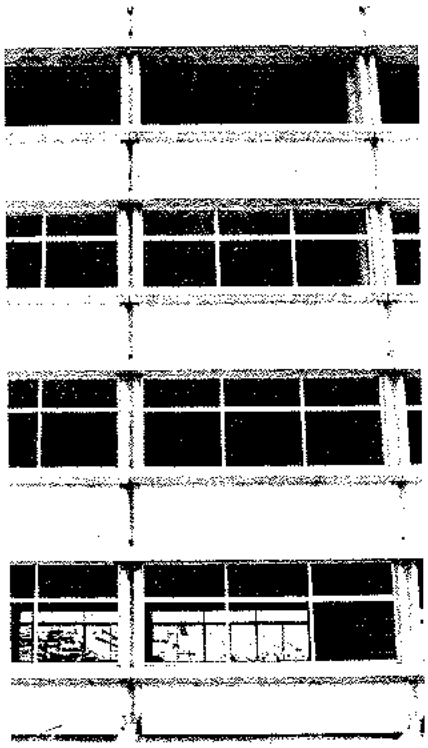
기둥보 · 스라브판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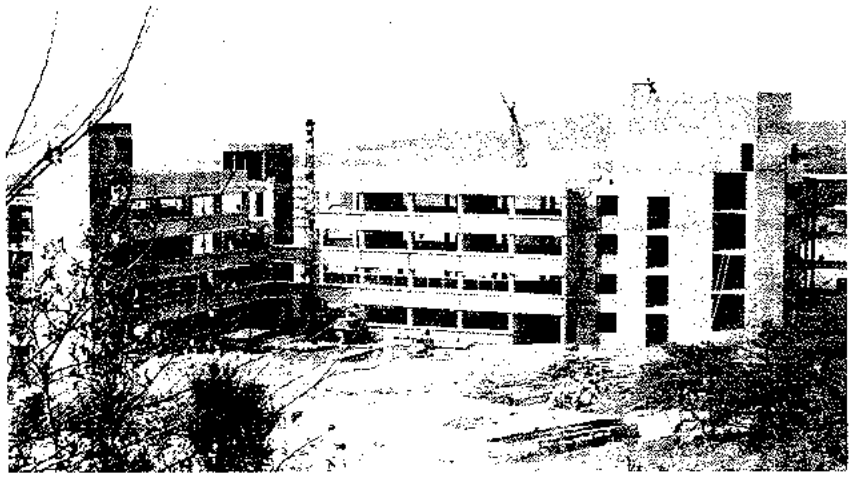
P. C조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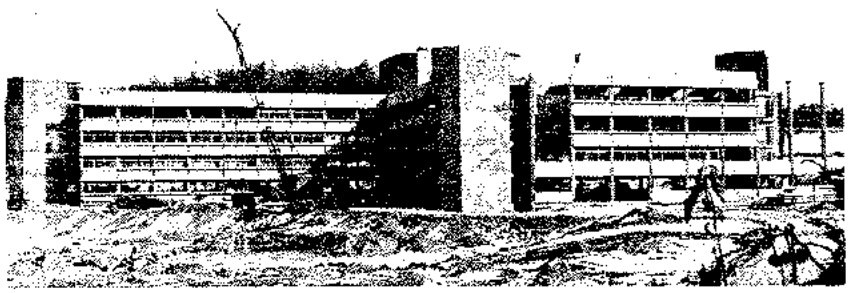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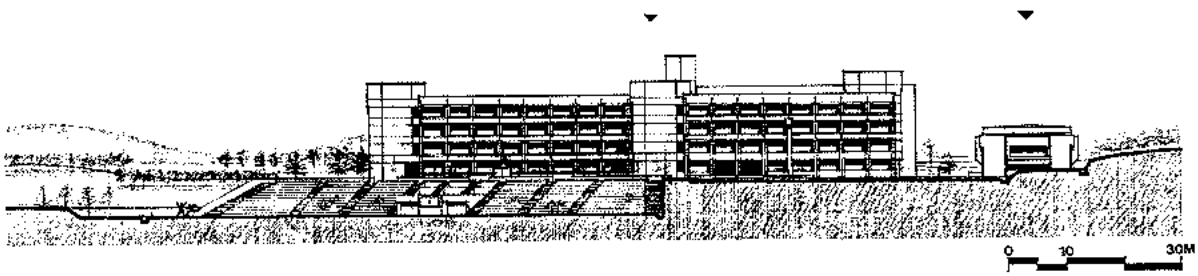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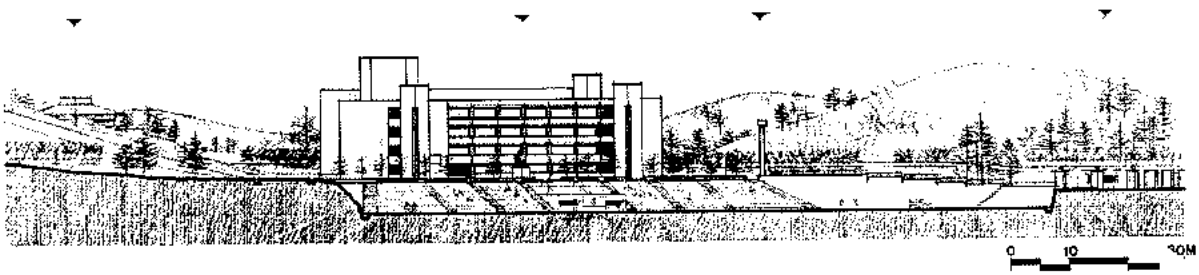
外部스판드렐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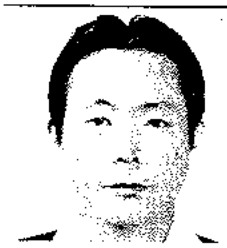


각 부제가 조립되는 공정을 볼수 있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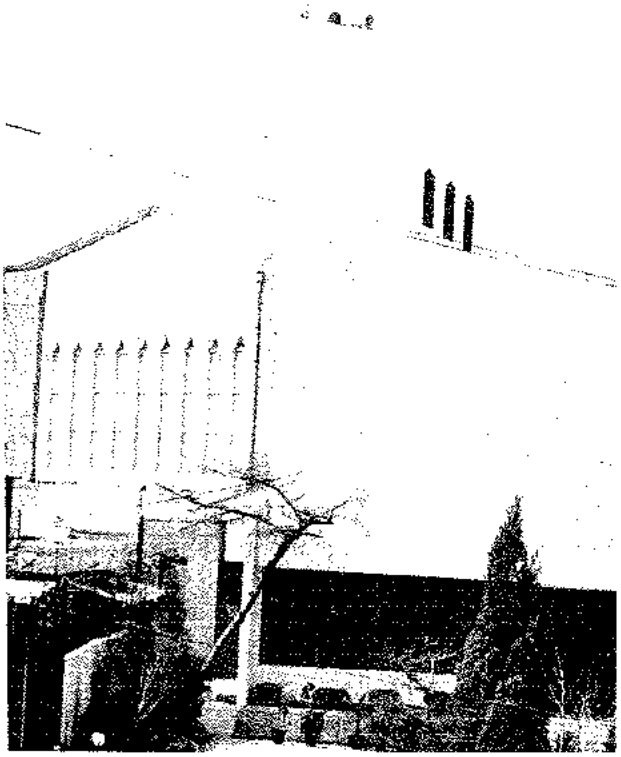
李 永 熙 건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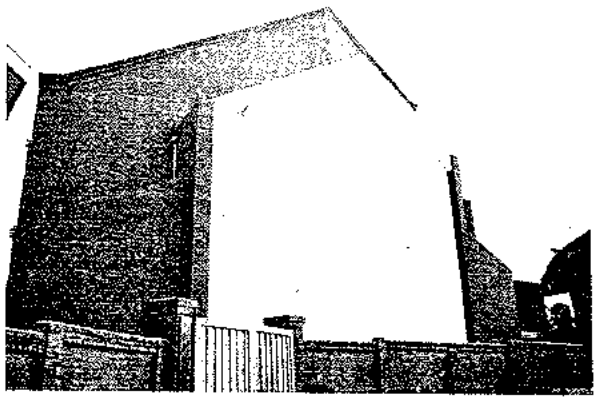
상 도 교 회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지면적 : 2,085m²
건축면적 : 827m²
구 조 : 철근콘크리 - 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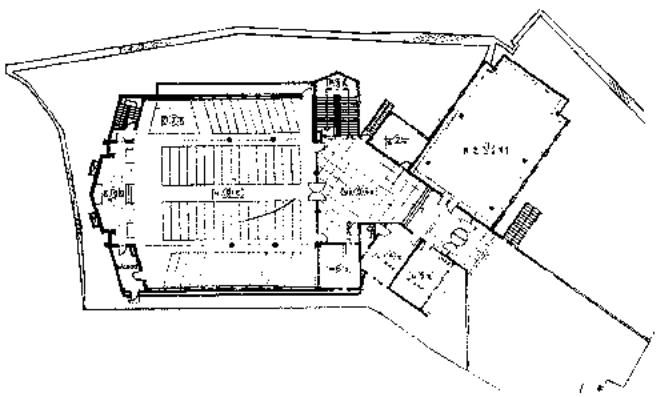
주택가 깊숙히 좁은 대지에 기존건물 일부를 활용해야 된다는 교외측의 요구조건 때문에 가장 고심이 많았다.

교회 대문을 들어서면서 massive 한 종탑의 벽면과 무언의 대화를 하며 현관, 그리고 nartex, nave 로의 자연스런 흐름에 주안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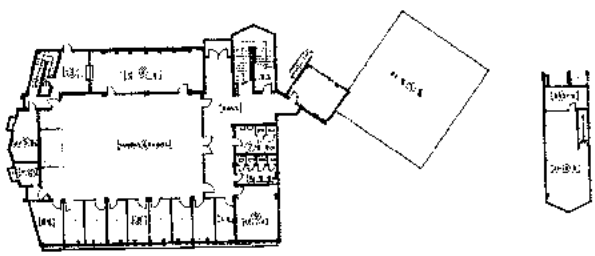


① 기존건물부분
② 당회실
③ 계단실
④ 목사실
⑤ 사무실
⑥ 자모실
⑦ CHOIR
⑧ NAVE
⑨ NARTHEX
⑩ AL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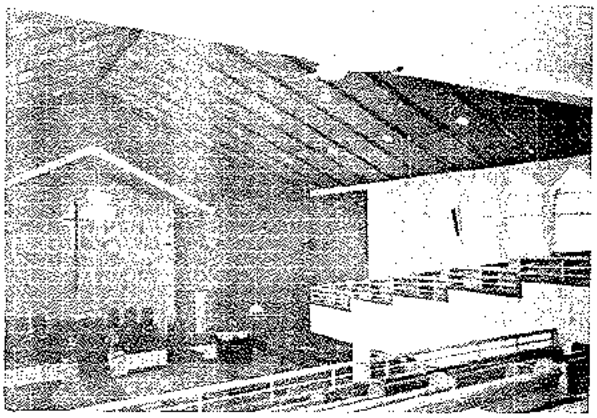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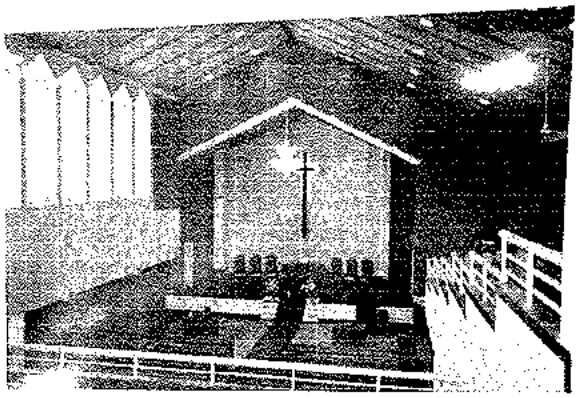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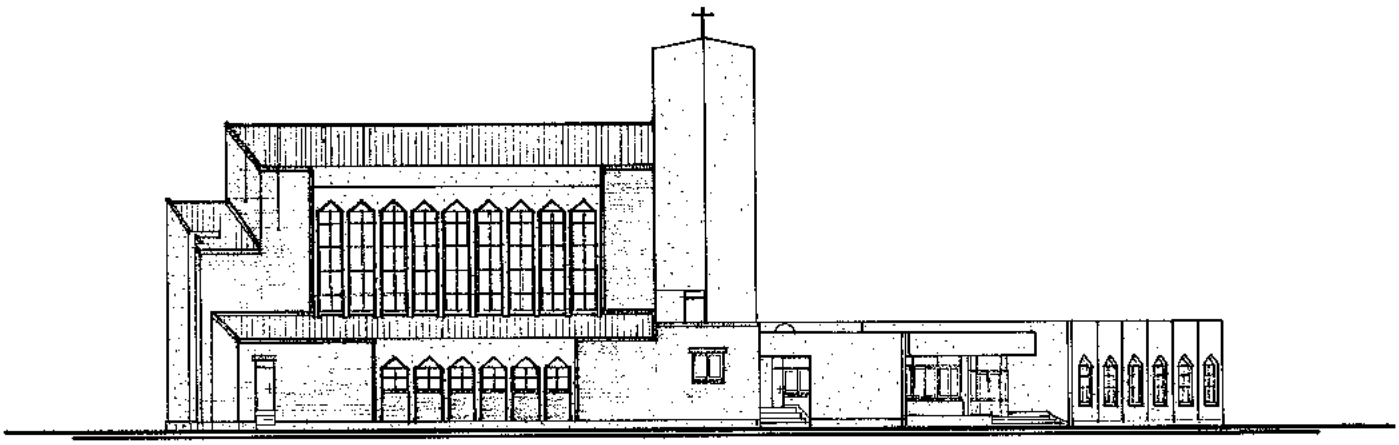
① 기존건물
② 치교실
③ 주방
④ 일요교실
⑤ 여전도사무실
⑥ 사무실
⑦ 화장실
⑧ 교실
⑨ 사무실
⑩ 물탱크실
⑪ 사무실



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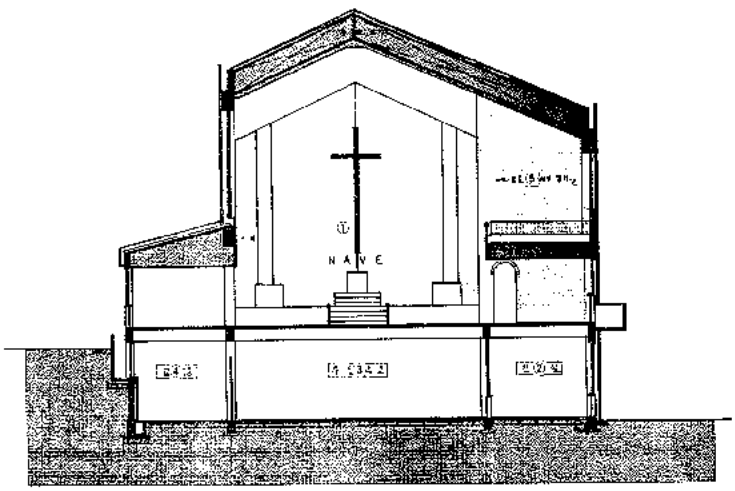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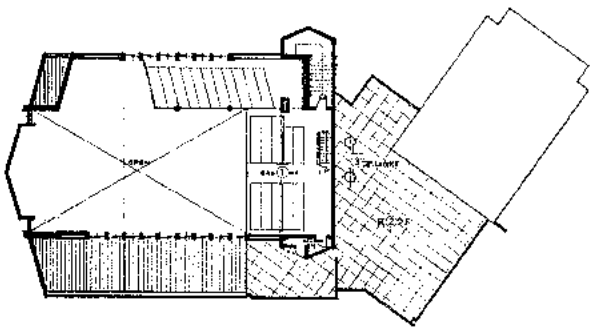
입면도

① NAVE ④ 교실
② 친교실 ⑤ 붉은벽돌
③ 주일학교 치장 쌓기

① 발코니
② 지부
③ 천정조명



단면도



2층평면도

隨 想

速成 sketch에 制動을 걸며

安 日 成

건축 경기불황속에서도 난 요즘 무척이나 바쁘다. 모든 상황이 끈끈한 이때 나에게만 일감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즘에 난 건축사 아닌 건축주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벌써부터 벼르던 나의 조그만 作業室 구상을 한다고 밤낮없이 제도판위에 그렸다 지웠다 또 그리고 지우고, 잠을자다가도 머리맡 메모지에 끌적거리기가 한두번이아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쉬운 사무소계획이 그렇게도 까다롭고 힘들 줄 미처 몰랐다. 현재의 예산 장차 증축후의부분용도변경, 일차공사 때의 design, 장차 완공후의 완벽한 기능과 멋 이 두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란 무척 어렵다는 걸 절실히 맛보는 중이다. 이것은 건축사인 내가 건축주가 되었을 때 피부로 느끼는 苦心이리라. 과연, 나 아닌 건축주가 집을 계획 할 때의 무한한 꿈과 건축작품에 대한 욕망이 어떠할까? 요즘 새삼 생각 해 본다. 이제껏 건축주의 요구에 적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동시 나의 習作 대상이 되어왔지 않았는가? 과연 나의 건물이라면 그렇게도 대담하게 구상하고 그려낼 수 있었을까?

memo紙나 못쓰게되버린 청사진 뒷면에 볼펜이나 4B 연필로 그나름대로의 着想과 구상에 자기만족을 그려대지 않았던가? 그때는 그나름대로 자기만족에, 건축에無知한 건축주들을 설득 내지 合理性을 들어 멋진 理論으로 건축주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工事도중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멋진 변명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現場에서 즉석 설계변경 하지 않았는가? 물론 좋은작품, 나름대로의 만족한 작품임에는 자신했겠으나 나에겐 수 없이 변형 변화시키며, 그려대는 그림쟁이가 돈 안들이고 기분대로 생산해내는 건축사의 특권에 얼마나 혼자 만족 하였던가?

나에게는 모두가 특색있는 작품(그림)이었기에 모두가 다 그릴때의 즐거움의 소산이었으니까.

경비 안들이고 또 적지않은 보수까지 받아가며 한장의 종이에 소중한 落書를 해주곤 만족을 포만(?)하였던나, 요즘 나는 건축사 아닌 건축주 입장이 되어있다. 틈만 있으면 車속에서, 또 남들의 対話 속에서도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수 많은 과제를….

즉 조그만 나의 사무실(아뜨리에)구상에 여념이 없는것이다.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그렇게도 수월하게 계획 결정되던것이 이토록 어렵고 구상, 계획, 수정에 장시간을 요하는 건지를, 비교 해 볼때 건축주의 모르는 안타까움이 오죽 했을까? 생각하니 공연히 미안한 생각이 들곤한다. 建築主인 나와 他人인 건축주, 전연 다를 바 없건만 자신의 건축물 계획엔 어찌 이다지 장시일 確定지어지는 일이 없고 어려운지 他人인 건축주에게는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論理 정연히 이야기되고 설득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환자의 내장을 멋지게 수술 해내던 의사가 자신 아들의 맹장수술엔 자신을 못 가지는 것 같아서일까? 의뢰받은 건축물이 그렇게도 기분대로 새롭고 대담하게 그려지며, 만족했던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名作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

얼마전 학교 교수님의 소개로 B大 K교수 부부를 사무실에서 맞았을 때의 일이었다. 근 2年동안 구상해온 주택 평면 여러장과 각종 scrap을 해 온 건축자료들을 보고, 우선 감동하고 그들의 소망에 머리가 숙여졌다.

35평 정도의 주택을 구상하는데 근 2년여이란 장시간, 이들 부부는 온갖 건축잡지며 각종 자료를 모아 밤마다 휴일마다 건축공사장에 관심을 두며 계획 구상했다는 자료를 정리 해 보곤 너무나 어이가 없음을 보았다. 그들에게

실망이 가지않도록 쉽게 설명 해대며 조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sketch해서 合理性을 설명해 대었더니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허탈해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우린 헛그림만 그렸구려!"

담배를 깊숙히 빨아대는 그를 대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헛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며 새롭고 아름다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그동안 쌓은 것이라며 위로를 한 적이 있었다.

장시간 어렵게 구상하고 다듬어온 그들 도면위에 새카맣게 그려댄 sketch가 과연 어느정도 그들에게 만족 했을까 또 좋은 작품이었을까?

그들은 모른다. 수 없이 오랫동안의 작업과 계획을 단칼에 난도질하는 소위 전문가의 口辯과 학설에 긍정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집이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계획되고 완성될까? 나의 속성 sketch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어본다.

외뢰받은 건축계획은 모두가 나의집 설계하는 자세로作業에 임 해야 겠다고 다짐하며.

東業設計社 代表

총회에 다녀와서

梁 元 永

어느날의 일기
1979년 ○월 ○일
모처럼 모이는 정기 총회의 날이다. 우리 협회의 정기 총회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참석 하게 된다.

서울시 지부 회원의 1/3이상의 인원이 모여 입추의 여지가 없다. 선배님들, 후배들, 그리고 스승님들, 반갑고 다정한 동료들이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계획하고 창작한다고 생각 하니 한결 우러러 보이고 대견스럽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 참으로 국가 재건에 공헌한 인물들이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재들이다.

우리나라 건설의 역군들이요. 창조자들이기때문이다.외국인들이 혹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을 다녀가며 몰라보게 발전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다면 우선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 물론 맑은 하늘, 아름다운 산천, 잘 다듬어 지고 있는 도로들도 한 몫 하겠지만, 몰라보게 발전하는 도시형성, 새로운 건축물들이 크게 작용 하지 않나 생각된다. 6.25사변으로 폐허화 된 도시들을 불과 20여 성상에 오늘과 같은 도시로 건설한 공과는 그 질적인 문제에 앞서 결코 과소 평가 할 수 없는 공로이다.

건축 공학의 미 개발상태인 우리나라 실정으로, 국가 경제가 전무하고 구호물자와 구호양곡으로 연명하던 그시절에 어찌 건축물의 질을 따질 것인가. 우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부록조 국민 주택 이라도 감지 덕지 하였던 것이다.

이제 협회 창설 열네돌을 맞아 그 나이 아직 어리어 성숙한 멋이 없고 갈팡 질팡 하고 있지만 조만간 어른다운 몸매와 지성을 갖출 것이다.

국민 의례에 이어 과년도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이 통과 되었다. 임원 개선이 있었다 .
몇 몇 회원이 너무 빈번한 발언으로 마치 전체 회의가 몇분들의 주도아래 유도 되는 듯한 감이 있었으나 엔지니어는 정치 학도나 법학도 같이 달변일 수 없고 또 회의진행에 숙달되어 있지도 않음을 생각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루한 감이 팽배해 질 무렵 복지회 총회가 속개 되었다. 어쩐 일인지 과년도 결산보고와 새해 예산안이 일사 처리로 통과 되었다. 회원들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 적당히 넘기고 있는 듯 하다.참으로 순박하고 착한 회원들이라 생각 되었다. 회의를주관하는 임원 진이나 회원들이나 한결 같이 까다롭지 않기때문이다. 몇 억원의 예산안과 결산안이 하등 이의가 없이 통과 된 것이다.
어느 점잖은 임팀의 정기 총회와 비교할 것인가. 고함과 욕설, 멱살과 주먹다짐 …그것은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은 될 수 없다.

아직 협회가 14살 밖에 안된 국민학교 5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는 건축 창작 풍토 개선과 부당히 침해 당하고 있는 권익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금년에도 서울 시내 800여 회원중 과반수 회원이 변명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영업정지 혹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감리 문제로 전체 회원이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다. 설계비 덤핑 문제로 회원들간의 불화가 만연되고 있다. 용역 쟁탈전으로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 설계 심의 제도로 인하여 막대한 경비와 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1인당 설계 건수는 외국에 비하여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데 설계사무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발언하는 회원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직 자립하지 못한 소년의 입장이 아닐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의 협회가 성인으로서의 발돋음을 하여야겠다. 협회 설립 목적인 "회원들의 권익 문제"를 위하여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어야 겠다.

(梁元永建築硏究所)

建築文化財를 찾아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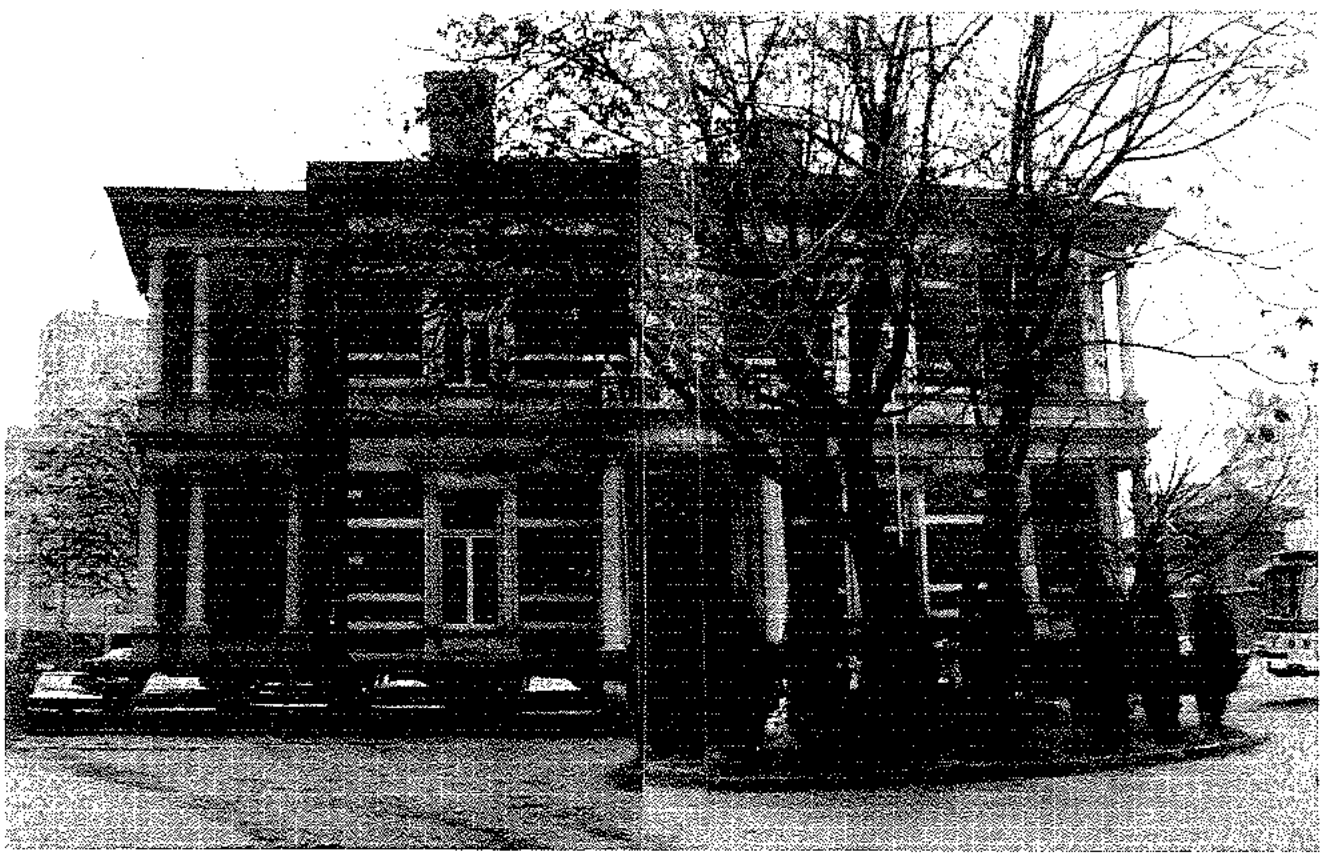
19세기에 지은 史蹟제254호 洋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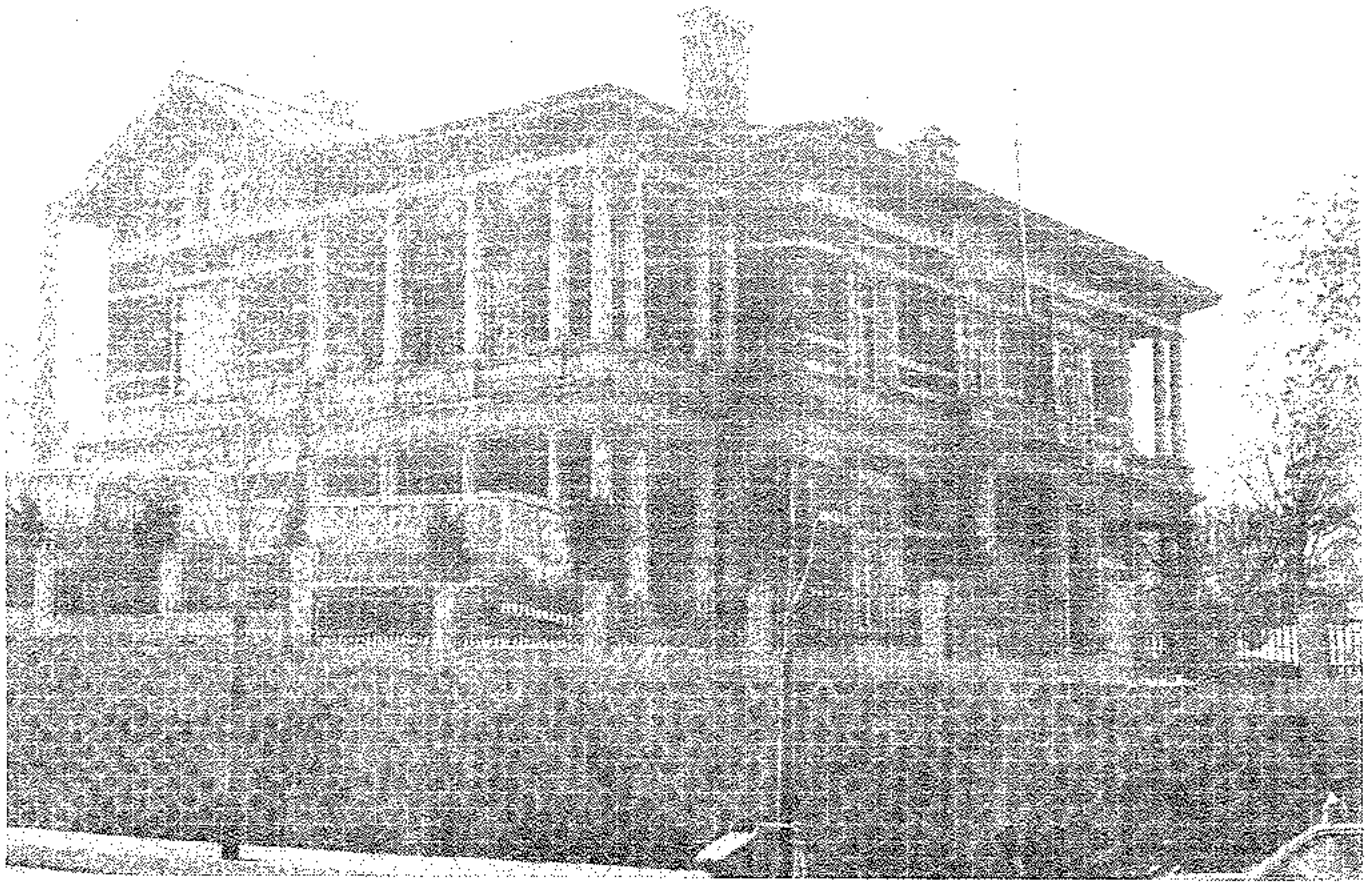
— 開発에 밀려 헐리게 되는 旧벨기에 領事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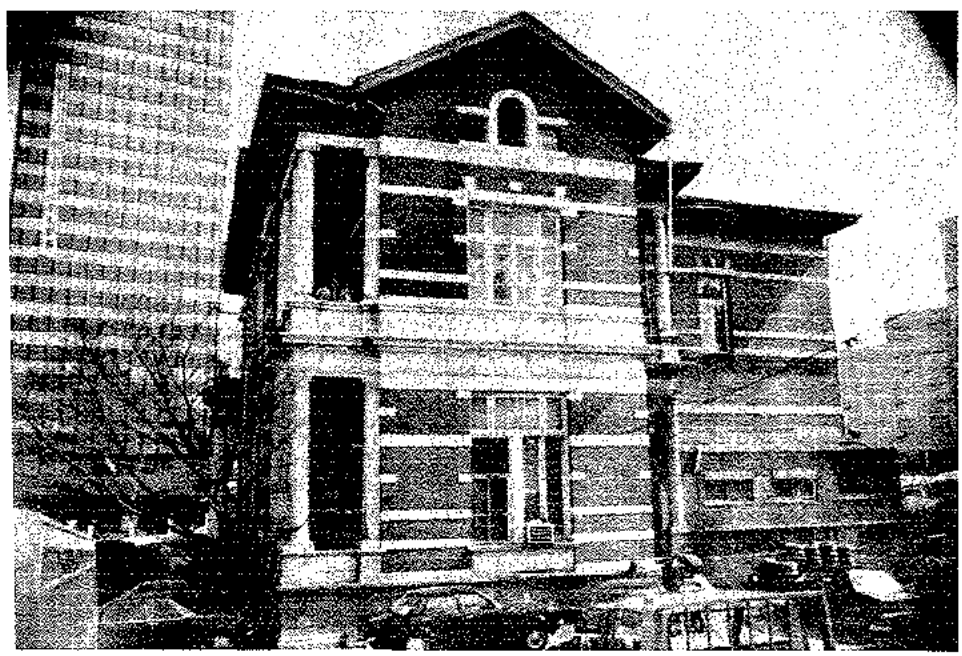
옛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었던 史蹟 제254호(서울·중구 회현동 72－5)洋舘이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사업에 밀려 헐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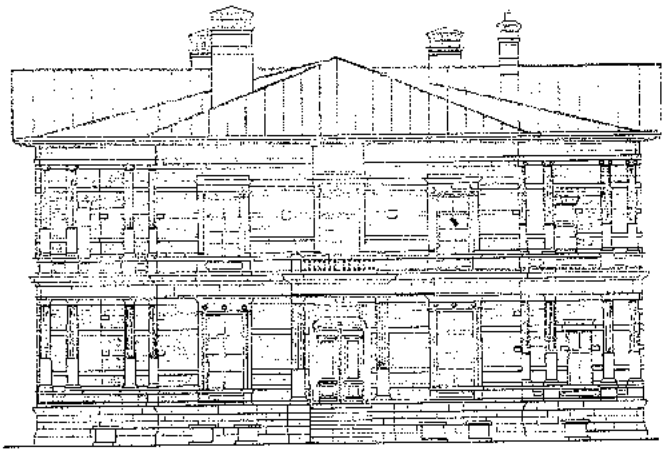
1900년대에 세워져 현재까지 남아 있는 七棟(●天主教聖堂(명동2가) ●貞洞教会(정동15－3) ●静観軒 (덕수궁) ●石造殿(덕수궁) ●薬峴聖堂(중림동149) ●龍山神学校 ●元暁路神学校(원효로4가－1)의 西洋式建物 가운데 그 하나인 이 洋舘은 地下 1층 地上 2층의 組積(벽돌)造로 延建坪 454坪의 고딕식 건축물로 日人 고다마(小玉)設計에 호꾸리꾸(北陸) 토목회사가 1903년에 시작하여 1905년에 준공한 후 곧바로 벨기에 영사관으로사용되었다.

그후 1919년 영사관이 충무로로 옮긴다음 요꼬하마(横濱) 생명보험회사 사옥으로 쓰여졌다가 이후 다시 해군성 무관부 관저로 이용하였고 광복후에는 국유 재산으로 귀속되어 해군 헌병대에서 사용하다가 1970년에 상업은행이 불하 받아 그 소유로 되어 있으나, 머지 않아 관악구 사당동 541번지에 옮겨져 2천여평대지에 원형대로 복원키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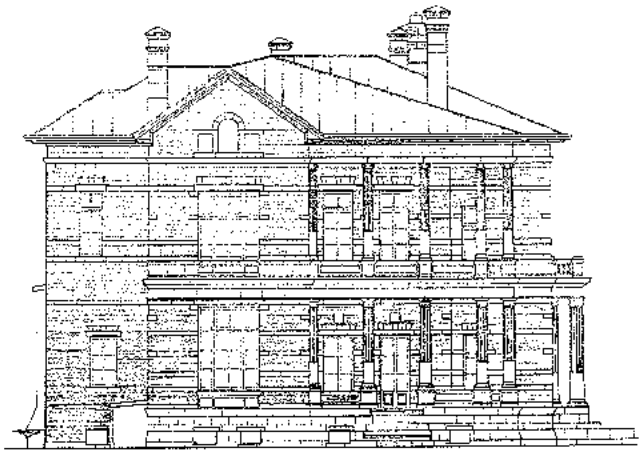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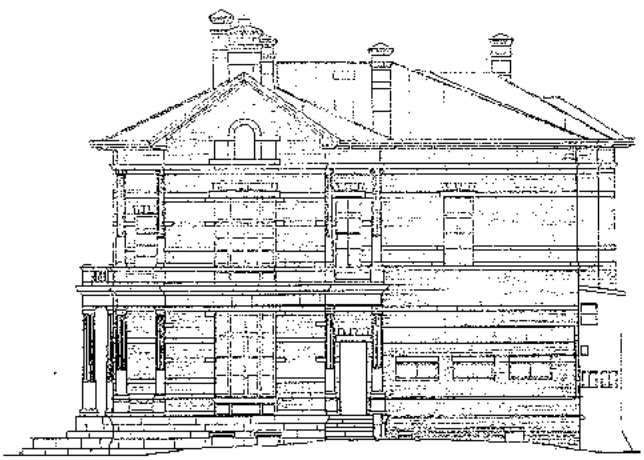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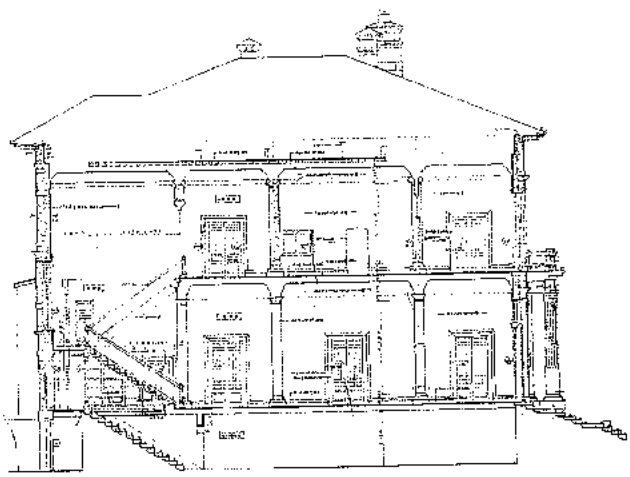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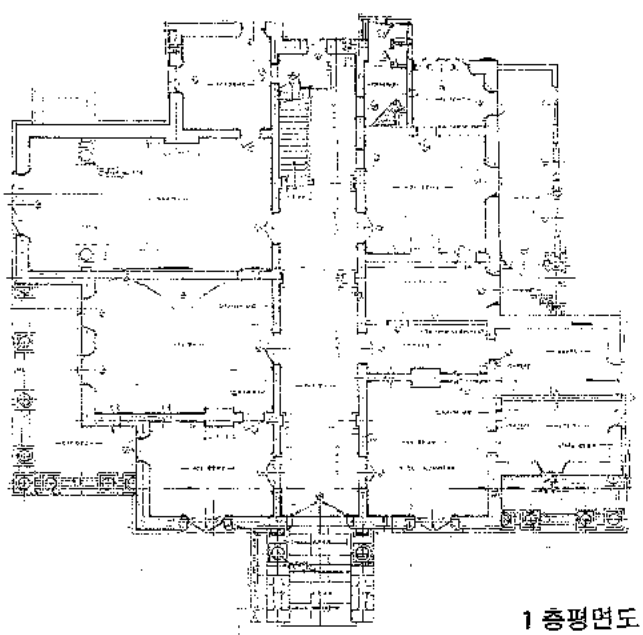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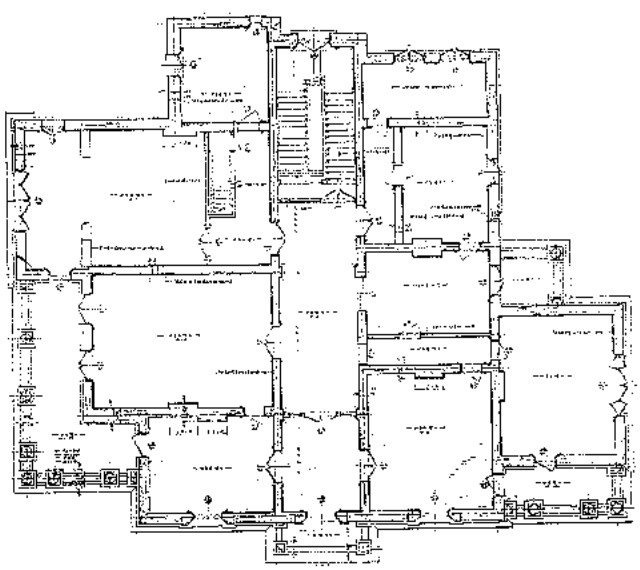
우측면도



A－A 단면



1 층평면도



2 층평면도

건축공사 적산요령

〈건설부 표준품셈을 중심〉

張 栄 春

정림건축견적부

적산요령을 정리하면서

본 적산요령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 내용을 알기 쉽게 또는 수량산출시 문제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목, 구분, 수량산출 단위, 내용, 기준,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 수량산출시 중복되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함이며 견적업무를 담당하여서 느낀바를 공통된내용으로 정리하여 수량산출 요령에 의한 의견 대립을 피하고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기술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고 정리, 정돈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본내용은 교수 선배님들이 저술한 책자를 참고로 하여 각 책자에서 필요한 내용 자료를 취하여 편집하였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수 선배님들이 저술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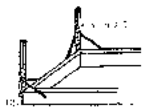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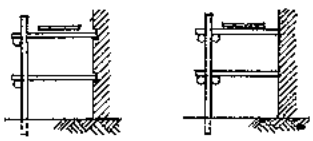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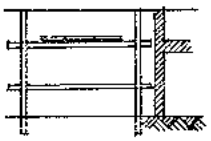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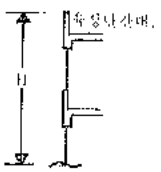
적 산 요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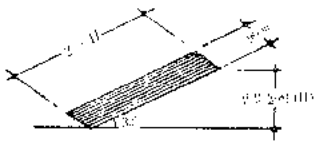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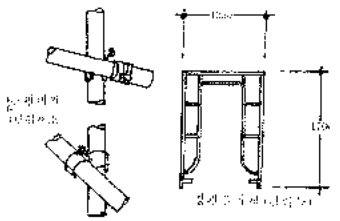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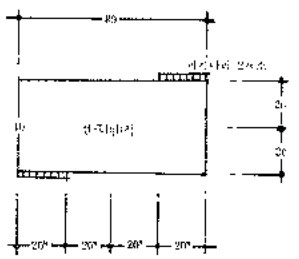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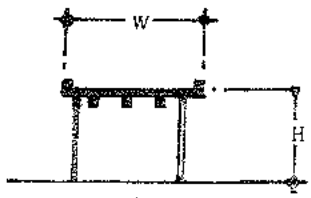
1. 가설공사

한대지대에 여러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때 이에 소요되는 가설중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별도로 산출하나, 주건물 이외엔 소규모 부속건물 일 때는 통합하여 주된 건물에 포함시키되 소규모 부속건물은 자체 건설사항만 계산한다.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1. 가설 건물	• 가설 사무실	m^2	단위한	• 감독관 사무실, 도급자 사무실	※ 가설물의 면적은 시설물 규모 및 공사비 규모에 의한 구분참조.	도표 1 – 참조.
	• 가설창고	m^2	〃	• 일반자재, 세멘트 보관, 기타 재료 보관.		
	• 작업헛간	m^2	〃	• 목공작업장칠골공 작업장, 철근공 작업장, 함석공 작업장, 석공 작업장.		
	• 숙 소	m^2	〃	•		
	• 변 소	m^2	〃	•		
	• 식 당	m^2	〃	•		
	• 경비초소	개소	〃	• 외곽 경비를 위한 임시초소(출입구통제를 위한 규소 포함)	1.개소 $1^{\sim}m^2 \sim 3^2 m^2$이내에서 규모를 정하되 방문자 대기를 위한 면적을 고려한다.	• 필요시 적용한다.
	• 실 험 실	m^2	〃	•		
2.규준물	• 수평규준물	개소	단위한	• ①평규준틀 • ②귀 규준틀	1.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의 건축물일때 적용	귀규준틀
	• 수평보기	m^2	〃	• 면적당 규준틀	1. 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2. 수평 규준틀 매기가 어려운 건축물에 적용하며 면적당 수평보기로 적용할 때는 지축면적이 최대층 면적만 적용하고 기타면적은 먹메김품을 적용한다.	독립기둥 / 평규준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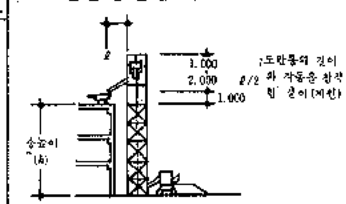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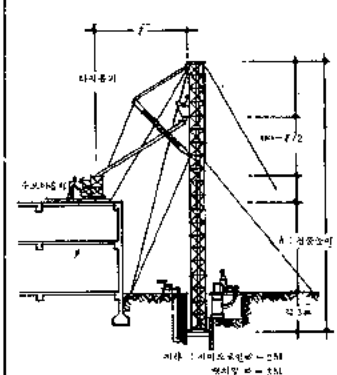
본건물의규모 단위 / 종별		200 m^2 이하	1,000 m^2 이하	3,000 m^2 이하	6,000 m^2 이하	6,000 m^2 이상
감독관사무실	m^2	6	12	25	30	50
도급자사무실	m^2	12	24	50	60	100
기타자재창고	m^2	10	20	30	40	60
작 업 헛 간	m^2	–	50	70	9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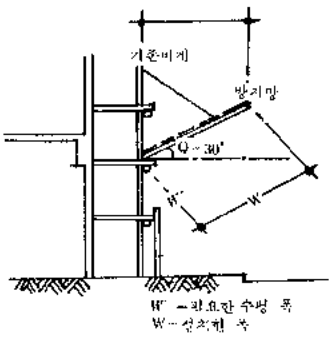
	• 세로 규준틀	개소 단위한	• 직각으로 만나는 코너마다 설치	1. 조적조(벽돌공사, 부적공사, 적공사)에 적용 2. 줄기초 코너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벽돌, 부력, 석재의 쌓기 단 높이를 표시한후 설치한다.)	줄 기초 
3. 비계	• 내부비계	m^2 1위	• 수평 비계	1. 2가지 이상의 복합공사 또는 단일공사라도 작업이 복잡한 경우에 적용.	벽면 수평비계 45cm 45cm 말비계 면적산식 m^2 = $\ell^{M} \times 0.^{45M}$ ℓ
	• 외부비계		⊙ 외부공사를 위	2. 내부 벽면에서 45cm 떠워서 면적계산 또는 건축면적에 90%를곱한 면적	
			• 말 비 계	1. 층높이 3.^{6M}미만의 경미한 8산에 적용. 2. 실내가 협소한 부분 및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긴 벽면공사	
	• 외부 비계 (간비계목을 사용)		⊙ 외부공사를 위한 발판	3. 보수공사에 적용(일부분 보수일 때)	
		m^2 1위	• 외줄 비계	1. 중, 저층 건축물로서 조적감사(벽돌, 부력)등 경량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	
		m^2 〃	• 겹 비계	1. 외줄비계로서는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에적용 ⊙ 면적 산출기준(외줄비계 겹비계) ① 목조…벽중 심선에서 45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 ② 철근콘크리트조 … 벽 외면에서 철 골 조 45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 까지의 외주면적	 
			• 달 비계	1. 건물 구체가 된 다음에 외부 수리에 많이 쓰인다. 2. 경미한 단일공사를 하기위한 페인트공사, 뿜칠공사, 청소비등의 비계는 외부비계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사용.	
		m^2 1 위	• 쌍줄비계	1. 고층건물로서 비계위에 많은 자재를 놓고 작업하게 되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테리쯧타 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의 외장공사에 적용. 2. 공사 기간이 길때 ⊙ 면적 산출기준(쌍줄비계) ① 목조…벽 중심선에서 90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 ② 철근콘크리트조 … 벽외면에서 및 철 골 조 90cm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 까지의 외주면적.	면적산식 = 비계설치둘레 × 높이 ※ 외부비계 높이는 사람(작업인원) 키 높이는 공제하지 않는다.

	• 비계다리	m² 1위 개소 단위한	⊙ 공사진행을 위한 외부동로 (1) 면적별 구분(나대와 연면적) (2) 층별(개소당)구분	1. 현장 작업여건에 의해 결정설치 (1동의 건평이 1600m²일때 마다 비계다리 1개소 설치) 2. 승강비탈은 30°이하(sin 30° = 0.5) 3. 층높이7m마다 휴함 설치 4. 외부쌍줄비계에 의지하여 설치하는것 (전설부제정 품셈내역↔ 비계다리 물량)이므로 비계다리 설치부분의 외부 비계는 쌍줄비계로 면적산출(외줄비계, 절비계 설치 적용시) tan 30° = 0.5774 쌍줄비계면적 = 층높이 (H) × 1.7배 ⊙ 면적산출 (1) 디딤판 연면적…2배의 층높이 ×폭+층높이 7M이상일 때의 휴함면적 = 연면적 (2×H×0.9−7M이상 면적 = 디딤판 연면적) (2) 층별개소…건물층수 × 비계설치 개소 (1개층의 높이가 높은층 (공장, 등)은 3.5M를 1개층으로 비례하여 산출함)	
	• 외부비계 (강판사용)	m² 1위	• 단관비계 • 강관틀비계	1. 고층건물로 공사기간이 긴때 적용. 1. 고층건물로 공사기간이 긴때적용 2. 최고높이 45M미만일때 적용	
	• 비계매기품	m² 1위	⊙외부비계, 비계다리 매기는 높이에 따라 품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나무비계 매기품	1 층높이에 의한 품 구별비계 면적 2. 나무비계는 층높이 26M까지며 그 이상은 강판비계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택한다.	
		m² 1위	• 강관비계 매기품	1. 건물높이 30M이상에서는 매 3.5M씩 구분하여 비계 면적 산출.	
4. 진흙물 동바리 및 타워	• 동바리 손료	공m³ 단위한	• 건축 공사용	• 수량산출 1. 상층바닥면적에 층높이를 곱한 체적의 90%적용. 2. 바닥면적 1M² 이상의 개구부 동바리 체적은 공제함.	 동바리체적 = W × H × 90% W = 상부 스라브면적 H = 층높이

층높이 / 비계높이 / 구분

		3	7	10	13	16	20	23
		7	10	13	16	20	23	26
		M	M	m	m	m	m	m
외부비계	외줄비계	m²	m²	m²	m²	m²	m²	m²
	절 비계	m²	m²	m²	m²	m²	m²	m²
	쌍줄비계	m²	m²	m²	m²	m²	m²	m²
비계다리		m²	m²	m²	m²	m²	m²	m²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위	내 용	기 준	비 고
					3. 층높이 7M이상의 동바리 체적은 별도 구분수량산출(층높이 7M이상은 매 3M씩 구분하여 체적을 구함) 4. 직고 2M미만인 경우의 교각, 교대, 암거등에서는 동바리 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면적이 넓을때는 계산한다) 5. 특수 구조물의 동바리 체적은 별도 산출 적용함(동바리에 대한 설계하여 손료를 계산도록 한다.)	
		공m³	단위한	1. 목제 동바리	1. 받침 기둥을 통나무 사용 또는 각재 사용으로 구분	※특별한 경우외엔 통나무 사용
				2. 철제 동바리	1. 파이프식 받침기둥 2. 단관틀식 파이프 받침기둥 3. 수평지지보-받침기둥을 쓰지않고 보를 걸어서 거푸집널을 지지하는 것.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기되었을 시 적용하되 조립해체 손료, 운반비만 계산.
	•타 워				•철제 동바리 체적은 설계수량으로 산출한다.	※구조계산에 의한 동바리설치 설계를 해서 그에 의한 수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m	단위한	1. 콘크리트 타설용 타워 ㄱ. 목제타워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하기 위한 가설통로 1. 저층(15M이하)일때 적용. (현장조건에 의해 타워폭 결정 최소 2M 최대 3M이내) 2. 타워 높이 산정식 $H=h+\frac{\ell}{2}+4.^{0M}$…일반 조건일때	H : 타워높이(지하부분 포함) ℓ : 건물과 타워간의 거리 h : 건물상단 높이
				ㄴ. 강선타워(STEEL WIRE TOMER)	1.고층건물 콘크리트 운반시 호이스트 바켓트(hoist bucket)을 두줄(STEEL WIRE)가이드레일로하여 도람통을 운반하는 공법. 2.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사용하되 이의 손료는 설계수량에 의한 경비를 산출한다.	 ※ℓ은 1M이내로 가정하여 목재타워높이 산출은 건물높이 $+4^{5M}$로한다.
				ㄷ. 강재 타워	1. 고층건물 콘크리트 타설용으로 설치 2. 콘크리트 바켓 용량에 의해 타워크기가 좌우됨으로 높이 산정시 고려해야 된다. 3. 높이 산정공식 $H=h+\frac{\ell}{2}+12^{(m)}$ 4. 특별시방서에 별표시가 없으며 후로아홉퍼(높이 3M)을 제하고 슈트에서 직접운반기구(손수레)로연결되도록하며 믹사설치의 위치, 가종에 의해 지하층(약3M)부분도 조정이 필요함으로 공식의 12M는 현장조건, 타워설치 운영방식에 의해	 12M=지하(3M)+후로다홉퍼 높이(3M)+타워홉퍼높이(6M)

					조정됨으로 높이(H)산정시 특별히 유의하여 산출한다.	※고정수치(12M)에 대해 ①후로아홉퍼 설치유무와 조정(12M이내) ②지하 먹서설치 유무, 종류에 의해 변경적용 ※슈우트의 경사로는 4/10~7/10로한다. 즉 수직방향의 높이/수평방향의 거리 (1/2이하로 한다.
				2. 화물, 작업인원, 운반용 타워	1. 공사 진행을 위해 화물운반, 인력수송용, 에레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타워가 필요하는데 따라 종류별 사용처 사용시간에 의해 별도 구분된다.	
5. 안전	• 낙하물 방지망	m²	1위	• 철망사용 • 발 사 용 • 안전망 (P.V.C망)	1.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 2. 지상에서 높이 3.5m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으로 30°정도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게 됨. 3. 지상 높이 7M이상 일때는 구분한다(7M이상 일때는 설치비계공품을 외부외줄 비계매기품을 적용하게 됨으로) 4. 안전망 설치…철골공사중 철물조립시 Rivet등이 떨어질 때 작업인에 대한 안전을 위해 설치. • 면적산출 낙하물 방지망 면적=망설치거리×수평길이×1.15배 ※낙하물 방지망은 기존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건설부 표준품셈 내용)임으로 외부 기존비계가 없을시는 별도 구분한다.	 면적=망 설치 필요길이×수평폭×1.15배 $m^2 = \ell \times W' \times 1.15$배
	• 보 호 막	m²	소수 1위		1.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 안전 및 미관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 2. 수량은 필요한 부분의 설치면적으로 한다.	※기존비계를 사용함으로 특별히 필요시는 별도의 비계를 설치한다.
	• 건축물보양	m²	소수 1위	• 콘크리트 양생 • 석재면 타일변 테리조 면 보양 • 기타부분	1.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2. 보양은 양생개소에 적합한 방법별로 구분한다. 3. 특별한 양생, 보양이 필요할시는 별도 구분한다.	※석재면 보양 중 벽면은-진다듬 바닥-정다듬 까진보양제외
	• 뒷 정 리	m²	단위한	•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 목 조	1. 건축연면적을 적용 2. 공사중 옥내외 청소 및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 가설울타리	m	단위한	• 판 장 울 • 합 판 울 • 철조망울 • 철골판울	3. 2가지 (①목조, ②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 구분한다. ⊙공사 현장의 관리 보안상 필요로 하여 설치하는것으로 재료, 구조, 미관등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준한다. 1. 종류별(판장, 철조망, 철골) 규격별 L(높이 1.8M, 2.7M, 3.6M) 내용별(외부마감 판계)로 구분하여 연길이로 수량산출. 2. 출입구의 문 설치는 별도 개소를 산출한다.	
6. 기타	• 임시수도	식	단위한	• 공사를 위한 사용 용구 • 수도 인입비 • 임시도수 구내 가설비	1. 공사, 물용량을 산출(건설부품셈 공사용수 수량 산출참조 하여, 공사 작업원이 사용할 총 물의 양을 더한다. 2. 구청 수도과에 일시급수 신청에 의거 처리됨으로 현장 조사시 참조하여야 함. 3. 각 현장에 편리하도록 배관 또는 물탱크를 설치한다.	※건설부제정 품셈 (공사용수 기준) • 거푸집0.04 m³/m² • 미장0.02 m³/m² • 콘크리트 혼합, 양생 0.22 m³ m³ • 벽돌쌓기 0.27 m³/1000매당 • 타일붙임몰탈 0.01 m³/m² 코먼적 • 타일셋기 0.013 m³/m² 표면적 • 돌쌓기몰탈 0.04 m³/m² 표면적 • 돌셋기 0.17 m³/m² 표면적 • 미장 0.02 m³/m² 표면부
	• 임시전력	식	단위한	• 공사를 위한 전력 • 임시 전력 인입비 • 임시전력 수선설비 • 공사장내 배선 공사비	1. 공사를 위한 전력( )가설 사무실을 위한 전력등 공사장내 전체 전력의 총용량을 산출한다. 2. 한전 임시전력 인입비용은 수선용량과 관계됨으로 수전설비의 적정용량을 산출(시운전시도 사용가능여부 등 제반 조건에 부합되도록 산출)하여 인입비용을 계산한다. 3. 수전설비 시설은 임시로 사용하게 됨으로 경제적인 설계에 의해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4. 구내 배선은 공사진행상 편리하게 설계하여 이에 준하여 공산비를 계산한다.	※임시전력은 공사진행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 임시전력을 위 한 공사비를 산출 내역에 반영한다. 가설전등기준 (등량 100W기준) • 사무실 – 0.15 등/m m² • 창고류 – 0.04 등/m² • 작업장 – 0.1 등/m² • 숙소 – 0.004 등/m² • 인공조명, 외등은 별도 계산 • 동력 – 양수기, 인치, 용접기, 타워크레인 등 제원의 실용량 계산.
	• 임시도로사용.	식	단위한	• 도로사용료 • 도로 복구비	1. 공사 진행을 위해 공공용지를 사용코저 할때(공사 진행상〈설계도서검토〉꼭 필요한 사항일때 적용됨) 각관할 관청에 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공사진행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한 경비는 별도계산해 주어야 한다.
	• 주변 전물 보상대	식	단위한		1. 공사진행상(공법상 설계도상)꼭 발생될 사항일때(공사 진행중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이에 대한 경비는 계산되어야 한다.	

2. 토공 및 조경공사

○토공은 흙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여 여러가지 목적의 작업을 하는것

○공정별
- 굴착
- 싣기
- 운반
- 사토
-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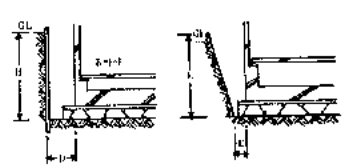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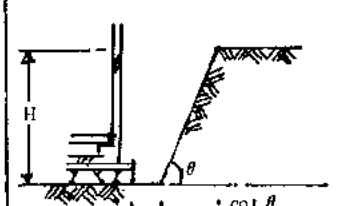
○방법
- 인력
  - 순수인력
  - 리 이 카
  - 우 마 차
  - 손밀기 트로리
- 중기
  - 트 럭
  - 불도저
  - 스크레이퍼

○흙의 절취 유형분류

1) 연토사……삽을 손의 힘으로 퍼 낼수 있는 모래 등의 연토
2) 보통토사……삽을 상체의 힘으로 퍼낼 수 있는 정도로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되는 흙,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3) 경토사……삽을 발로 밟고 체중을 이용하여 2 - 3회 눌러야 되는 정도의 흙.
4) 경점토……수분이 적어서 굳어진 것 또는 니점토 물엿같이 늘어진것
5) 고사점토 및……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토 정도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 낼수 있는 자갈섞인점토 단단한 토질
6) 호박돌섞인 토사……호박돌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단단한 토질
7) 풍화암……굴착에 있어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러릭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석 절취시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8) 연암……퇴암 사암 등으로서균열이10~30cm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시는 화약을 사용해야 함.
9) 보통암……풍화 상태는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함.
10) 경암……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도 균열상태가 1m이내인 암질로 석축용으로 사용
11) 극경암……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터파기를 위한 용어

1) 절취……넓은 지역 및 깊이 20cm 이하의 터파기
2) 협소한 장소…최소폭이 1m이내거나 1m넘는 경우라도 최대길이가 2m미만일때.
3) 넓은 지역……보통 불도저 등이 작업할수 있는 정도 최소면적 5m×약30m이상의 지역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1.흙파기				⊙흙파기의 여유 1) 최하단 여유폭  (1) 흙막이가 있는경우 (2) 흙막이가 없는 경우	 휴식각 θ cot θ = L/H cot θ 40° = 1.1918 50° = 0.8391 60° = 0.5774 70° = 0.364 80° = 0.1763

(1) 흙막이가 있는경우

높이(H)	터파기폭(D)
5.0m이하	60 - 90cm
5.0m이상	90 - 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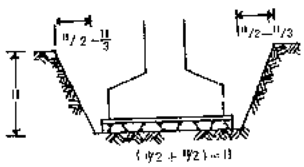
(2) 흙막이가 없는 경우

높이(H)	터파기폭(D)
1.0m이하	20cm
2 2.0m이하	30cm
4.0m이하	50cm
4.0m이상	60cm

2) 흙의 휴식각 및 안식각

토질		휴식각	파내기 경사각	무게 (t/m³)	부피증가 (%)	비고
모래	건조	20-35°	40-70	1.1-1.4	0	
	보통	30-45	60	1.2-1.7	15	
	습윤	20-40	40	1.4-1.8	10	
보통흙	건조	20-45	40	1.2-1.8	12-20	
	보통	25-45	50	1.3-1.8	15-20	
	습윤	25-30	50	1.4-1.7	20-25	
자갈	일반	30-38	60	1.4-2.2	5-15	
	모래섞인흙	20-38	40	1.4-1.8	5-10	
진흙	건조	40-50	80	1.2	12-15	
	보통	35	70	1.8	12-25	
	습윤	20-35	40	2.2	20-25	
암반	연암	-	-	2.2	25-60	
	경암	-	-	2.4	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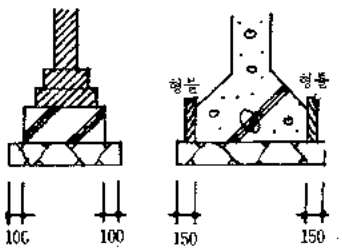
3) 흙파기 여유는 안식각의 2배 (흙파기 경사각)정도 또는 깊이의 ⅓~½를 기초 나비보다 더넓게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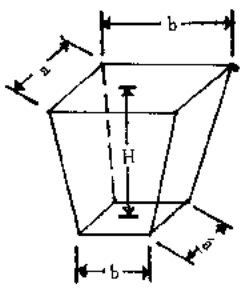
4. 잡석지정 나비의 명기가 없을 때는 기초 나비의 양쪽으로 10cm씩 더 가산,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때는 기초는 15cm씩을 가산한 여유로 가진다.

⊙터파기 수량산출시 구분

1. 토사의 절취, 터파기, 등으로 구분
2. 토사의 종류별구분. (보통토, 경질토사, 고사점토, 호박돌, 암반, 보통암, 경암)
3. 깊이 별로 구분. (인력터파기때 0-1, 1-2, 2-3



4. 위치별 구분 ① 장소가 협소한 곳
   ② 용수가 나는 곳
   ③ 주위에 장애물 (흙막이, 인접건물, 기타시설물) 있는곳
   ④ 수중터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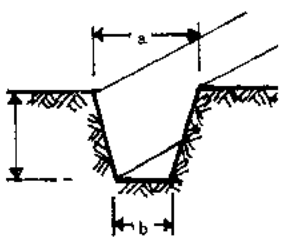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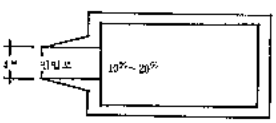
5. 인력터파기, 기계사용터파기로 구분.
6. 절취나 터파기에 있어서 면 고르기 수량은 별도 가산하지 않음

⊙수량산출

1) 독립기초파기

$$A = \frac{H}{6}\left[(2a+a')b+(2a'+a)b'\right] \times 독립기초개소(E)$$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A=\frac{H}{3}(a\times b'+a\times b+\sqrt{a\times b\times a\times b'})$ ×독립기초개소(E) 2) 줄 기초파가 $A=(\frac{a+b}{2})\times H\times$ 줄기초의 연길이(ℓ) 3. 온통파기 A=가로×세로×높이 ($a\times b\times H$) 4. 흙막이 설치후 터파기중 흙막이 널로부터 50cm이내는 인력 절취 토량으로 구분된다. 5. 깊이 1m미만은 안식각을 고려치 않은 수직터파기량으로 계산 (특수토질은 제외)	
	• 인력터파기	m³	소수2위 (집계 시단위한)	• 삽, 곡괭이, 정함마으로 자연상태, 다져진상태, 등의 흙(암석)을 파내는 것을 말함.	⊙ 기계 터파기는 전체경비(장비운반), 작업시간효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기계터파기	m³	〃	• 기계를 사용하여 터파기함을 말함	• 백호우파기 – 1단굴착 – GL→4M까지. 2단굴착 – 1단굴착→4M까지 • 불도우저 – ① 진입로를 계산한다. (경사도 10%–20%) ② 집토거리 20m이상일 때 적함 • 스크레이퍼 • 셔블 • 백호우 • 드래그라인 ◎투입되는 장비는 현장조건에 맞게 계산한다.	
2. 되메우기	• 인력되메우기	m³	소수1위 (집계시 단위한)	• 터파가에 의한 흙을 건축물의 기초부분이 완성되면 도로 묻는 작업을 말한다.	◎ 수량산출 • 되메우기량=흙파기체적 – 기초구조부 체적 (설계수량)	※ 기초구조부 체적이란 지반선 이하의 잡석다짐 기초 콘크리트, 지하실의 외부체적, 배수를 위한 토관등의 체적을 말한다.
• 기계사용	• 기계사용되메우기	〃	〃		• 인력사용되메우기(소운반하여), 기계사용되메우기(불도우저 사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사 성질상 필요에 의해 구분한다. • 기계 사용되메울 때라도 일부는 인력으로 되메울 필요가 있을때 구분 산출한다.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수	단내 용위	기 준	비 고
3.다지기	• 인력다지기 • 기계다지기	m³ m³	소수2위 (집계시 단위한) 소수2위 (집계시 단위한)	• 다지기 체적은 다지기를 필요로 하는 공간의 체적을 말한다.	• 성토두께구분(15cm, 30cm) • 인력, 기계 다지기 구분 • 물다짐 할시는 물운반거리에 의해 별도 계산 • 투입 장비에 대한 제 경비는 별도 계산 • 흙의 종류별 구분(토사, 점토)	※ 투입장비 • 머캐덤로울러 · 타이어 로울러 • 진동로울러 · 탬핑로울러 • 콤팩터 · 탠덤로울러
4. 잔토 처리	• 인력사용 • 중기사용	m³ 〃	소수2위 (집계시 단위한) 〃	• 기초 흙파기량과 표토 걷어낸 흙량의 합계에서 되메우기 흙량을 공제한 나머지량을 장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함.	• 잔토 처리 계획은 현장내 작업에 지장이 없으면 되메우고 다지기 토량(좋은흙)은 현장내에 쌓아두고 나머지 토량만 반출하도록 한다. • 현장이 협소하여 전토량을 반출시는 ① 되메울토량 확보문제 고려 ② 공터를 빌린 임대료 고려→새로운 토량 반입시 경비와 비교 • 잔토처리 장소 선정은 최단거리의 적정한 위치선정 • 잔토처리 토량이 사용가능(모래, 마사)재 일시는 토사 매각 에 따른 공사비 감액 고려	
5. 지정	• 모래 깔기 지점 • 자갈 깔기 지점 • 잡석 깔기 지점 • 기타 지정	m³ m³ m³ 식	단위2위 (집계시 단위한) 〃 〃 〃 〃		1.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체적만 산출한다. 2. 소운반 및 다지기품은 별도 구분치 않는다. 3. 잡석깔기지정은 기초부분, 바닥부분을 구별하여 체적을 구한다. 4. 표기가 없을 때 잡석지정폭은 10cm~15cm씩 크게 계산한다. 5. 특수한 지정은 전체 경비를 계산하여 1식처리함.	※ 품셈(일위대가표)에 할증과 품이 포함됨으로 별로 구분치 않음. 거푸집 100 100 150 150 • 조적 · 목구조기초 • 철근콘크리트기초
6. 기타	• 바닥P.E필림 깔기 • 바닥유지 깔기	m² m²	단위한 〃		1. 내용별로 실적면만 산출한다.	※깔기품 할증은 일위대가표 참조
7.흙막이	• 목제널말뚝 • 강제널말뚝 • 기성콘크리트제 널말뚝 • 기 타	식 식 식	1 1 1		⊙흙막이 1. 설계도면에 명시되었을 때 2.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기초파기의 비탈을 충분히 잡을수 없을 때 3. 깊은 기초이고 연약지반으로서 비탈만으로는 붕괴의 우려가 있을때 4. 휴식각을 고려한 흙파기보다 경제적일때	※ 기초공사진행중 중요한 공정임으로 시공시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진행한후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수량 산출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 흙가마니	m³	단위한	•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흙 가마니를 만들어 쌓는 공정	• 쌓기면의 체적을 구한다.	• 가마니 17매는 1m³ • 1가마니는 0.056m³
8. 말뚝 박기	• 나무말뚝 • 기성콘크리트 말뚝 • 철제 말뚝 • 제자리콘크리트 말뚝 • 프리팩트콘크리트말뚝 • 합성 말뚝	개 〃 〃 〃 〃 〃	단위한 〃 〃 〃 〃 〃	• 기초하부의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상부의 하중을 지탱할 수 없어 말뚝을 박아 상부하중을 지지하기 위함. • 지지말뚝·마찰말뚝·다짐말뚝·인장말뚝·앵커말뚝 등이 있다. • 말뚝은 지지력 재료, 목적, 설치공법에 따라 분류한다.	•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상에 의한 정미수량으로 산출 • 종류별(말뚝재료) 시공별(공사비 저렴) 규격별(ø 250-500)로 구분 산출한다.	※ 현장에 적합한 시공방법을 고려하여 구분 산출한다.
9. 밑창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m³	소수2위	• 지정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체의 중심선을 표시하기 위함.	• 배합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상의 정미수량만 산출. • 설계도서상 특기가 없을시는 두께 6cm로하고 폭은 조적조(10cm) 철근콘크리트조(15cm)를 기초측면에서 더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의 배합비는 1:3:6으로 함.	
10. 식재	• 뿌리돌림	주	단위한	• 이식하기 위하여 기존 나무를 분뜨기위한 작업	• 수목의 나무높이(9.M-18.M) 근원 직경별로 구분(15cm ~100cm)하여 주당으로 수량 산출한다.	※ 단풍나무, 목련, 주목, 수수꽃다리, 배롱나무, 동나무, 무궁화 박태기나무, 수국 백당, 등 유사한 수종
	•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단위한	• 잣나무, 향나무, 소나무, 독일 가무비, 삼나무, 낙엽송 기타 유사수종	• 식재시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로 구분(조원공품 20%감) • 굴취 및 운반은 별도 계산 • 수고 6M이상 일때 나무는 높이에 따라 계산 • 나무높이(1.0이하~6.00)까지 구분	※근원 직경은 바로 땅위에 수목 직경을 말한다.
	•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주	단위한	• 교목류인 - 감나무, 밤나무, 은단풍, 은수원, 사시아태리, 포플라, 은행나무, 칠엽수, 자작나무, 오동나무, 수양버들 가죽나무, 프라타나스, 기타 유사수종	• 식재시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를 구분(조원공품 20%감) • 식재시 객토를 할 경우 식재품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가 • 운반별도 • 구분(흉고직경 4.5cm내외~30cm 내외)	※흉고 직경은 높이 1.2cm부분의 수목 직경을 말함

종 목	구 분	수량 산출 단위 소수	내 용	기 준	비 고
	• 관목류의 식재	주 단위한	• 지면에서 다년생으로 자라나는 수종 화양목, 옥향나무, 동목화, 군향나무, 칠죽류 사철나무, 개나리 해당화, 복단, 기타 유사 수종	• 구분(나무높이 1.²M~0.³M이하) • 나무높이 1.⁶M이상일때는 높이에 따라 가산할수 있다.	
	• 묘목류 식재	주 단위한	• 아까시아, 리가다 소나무, 오리나무, 쪽제비싸리, 산오리나무 등의 수종에 적용.	• 나무높이에 의해 구분(0.⁹M이상 0.⁹M이하)	
	• 초화류 식재, 파종	주 단위한 m² 단위한		•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품을 20 %증가할 수 있다.	
	• 초류관리	100m² 소수2위	• 잔디(대)깎기 • 기계사용 잔디깎기 • 시비·제	• 기계사용시 돌이 섞여 있는 지역 여부 구분	
11. 정원 식쌓기	• 정원석 쌓기 • 정원석 놓기	TON 소수2위 〃 〃	• 평지에 자연석 또는 수식을 기술석으로 배치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	• 정원석이라 2목도 이상되는 돌을 말함. • 지형,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20 %까지 증가할수 있다.	
12. 기타	• 떼(들떼 평떼)	100m² 소수2위	• 떼 뜨기 • 떼 붙임	• 피트공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계산한다. • 흙의 운반비, 떼의 운반비는 별도 가산 • 조경상 세공(묘지 정원 및 공원 경기장, 기념물 주변등)을 요하는 떼붙임은 현장조건에 따라 그 품을 조원공 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별도 구분	
	• 절토면 고르기	10m² 소수1위	• 기계시공으로 절토후 비탈의 凹凸을 인력으로 고르는 품	• 토질 별로 구분 산출(모래, 사질토, 점토, 전질토, 부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 경질토)	
	• 축제면 고르기	10m² 소수1위		• 토질별로 구분 수량산출(점토 모래 등)	

建築行政相談

1980년 1월 7～
相談電話는72～7653

1980년 1월 7일

문의 1 : 연립주택에 대하여
○ 3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한지?
○ 건폐율은?
○ 자연녹지지역내 건축은?
○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 사용자료 제한은?

답 변 :
○ 불가합니다.
○ 50세대 이상인 경우 30%
〃 미만인 경우 40%
○ 자연녹지 지역내 용적율이 60%이므로 연립주택 의형성이 불가 합니다.
○ 300평 이상
○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문의 2 : 서울시의 주차장 정비지구의 옥외 주차장 비율은?
답 변 : 10.000m²이상이면 50%이상
10,000m²미만이면 20%이상

문의 3 : 연립주택도 연서복명제의 대상이 되는지?
답 변 : 현재는 연립주택의 경우 연서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4 : 여의도 상업지역인 경우 고도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답 변 : 여의도 서측에는 해발 60m²까지는 제한하고 있읍니다.

1980년 1월 8일

문의 1 : 점포 및 주택 겸용 용도를 가옥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주용도는 어느 것인지?
답 변 : 점포 및 주택의 각각의 면적이 연면적의 ½이상이 속하는 용도가 주용도 입니다.

문의 2 : 도로 폭원이 3m인경우 건축선은 얼마입니까?
답 변 : 도로 중심선에서 2m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문의 3 : 건축사와 건축기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건축설계 감리등을 할 수 있으며 건축기사는 건설업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시공분야에 업무를 하게 됩니다.

1980년 1월 9일

문의 1 : 연립주택인데 전면도로가 15m가 좀 넘은 경우인데 그에 관한 규정은?
답 변 : 연립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168조 2항에 의하면 전면도로가 15m이상이면 6m후퇴 하여야 함.

문의 2 : 주거지역내 풍치지구인데 주거지역내만 적용 받으면 됩니까?
답 변 : 주거지역의 풍치지구인 경우는 풍치지구내 저촉을 받으면 됨.

문의 3 : 건축물을 20.000m²연면적을 시공코자 주차장의 옥외 옥내 비율 관계는?
답 변 :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경우는 옥외 옥내 주차 비율이 각각 50%임

문의 4 : 연립주택 건폐율은?
답 변 : 서울시 연립주택 심의 건폐율은 30%이며 용적율은 100%입니다.

1980년 1월 10일

문의 1 : 연립주택을 3층으로 건축하고저 하는데 하가가

되는지요?

답 변 : 건설부에서 규정을 하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립주택은 2층으로 건폐율 40% 건축허가되고 있읍니다.

문의 2 : 풍치지구 내의 용적율이 얼마인지요?

답 변 : 서울시 풍치지구 조례에 의거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80%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의 3 : 주거전용 지역내에서 병원 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주거전용지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142조 1항 별표 1에 의해서 병원 건축은 불가하며 다만 별표 1의 2항에 의거 근린시설에 속하는 "의원" 건축허가는 가능함.

문의 4 : 주거지역내 주차장 정비지구 건폐율은?

답 변 : 건축법에서는 50%에서 60%미만으로 규정되여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50%로 적용토록 되여 있읍니다.

1980년 1월 11일

문의 1 :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가옥대장에 등재되는지요?

답 변 : 준공검사를 득한후 가옥대장에 등재됩니다.

문의 2 : 태양열주택의 허가신청은?

답 변 : 기 시행되는 허가신청 양식에 추천서등을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3 : 주거전용지역에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변 : 법상 주거전용 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은 허가가 불가 합니다.

문의 4 : 공중 목욕탕과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변 : 학교와 공중 목욕탕의 거리는 50m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문의 5 : 여의도 지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변 : 개발 방안에 의해 최소 500평 이어야 합니다.

문의 6 : 주차장 정비지구의 해당여부(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답 변 : 해당지역 입니다.

1980년 1월 14일

문의 1 : 표준설계도서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답 변 :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각 시도별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열람후 선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는 서울시청 건축과로 가시면 열람은 할 수 있읍니다.

문의 2 : 주차장법의 규정에 주거지역은 2,000m²이상의 건축물만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1,000m²의 경우도 설치하여야 합니까?

답 변 : 법상은 2,000m²이지만 서울시는 1,000m²이상도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읍니다.

문의 3 : 1종 미관지구내 대지 110평은 건축가능합니까?

답 변 : 미관지구 건축조례에 200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시면 가능하겠읍니다.

문의 4 : 주차장 정비지구 조례에 보면 경사로 구배가 17%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경사로의 구배가 1 : 6을 의미 합니다.

문의 5 : 등기부상 면적이 30평이고 실제평수가 39.6일때 증축전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읍니까?

답 변 : 앞으로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면 가능합니다.

문의 6 : 연립주택 200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은?

가. 건폐율

나. 20m도로변에서 후퇴거리

답 변 : 가) 건폐율 30%이하

50세대 이하는 40%이하

나) 6m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입니다.

문의 7 : 연면적이 1,050m²이고 옥내 주차장 면적이 80m²일때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거지역 · 점포 사무실)

답 변 : 주차시설을 제외한 면적은 1,000m²미만이지만 400m²마다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던 옥외던 간에 소정의 주차통로는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의 8 : 장기위법 건축물을 구제해 준다는데 대상범위가 어떻습니까?

답 변 : 주거용 건축물에 연면적 50평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1980년 1월 15일

문의 1 : 주거전용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는 얼마인지요

답 변 : 건폐율은 40% 용적율은80% 대지경계선에 처마끝에서 1.0 건축물 외벽에서 1.5를 띄어야하며 별도로 영동지구 개발 방안이 있으니 허가시에 개발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 주거전용 지역에서 주택의 건축물 높이는 얼마입니까?

답 변 : 건축물의 높이는 8m이고 층수는 2층 이하 입니다.

문의 3 : 방화구획은 몇m^2당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1.000m^2당 방화구획을 해야 하며 지하2층 지상 3층일 경우에는 층별 방화구획 11층 이상일 때에는 100m^2당 방화구획을 해야 함.

1980년 1월 16일

문의 1 : 연희동 풍치지구내 대지 2.000평인바 건폐율과 용적율은 얼마인가요?

답 변 : 건폐율은 대지 평수에 따라 다르므로 2.000평이면 10분지 2이고 용적율은 60%임

문의 2 : 상업지역내 66년도 건축한 건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바 그 당시 건폐율은 얼마 였는지요?

답 변 : 66년도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였으므로 70% 미만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 3 : 주거지역내 이나 50m도로변인 간선도로변이라도 일조권을 적용하는지요?

답 변 : 도로폭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지구에 의거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주거지역내 적용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함.

1980년 1월 17일

문의 1 : 연립주택의 최고 층수는?

답 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2층 이하 입니다.

문의 2 : 건축사 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시청 무슨 과에서 처리 합니까?

답 변 : 서울시의 경우 건축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하의 높이로 해야 합니다.

문의 4 :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내 대지 최소한도는?

답 변 : 현재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330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문의 5 : 판매시설을 계획시 연면적 4.500m^2라면 건축선에서 얼마 띄우며 그 일부가 판매시설이라도 마찬가지 인지요

답 변 : 기본 3m에 연면적 1.000m^2당 1m씩 초과 하므로 8m이며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1.000m^2 초과 마다 1m씩 초과 됩니다.

문의 6 : 공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무슨 규정에 기재되어 있읍니까?

답 변 : 건축법시행규칙 제222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1980년 1월 18일

문의 1 : 연립주택을 3층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대지는 300평입니다.)

답 변 : 현재 연립주택은 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층은 불가합니다.

문의 2 : 주차장을 계획함에 있어 출입구가 1개인 평행주차를 할 경우 정확한 통로 폭은 얼마입니까?

답 변 : 출입구가 1개일 때는 5.5m이상이라야 되며 2개일 때는 3.5m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문의 3 : 5층 이상 건물을 설계할때 1개층 바닥면적이 400m^2이면 1.2층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변 : 5층 이상 건물의 직통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층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문의 4 : 소유가 다른 2필지 상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할시 1개 건물로 보는지 아니면 별개의 건물로 보는지요
단 1개 건물로 볼 시는 주차장이 해당되는데 설치여부?

답 변 :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건축할시 1개 건물로 보게 되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 5 :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지하 기계실이 있을 경우 주차장 면적 계산에서 제외 되는 지요?

답 변 : 옥내 주차장면적 이외에는 주차장 면적 계산에서 제외 시킬수 없으므로 기계실은 주차장 면적 계

산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1980년 1월 21일

문의 1 : 풍치지구내 건축완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답 변 : 현재로선 종전과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등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읍니다.

문의 2 : 4대문 간선도로변 이외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변 : 건폐율 : 45%
용적율 : 670%
층수제한 : 12층으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문의 3 : 대지와 시설녹지가 연하는 경우 시설녹지 면적을 건폐율 산정시 인정되는지요?

답 변 : 시설녹지 면적을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대지로 볼 수 없읍니다.

1980년 1월 22일

문의 1 : 교육연구지구이며 주거지역인 경우 학교를 건축할때 대지 경계선에의 얼마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주거지역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8m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¼을 8m을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½을 띄어야 합니다.

문의 2 : 학교와 학교와의 동간거리는 얼마 입니까?

답 변 : 동간거리에 대한 제한은 건축법에 규정된바 없으며 다만 건축기능·일조·채광·통풍·소화·피난등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문의 3 : 옥탑이 있는 경우에 일조권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계단실 승강기 옥탑 등은 일조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4 : 4면이 도로인 경우에 판매시설을 건축할때 도로경계선에서 얼마를 떨어져야 합니까?

답 변 : 주로 사용하는 도로에서 3에 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m²초과 마다 1m를 가산한 거리를 띄어야 하며 20m를 초과하지 않읍니다.

문의 5 : 10,000m²이하인 건축물의 옥외 주차장 비율은 얼마 입니까?

답 변 : 소요주차 대수의 20%이상을 옥외에 설치해야합니다.

1980년 1월 23일

문의 1 :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으로서 8m도로변에 점포건축을 하고저 하는데 가능 한지요?

답 변 : 영동지구는 별도 개발 방안이 있어 12m도로 이상에 접한 대지야만 점포 및 사무실 허가되고 8m도로변은 주택을 건축하여야 함.

문의 2 : 주택건물은 평수 및 층수(3층정도) 제한이 있는지요?

답 변 : 주택건물은 연면적 150평 이상은 호화주택으로서 정부에서 건축억제하고 있으며 150평 이내에서 3층으로 건축하는 것은 규제가 없음.

문의 3 : 68년도에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을 지금에 와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허가 내용과 같이 건축하였으며 준공검사 신청을 제출하고 평수등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준공하시기 바람.

문의 4 :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도로에서 직접 램프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바(이유)

답 변 : 지하 램프에서 차량이 도로에 진출입할때 통행하는 차량과 사고 우려및 불편을 느끼고 있음.

1980년 1월 24일

문의 1 : 풍치지구 7200평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저 하는데 건폐율 용적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답 변 : 건폐율은 20%이하이고 용적율은 60%이하 입니다.

문의 2 :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대지를 845평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변 : 해 위치는 상업지역 업무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최소한 500평 이상이어야하며 건축물은 5층 이상 지상 50m이하(국회앞 100m도로변은 40m이하)이고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1,000%이하 입니다.

문의 3 : 종로구 관훈동에 대지 480평 대지가 있는데 사무실 건축이 가능한지요. 규모 및 층수를 말씀하여 주세요?

답 변 : 12층 이하이고 건폐율은 50%이하이며 용적율은 670%이하이고 건축코저 하는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장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1980년 1월 25일

문의 1 : 준공업 지역내에서 점포 사무실을 건축할시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한 일조권이 해당 되는지요?

답 변 :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한 일조권은 점포 사무실일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문의 2 : 대지내 조경을 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68조의 2에 의하면 상업지역내 대지 1.500m및 기타 지역 200m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지요?

답 변 :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주택일 경우 15평당 1주 이상 기타 미관지구내에서도 녹지공간을 확보키 위하여 식수토록 하고 있읍니다.

문의 3 : 준공업 지역내 용적율은 얼마입니까?

답 변 : 준공업 지역내 용적율은 300%입니다.

문의 4 : 평행주차를 하고저 하는데 주차의 길이를 7.5m로 하여야 되는지요?

답 변 : 평행주차일 경우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6 m로 하면 가능 합니다.

문의 5 : 옥상에 계단실과 물탱크실을 설치할때 면적산입이 되는지요?

답 변 : 순수한 계단실과 물탱크실일 경우 면적 산입에서 제외 됩니다.

1980년 1월28일

문의 1 : 불량지구 재개발 구역내 건축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느냐?

답 변 : 불량지구 재개발구역내 건축계획은 자세히 알수 없으니 서울시청 재개발 2과에 가서 자세히 문의하면 되겠읍니다.

문의 2 :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몇m이내에는 협의대상인가?

답 변 : 령 6조의 3에 의거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300m 이내는 협의대상 입니다. (건설부장관 협의 단. 미관·풍치지구내 건축물은 예외 입니다.)

문의 3 : 사료공장의 싸이로는 허가 대상이 됩니까?

답 변 : 벽으로 둘러싸여 면적을 형성하므로 허가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문의 4 : 4대분내로서 청계천 4가 입니다.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 입니까? 간선도로 가변 아님

답 변 : 건폐율 45%
용적율 670%

문의 5 : 잠실지구인데 건축이 가능 합니까?
언제쯤이면 풀립니까?
(주거전용지역내 목욕탕 건축 가능 여부 내용임)

답 변 : 현재는 잠실구획정리 지구 종합계획에 의거 주택만 가능토록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목욕탕등의 건축에 관하여 계속 검토 연구할 예정 입니다.

1980년 1월 29일

문의 1 : 연립주택 건축물의 건축 제한?

답 변 : 대지면적 300평 이상
건폐율 40%
용적율 100% (90%)

문의 2 : 주거지역내에서 여인숙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변 : 숙박업용 건축물로서 불가 합니다.

문의 3 : 상업지역내에서 여관 건축을 할수 있는지요?

답 변 : 상업지역내에서 여관 건축이 가능 합니다.

문의 4 : 폭 4m도로 세길이 32m인 막다른 도로인데 건축할때 몇m를 후퇴해야 되나요?

답 변 :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하여야 함.

문의 5 : 1종 미관지구 상업지역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소정거리는?

답 변 : 상업지역에서 12m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 높이가 h라면

$$\frac{h-12m}{40}+0.5m$$

로 산정된 거리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문의 6 :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경우 건축 가능 여부?

답 변 :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 합니다.

1980년 1월 30일

문의 1 :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는데 그 변경 기준은?

답 변 : 건설업법이 80. 1. 4 자 개정 공포되어 80. 2. 5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특수건물 250평에서 150평으로 일반건물 350평에서 200평으로 강화 되었음.

문의 2 : 강남지역에 공동주택을 시공할려는 업자인데 공동주택에 따른 법적인 한계는?

답 변 : 공동주택은 건설부에서 공포된 주택건설촉진법및 동 시행령 동 규칙에 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은 18—20%나 200% 범위내에서 가능함.

문의 3 : 대지 전면에 소로가 있는데 동 대지내 주택을 짓고저 하는데 도로에 영향 발지 않고 시공할수 있는지?

답 변 : 건축법상 도로는 4m이상 이어야 하고 4m미만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각 2m씩 후퇴 한선을 기준으로 하며 2m후퇴한 선에 대지가 포함되는 경우는 대지면적에 삽입 되지 않습니다.

문의 4 : 방화구획 한계는?

답 변 : 방화구획은 바닥면적 1.000m²이내마다 구획되어야 합니다.

1980년 1월 31일

문의 1 : 장기 미준공건물(위법건물) 양성화 한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요?

답 변 : 50평 이하의 단독주택(주거용건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상 지장없는 한 양성화(합법화)하도록 의원 합법이 통과되었의므로 80. 6월 이전까지 조치가 될것 입니다.

문의 2 :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은 승강기 1대는 몇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몇층 부터 해당되는지요?

답 변 : 8인승을 1대로 기준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의 건물로서 6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m²이상이면 건설부령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 3 :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었다는데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 변 : 일반 건축물은 200평 이상 특수건물 150평 이상이면 건설업자 선정대상이며 시행일자는 80. 2. 4부터 시행 됩니다.
종전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된 사항도 착공이 되어야(80. 2. 4이전)합니다.

문의 4 : 주거지역내 "시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변 : 건축법상에는 주거지역내에서 시장이 불가하오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장시설용지로 결정고시되면 가능 합니다.

문의 5 : 영등포구 양평동에 현재 기존 공장건물이 있는데 기존건물 철거후 호텔건축이 가능 한지요?

답 변 : 귀하가 문의하시는 위치는 준공업지역이므로 호텔 건축이 불가 합니다.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1980. 2. 29
건설부령 제26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관리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절차) ①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작성기관 또는 그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과 주택, 축사, 학교 기타 이 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0동 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이중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특수공법 설계도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본설계도서 (표준설계도서 작성계획서,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및 설계개요설명서를 말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품 및 재료총괄표
4. 구조계산서, 전기설비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등
5.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특수공법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6.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3조 (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①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전체설계 도서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며, 도지사는 이를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중 기본도서는 상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설계도서는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원도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사무소 등록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제2조 제2항 제6호의 보급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건축허가 관청과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 고) ①표준설계도서 관리자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관청은 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달1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자는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달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105호 표준설계도서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인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별첨 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건 설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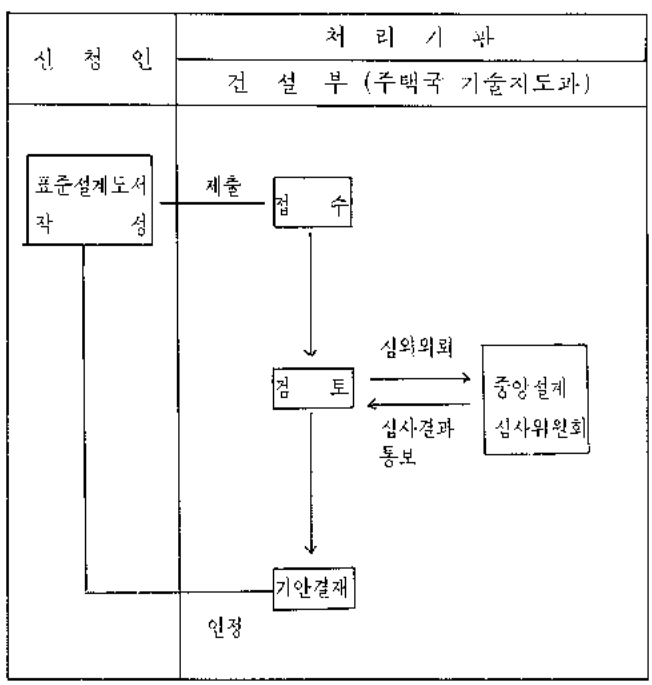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품 및 재료총괄표
4. 구조계산서, 전기설비용량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등
5.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특수공법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6.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2806-03-8E
1980. 1. 14.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2 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 관리대장

도서의 종류 및 명칭 :

공고번호 및 년월일 : 건설부공고 제 호(19 년 월 일)

① 년 월 일	②수령또는 제작수량		보 급 실 적	⑤ 재 고	⑥ 비 고

2806-03-9C
1980. 1. 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m²

〔별지 제 3 호서식〕

(/)분기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설계도서)등 관리실적보고서

19 년 월 일

보고자 : (인)

①도서의 종류 및 명칭	②공 고 번 호 및 년 월 일	보 급 실 적		⑤ 비 고
		③수 량	④ 용 도	

2806-03-10D
1980. 1. 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m²

月間建築情報

1980. 1. 21. ~ 2. 20.

再開発에 밀려 旧벨기에領事館건물 헐려

그자리엔 15층銀行, 舍堂洞에 복원

벨기에 領事館 건물이었던 史蹟 254호洋館(서울中区 会賢洞 72의 5)이 서울市의 都市開発事業에 밀려 헐리게 되었다. 1900년대 여명기에 세워져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양식 건물 7개중의 하나인 이 양관은 1903년 일본인 기사 西玉가 설계하고 일본 北陸토목회사가 2년후에 완공, 곧바로 벨기에領事館으로 사용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4평의 이 고딕식 건물은 1919년 벨기에영사관이 중무로로 옮겨가자 横濱생명보험회사 사옥이 되었고 그후 해방때까지 海軍省에서 武官附官邸로 사용됐었다.

또 해방후에는 国有財産으로 귀속, 한때 海軍憲兵隊에서 사용해오다 1970년 현 소유주인 商業銀行에 불하되 10년간 창고로 사용됐다.

붉은 벽돌의 이 양관은 현관과 발코니에 새겨진 무늬가 고딕식 건축양식을 돋보이게 하지만 창고로 사용되면서 우아한 옛모습을 많이 잃었다. 商業銀行은 헐린자리에 15층 사옥을 신축하고 양관은 서울 冠岳区舍堂洞 2,000여평대지에 원형대로 복원키로 했다.

정부가 1900년대에 세워진 洋館을 보존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정한 7개 건물은 다음과 같다.

△明洞聖堂 및 主教館(명동2가1), △旧러시아公使館(貞洞 15의 3), △貞洞教会(貞洞34), △德壽宮静觀軒 과 石造殿, △樂峴聖堂(中林洞149), △竜山神学校 및 元嶠路聖堂(원효로4가1)

再開発地区, 新築엔 分離式 下水施設

漢江水質保全 위해 自然·生活水별로

1월22일 서울시에 따르면, 都心再開発事業区域内 大型高層建物이나 不良住宅再開発事業区域内 併立住宅을 건립시 自然水와 生活下水를 별도로하는 2개의 下水道 즉 分離式 下水道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이와같은 방침은 漢江水質保全対策의 일환으로 채택돼 확대 적용되는 시책으로, 서울시는 이미 79년에 150가구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分離式 下水道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고 또 금년들어 구획정리지구내 宅地정지작업시 二元化된 하수도시설을 위해 減歩率을 조정키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80년도 経済運用計劃, 緊縮견지 — 李무총리

成長率 3 — 5%, 物価上昇 27~28% 등

1월22일 李漢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崔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맞아 80년도 經濟運用計劃을 보고 하였

다.

올해 경제 운용의 主要指標로서 ▲경제성장율 3～5%, ▲도매물가상승율 27～28%, ▲소비자물가 상승율 22～23%, ▲總通貨증가율 20%, ▲통화증가율 15%, ▲수출 170억달러, ▲수입 225억달러, ▲經濟收支赤字 47억달러, ▲貿易收支赤字 55억달러, ▲失業率 5.3% (79만 2천명)을 제시하였다.

또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을 ▲국민기본 생활의 안정, ▲긴축기조의 유지, ▲국제수지의 방어, ▲고용 안정에 두겠다고 하였다.

서민생활안정의 세부 대책 중 건설과 관련된것을 추려보면 ▲주택 30만호 건설, ▲투기발생시 土地去來申告制 및 許可制 실시, ▲전세기간설정 등 賃貸住宅 入住者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 ▲賃貸料 과다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상하수도·지하철공사 확대 등 고용기회 제고 등이 보고되었다.

또 經濟外交는 原油확보노력 강화, 建設用役 및 産業設備輸出확대, 資源国의 개발계획 참여 등 中東進出을다양화하고 東欧등 未修交国과의 협력모색, 아프리카 등자원보유국에 대한 개발수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서울 등 6大都市 12萬坪에 綜合貨物터미널

올해 25億원 들여 설치—교통부

교통부는 1월23일 올해 6개 도시에 12萬坪의 貨物綜合터미널을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교통부는 貨物流通施設의 近代化를 위해 25億원의 資金을 지원, 금년내 부지를 확보하는데로 綜合터미널을 건설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교통부는 각 市道에 터미널建設支援資金 배정을 끝내고, 市道단위규모도 확정했는데 서울 2萬坪을 비롯 釜山 3萬坪, 仁川 1萬坪, 光州 1萬坪, 大邱 4萬坪, 馬山 1萬坪으로 되어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로 현재 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48개소 48,649평의 貨物터미널이 17萬坪으로 늘어나게되어 貨物自動車의 증가와 앞으로 늘어날 物動量처리가 원활하게 된다.

大企業 都給下限線 해마다 告示

職業訓練義務基準 등도 완화방침—崔建設

1월25일, 건설협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崔鐘浣 건설부장관은, 中小建設業体 육성을 위해 都給下限線을 建設業法施行令에 일정액을 못박기보다는 이를 탄력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이 해마다 일정액을 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建設業体의 직업훈련 의무기준과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을 각각 완화, 건설업체부담을 덜도록 하겠으며, 政府工事代金의 物価와의 連動制는 전체를 의무화하기보다 発注庁이 이를 반영케 하겠다고 말했다.

技能工 勞賃 25% 인상을

各種工事 物価連動制를 촉구—建協 崔会長

1월25일, 건설협회 崔鐘煥회장은, 올해 건설공사규모를 政府工事 1조9천억원, 民間工事 1조3천억원 등모두 3조2천억원 정도로 볼때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늘리기는 어려워도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정부가 말하듯이 技能工勞賃을 15% 이내에서 억제하기 어려우며 기능공은 25%, 사원급 기술자는 20%이상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換率·金利引上조치로 16%의 物価上昇要因이 발생한 까닭에 계속공사에 대한 物価連動制 조항을 적용하는 등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 기술자보유의무를 6명 정도로 완화 (현재 10명)하고,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도 도급한도액 기준 30억원(현재 10억원)으로 인상하고, 中小建設業의 육성을 위해 官民合同 建設業政策 審議会를 마련, 제도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業界에서도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住宅시스템開発, 住宅賃貸業의 企業化

高速道路 증설, 内譯入札制등—건설부 방침

건설부는 首都圈人口를 현수준으로 계속 억제하고 地方據点都市를 인구 100만 이상으로 중점 육성하는 한편, 서울·京畿道·江原道鉄原郡 일원을 묶는 首都圈整備計劃을 年内에 확정할 계획이다.

崔鐘浣 건설부장관은 1월28일 崔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不動産投機 억제를 위해 基準 地価告示地域을 점진 확대하고 土地去來許可 및 申告制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또 국민의 住居生活安定을 위해 값싸고 편리한 새住宅시스템(모델 80)의 開発, 住宅賃貸業의 기업화를 꾀하고, 住宅投資를 対GNP 6%선을 견지하며 올해 民間 및 公共部門에서 총 2兆7,926億원을 들여 30萬가구의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80년대 長期計劃으로 中央縱断(大邱～安東～原州～春川)·東西横断 2個路線(群山～全州～居昌～永川～浦項)·西海岸縱断(仁川～牙山湾～群山～木浦)등 4개의 高速道路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인 光州圈綜合開発을 82년까지, 済州 綜合開発 및 智異山·德裕山地域開発은 83년까지 完了하고, 半月新都市建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특히 国内建設技術의 国際化를 위하여 外国業体와의 合作 등 先進技術 導入을 촉진하고, 工業入札 制度는 最低落札을 지양, 工事物量 및 図面 제시에 의한 内譯入札制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노동청—50인 이상 고용 事業場에
食堂·寄宿舍·運動施設 등 설치의무화

1월28일 노동청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시설 확충을 위해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035개소에 대해 食堂·救護·娛樂·運動施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5,246개소)에 대해서는 종업원 출퇴근에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지시했다.

또 鉱山·工業団地内 事業場중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寄宿舍·沐浴施設·医務室·購販場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住宅賃貸業의 産業化 추진—건설부
심화되고 있는 住宅難 완화를 위해

1월29일 건설부에 의하면,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완화책의 일환으로 住宅賃貸業을 산업화하고 이를 육성 하기 위해 税制 및 金融上의 支援方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부는 賃貸家屋入住者 保護法을 제정하여 소극적인 무주택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전망의 불투명으로, 無住宅 庶民 및 住宅建設業者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나가기로한데 따라 취해지는 것이다.

全国平均 住宅普及率이 76.7%에 그치고있는 현실정을 감안할때 연간 48萬戸의 주택을 91년까지 공급해도 주택공급율은 90.2%에 이르게될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금년 주택건설계획은 30萬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住宅賃貸業의 産業化는 1家口 1住宅을 원칙으로하고있는 현행 住宅政策과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정책이기때문에 앞으로의 시책방향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두리지역에 25개 市場·百貨店 신설—서울시
7개지역은 이미 垈地 확보

1월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변두리지역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5개소의 市場·百貨店·수퍼마켓등을 신설하고저 대지를 물색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미 江西区의 新亭洞·木洞·禾谷洞·新月洞·江東区의 城内洞·蚕室洞·江南区의 清潭洞 등 7개 지역의 시장 대지를 확보하였으며, 한편 현재 일반인 시장개설희망자의 신규개설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여건에 맞으면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立地條件으로는 江南全域과 江北地域은 도심반경 5km 밖이어야하며, 최소대지면적은 300평 이상에다 駐車場시설을 위해 45평당 1대꼴의 공지를 요한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의 개설촉진을 위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운 10億원의 流通近代化 財政資金을 상공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石油類값 59.43%, 電力料金 35.9% 대폭 인상
도매물가에 끼치는 영향 11.7%

정부는 1월29일 0시를 기해 国内 石油類 가격을 평균 59.43%(공장도 가격) 대폭 인상했다. 이와함께 電力料金도 평균 35.9% 올려,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석유류가격 인상요인은 原油가격 인상분이 29.98%, 換率調整에따른 직접요인이 24.93%라고 말하였다.

또 이번 인상이 도매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11.7%라고 분석했다.

독과점품목등 물가 대폭 인상 조치
시멘트 36%, 철근 16.58%, 판유리 33.9%

정부는 1. 12환율 및 金利引上 조치와 1. 29油類 및 電力料金의 인상조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상승을 반영, 35개 독과점품목 전부(2월1일부터)와 일부 교통요금 (5일부터)을 인상하였다. 따라서 철근 16.58%(182,582원→212,850원), 형강 19.1%(176,067원→209,634원), 판유리(맑은 유리B급) 33.9%(상자당 8,375원→11,218원), 시멘트 36.0%(1,132원→1,539원) 인상되었다.

막대한 熱損失, 빌딩 42%, 住宅 60%
断熱材 사용, 보일러改替등 시급—熱管理協

1월31일 韓国熱管理協会가 최근, 전국의 170개 公共建物 및 60개 一般建物을 대상으로 조사한 熱管理実態에 따르면, 公共建物은 38.8%(보일러 12.1%, 건물 26.7%), 호텔·아파트·병원 등 일반건물은 44.4% (보일러 7.6%, 건물 36.8%)의 열손실을 나타내 열관리가 허술한것으로 분석하고, 断熱材사용, 廃熱回収老朽보일러 改替 등 철저한 열관리를 실시한다면 연간 연료 소비량 약 60萬배럴에서 약25萬배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또 약 550萬棟에 달하는 単独住宅의 경우 열손실율은 60%로 추산했는데, 열손실 경로는 外壁 26%, 窓戸 22%, 바닥 13%, 환기장치 8% 등으로 조사 됐는데 室内温度가 4℃ 정도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이상적인 열관리를 꾀한다면 사용연료의 50%를 절감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열손실은 외국의 예에 비해 3배 이상 높은것이라 했다.

이밖에도 대형건물에는 室內溫度를 관리할 시설이 전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빌딩중 가장 열관리가 좋은것으로 꼽힌 서울 D빌딩의 경우 煖房自動制禦室이운영되고 있고, 外壁에 단열재 사용, 태양열 흡수 유리의 사용, 회전식 현관문의 사용등으로 연간소비량이 5.3ℓ/m² 인데, 이것은 기타 230개 건물의 평균값 15ℓ/m²의 1/3정도라고 했다.

일부 綠地地域을 住居地域으로 건의

宅地難 解消策의 일환으로—土開公

1월31일 土地開発公社(사장 柳根昌)은 住宅価格에 있어서 宅地価의 비중이 64%에 달하고 특히 年平均 住宅価格上昇率은 14.5%에 불과하지만 이에 비해 宅地 価格上昇率은 약 39.5%나 되어 宅地의 供給量 확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 등 大都市 주변의 宅地開発可能地는 5,500萬坪에 불과하여 86년까지 宅地需要量 1億1,000 萬坪에 비해 宅地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土開公은 大都市 주변의 綠地地域 378개 지구 4,400여萬坪은 大單位 宅地開発의 適地로 지적하고 宅地難 緩知策의 하나로 이들 地域을 住居地域으로 用途変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民願業務 불편없게 法令도 과감히 改廢

申總理, 行政改革委 등에 지시

申鉉碻국무총리는 2월1일, 앞으로 모든 認·許可를 포함한 民願業務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权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法令등은 이를 과감하게 改廢하는 등, 対民 業務 전반에 걸쳐 改善作業을 하도록 行政改革委員会를 비롯한 全 行政機関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行改委는 국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民願事務 중 다수국민의 불편대상이 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改善함과 아울러 경제단체 등 전국 100개 同業者 단체에도 民願事務改善에 관한 협조공한을 발송하고,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建築士처벌, 73명 停業·50명 警告

무단증축·용도변경등 묵인—서울시

2월1일, 서울시는 위법사항을 묵인한 53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73명에 대해 1년~1개월씩 營業停止 処分하고, 50명에 대해서는 警告処分하였다.

건축사에 대한 이같은 무더기 처벌은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건설부로부터 각 시도에 이양된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처벌한것으로, 이들 위반건축사들은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때 3명의 건축사가 연서하는 제도를 악용, 건폐율·용적율을 위반하고, 무단용도변경, 무단 증축, 건물간의 소정거리를 확보하지않은 위법건축물을 준공해준 건축사들이다.

처벌내용은 1년간 영업정지 2개소, 6개월 영업정지 2개소, 4개월간 9개소, 3개월간 12개소, 1개월간 28개소이다.

大企業 都給下限線 신설 등

中小業体 육성—개정建設業法 발효

2월4일부터 발효될 개정 建設業法은 일정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大企業体가 受注할 수 없도록 하는 都給下限線制度를 신설하고 있으며, 下都給의 경우 元都給者의 代金支払時期를 工事代金 수령일로부터 30日 이내로, 下都給代金支払時期를 法制化하는 등 中小建設業 을 보호 육성키로 하고 있다.

또 建設業免許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자가공사 범위도 特殊建築物의 경우 종래의 250평에서 150평으로, 一般建築物의 경우도 350평에서 200평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他市道로 영업소재지 이전이 가능했던 單種免許業者의 이동가능조항도 삭제, 단종 면허업자의 타시도 이전을 금지, 지역적으로 中小業体의 도급 영역을 확보해주고 있다.

서울 釜山의 区庁長에게 條例·規則制定権

大都市는 別定市로—内務部 검토중

金鐘煥 내무부장관은 2월6일 연두순시한 崔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도시행정의 합리화와 주민 편의를 높히기 위해 都市行政制度를 연내에 연구 개선 하겠다고 하였다.

즉 올해 大邱·仁川·光州·大田 등 인구 50만 이상의 大都市를 準直轄市 성격의 別定市(가칭)로 정해 市長权限을 대폭 강화하고, 서울市와 釜山市의 区庁長에게 予算編成权과 條例·規則의 制定·改正 등의 권한을 줄 방침이다.

내무부가 검토중인 別定市는 日本의 指定市와 비슷한 것으로 大都市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都市計劃 및 上下水道事業·糞尿 및 終末処理場施設 등과 같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이 없거나 부족한 관할 道의 중간 관여 없이 직접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釜山지역 煉炭使用家口 95.1%

家口当 연간 1,442.2개 사용—기획원

2월7일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가 国会에 제출한 서울·釜山의 家口別 煉炭消費実態에 따르면

연료사용가구실태 연탄·유류 겸용

	연탄 사용	유류 사용	연탄·유류겸용
서울	95.1%	3.4%	1.5%
釜山	95.3%	2.6%	2.1%

또 난방방식별로 보면, 연탄아궁이 71.2%, 연탄 보일러 15.0%,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혼용 8.9%로 나타났다.

한편 動資部가 작년 11월, 서울·釜山地域의 연탄사용 28,201家口를 대상으로 標本調査를 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방수와 연탄소비량(연간)

	평균 방수	연 탄 소 비 량
서 울	2.7 개	1,550.6 개
釜 山	2.5 개	1,167.0 개

또 建坪규모별로 연탄사용량을 보면 △10평 미만 1,065.9개, △10~15평 1,320.3개, △16~20평 1,555.7개, △21~25평 1 855.4, △26~30평 1,824개, △ 31~40평 1,850개, △41평 이상 1,984.8개로 되어있다.

서울의 産業体·가정, 에너지낭비 연간 781億원

低質보일러, 漸熱不実, 白熱燈이 원인

2월7일,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地域의 熱損失量 및 原因別 分析結果에 따르면, 산업제조업체 및 가정용 일반건물에서 쓰는 보일러의 시설노후 등으로 낭비되는 油類는 연간 15萬8千kℓ로 이를 환산하면 219億원이 된다.

또 任來式 연탄온돌의 경우 낭비되는 열량은 35%로서 이를 연탄값으로 치면 연간 423億원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地域의 연간 에너지消費量을 石油·石炭·電氣 등으로 나누어 종류별 열손실율을 추정한 결과

△産業用보일러의 경우, 공기비 조정, 불안전 변소, 보온불량, 조업공정개선 미비 등의 9가지 사유로 인해 熱効率이 정상기준치인 86%에서 9.6%라 떨어져 연간 86,200kℓ가 낭비되며

△가정용, 일반건물의 경우는 폐열회수불량, 시설노후 등으로 정상기준치인 84%에서 9.3%의 열손실율을 나타내, 연간 71,700kℓ가 낭비된다.

△재래식 연탄온돌의 경우, 열효율이 30%에 불과하며, 이를 표준온돌이나 온수온돌로 고치면 열효율을 60~70%로 높힐 수 있어 연간 2,395,000t의연탄을 절약할수있다

節電実行으로 서울지역에서 절약할 수 있는 電力은 연간 3億3千萬kw로 추산되는데, 이는 △100w 白熱燈을 30w螢光燈으로 대체하면 2億320萬kw, △電燈의 먼지를 제대로 털지않아 손실되는 12%의 전력이 3,423萬kw, △1家口 1燈끄기로 하면 9,379萬kw 등으로 분류된다.

新築建物에 螢光燈설치 義務化—

商街·接客業所 白熱燈 사용을 규제키로

서울시는 2월8일, ▲신축건물에 대해 螢光燈 설치를 의무화하고 ▲市内 商街와 食品接客業所, 劇場의 白熱燈 사용을 규제, 行政指導를 통해 螢光燈으로 바꾸도록 하고, 일반가정(160萬家口)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며 ▲사치성업소에 대해서는 週1回 休日制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消費節約方案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29조치에 따른 에너지節約策으로 마련된 이 방안은 또 ▲共同住宅에 熱量調節器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油類보일러施工義務를 없앴으며,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 운행간격(5층이한 금지)을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넓혔다.

白熱燈 사용규제(設計製図·計算業務 제외)는 일반가정의 경우 계몽활동으로, 商街와 工場등은 行政指導를 통해 추진키로 하는 한편 新規建物에 대해서는 建築法施行 規則을 고쳐 螢光燈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민학교 階段에 惨事, 개학 첫날에

부산 竜湖校에서 5명 숨지고 18명 重軽傷

국민학교 개학일인 2월11일 부산시 남구 용호국민학교에서 朝会에 참석하려 계단을 내려가던 어린이들이 넘어져 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는 조회 종소리를 듣고 南舘 4층 20개 교실에 수용된 1,600여명 중 2~4층에 수용된 1,000여명의 어린이들이 폭 1.9m의 좁은 계단을 통해 몰려나오다 2층과 1층 사이의 가파른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어린이가 넘어지고 뒤따르던 어린이가 그 위를 덮쳐 일어났다.

특히 이 교사는 비현실적인 의무교육시설때문에 4층 20개 교실의 교사에 계단을 1개소밖에 두지못하였다고한다. 사고가 난 1층계단은 디딤면 너비295 cm 인데, 첫단은24.5cm로 좁은데다 단높이는 다른 단보다 4cm나 높은 15cm로서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학교 계단에서의 사고예는 76년 3월 大邱 東川校, 75년2월 서울 金北校에서도 특히 개학일에 있었다.

太陽熱做宅 2,200채 建設추진 —動資部

支援資金도 110億원으로 대폭 늘려

2월11일 動資部에 따르면 太陽熱利用住宅을 당초 900채 계획을 대폭 늘려 단독주택 1,200채, 연립주택 1,000채 등 모두 2,200채를 건설키로하는 한편, 国民学校 10개교에 10개 교실씩 모두 100개 교실을 태양열이용 교실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79년에는 10億원의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융자규모를 110億원으로 대폭 늘려, 40평 이하의 태양열주택 건립희망자에게는 太陽熱施設 추가비용(평당 10만~15만원)을 덧붙여 융자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断熱材 사용 의무화 규정을 대폭 강화, 25㎜인 유리솜의 두께를 50㎜로 할 방침이다.

또한 太陽熱 機資材 메이커에 대해서는 産銀의 일반시설자금 300億원을 우선지원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医療脆弱地区에 30개병원 2,170개病床 건립
施設費등 支援, 聯合病院형태권장－보사부

2월11일, 保社部는 80년도 医療脆弱地区 및 民間病院建立 支援計劃을 확정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의료취약지구 중 宜寧 50病床, 河東 80病床 외에 의료취약지구와 지방 중소도시에 28개 民間病院 2,040개病床 등 모두 30개 지역에 2,170개病床규모의 병원을 건립키로하고 이에 따른 財政支援은 病床当 건축비 1,000萬원, 장비구입비 1萬달러씩으로 각각 확정했다.

保社部는 이 계획에 의한 病院級 의료시설 설립자는설치지역내의 여러명의 개업의사 등으로 구성되는 연합병원 형태의 医療法人을 설치토록 하고, 綜合病院級은 대도시에 있는 민간종합병원, 사립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지방장관이 적격자로 추천하는 医療法人의 계열병원으로 설치 토록 했다.

서울市庁·教委·市警－江南으로 移転
83년까지 綜合庁舎건립, 鄭市長 보고

서울시는 현재의 도시형태가 光化門을 중심으로한 単核都心機能으로 都心人口 및 交通人口의 集中과 이에 따른 혼잡으로 지금의 市庁舎에서는 市行政의 중심적 機能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江南地域에 이전장소를 결정해 市教育委員会와 市警察局이 함께 들어설 市庁綜合庁舎를 건축하기로 했다.

2월12일 鄭相千시장은 서울시를 연두순시한 崔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市庁移転計劃을 밝히고"곧 이전대지를 확정 올해안에 새綜合庁舎의 設計를 끝내고 총 500億원의 공사비로 81년에 착공, 83년까지 완공하며 이 대지 안에 현재 분산되어있는 市教委와 市警 청사도 건축, 함께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하였다.

鄭시장은 현 청사는 철거, 이 대지 4,493坪에 都心公園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市庁移転과 함께 서울의 都心機能再整備에 나서 통일된 首都로서의 기능에 대비하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副都心을 개발 형성하여 多核都市 형태가 되게하고 ▲職住近接되게 생활권별로 시설을 적정 배치하며 ▲電鉄網을 확장하는 한편, 도로는 현재의 都心集中 放射型에서 格字型이 되게한다는것 등이다.

鄭시장은 이 都心機能整備를 위해 79년3월 都市基本計劃研究作業団을 구성, 基本計劃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오는 4월의 公聴会와 6월의 国際세미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시 새綜合庁舎대지 瑞草洞3万坪확정
3월에 移転推進委발족－서울시

서울시는 2월19일 "公用의 庁舎"대지로 지적 고시(1월29일)한 서울江南区瑞草洞967 일대 3萬坪을 서울市綜合庁舎대지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3월부터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한 市庁移転推進委員会를 구성,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 추진위원회는 都市計劃, 財務등 관계국장을 위원으로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며 새청사가 들어설 土地 補償問題, 현청사와 대지의 활용방안 등의 문제를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새庁舎의 設計는 사용자측인 서울시가 庁舎設計의 골격을 갖춰 公聴会를 열어 학계와 건축전문가 각 대표의 자문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冷煖房기준, 겨울18℃이하, 여름28℃이상
위반시 断電등, 보일러代替도 추진－에너지節約方案

2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소비절약에추진계획 및 "에너지소비절약 강화대책"에 따르면, 겨울철에 18℃ 이하, 여름철에 28℃ 이상의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아파트에너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관리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일러효율을 제고시키며 창문의 2중창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住宅에너지節約을 위해 家口別 積算熱量計의 부착을 철저히 이행시키며, 新築아파트·호텔·대형빌딩에 自動温度 調節装置의 부착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冷煖房制限基準을 제정, 행정규제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이러한 표준실내온도(겨울18℃ 이하, 여름28℃ 이상)를 어기는 경우에는 사용연료 및 電気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産業·繊維·化工·金属·製紙·食品 등 大企業 806개 업체에 대한 에너지節約調査結果 전체 연료사용량(벙커C유)의 76.2%

률 차지하면서도 열손실율은 21.5%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2,275億여원을 投入, 熱設備運転管理의 合理化등을 이르도록 하며, 熱管理法에 따른 是正命令权을 발동, 에너지 낭비를 규제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났거나 또는 열효율 70% 미만 노후보일러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국민투자기금 40億원, 중소기업 특별자금 30億원 등 70億원을 상기저리로 융자, 보일러代替事業을 벌이도록할 방침이다.

建設技術開発의 促進方案 검토 - - 건설부

技術補償制度, 政府工事契約方式 改善도

2월13일 建設部에 의하면 그간 건설기술분야는 契約制度의 硬直性 및 技術開発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결여등으로 새로운 기술개발분야가 적지않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技術補償制(설계·시공기술개발)를 제도화하고, ▲工事契約上의 開発費를 法的으로 인정하는 외에, ▲터언키이(turn-Key) 発注方式을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보완▲内訳入札制度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建設部는 건설기술체제를 개편,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技術 및 設計審査制度의 강화 및 보완방안으로 建設部内에 次官補級 機構를 신설, 이러한 업무들을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하는 職制改編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57개 교실 증설해야, 中学도 二部制걱정

획기적 지원책 없으면, 학급당 70명초과

2월15일 문교부에 의하면, 금년도 국민교 졸업 87만4천명이 내년에는 93만4천명으로 늘고, 중학 진학율도 97%로 늘어 중학진학은 90만6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진학생 증가분 7만4천명을 70명 학급으로 하더라도 1,057개교실이 증설되어야 한다.문교부는 올해 46개교(297학급)를 신설하고 기존교에 37개학급을 증설하는 등 모두 333학급을 늘렸으므로, 내년에는 이의 3배규모를 늘려야 그나마 과밀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문교부는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지만 추가수요의 절반수준인 500개학급을 신 증설하는 정도로서 낙찰될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예산확보 외에 대지 확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給水難으로 아파트建設 차질 - 서울 81년 이후 · 竣工조건부 新規承認

서울시는 2월15일, 금년 아파트建設事業 新規申請에 대해 준공시기로 81년 이후로 연기하는것을 조건부로 사업승인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八堂·九宜등 8개 水源地에서 생산하고있는 日当 307萬t으로는 다량사용처인 아파트 団地에 더 이상 급수할 수 없는데다, 금년 증산키로한 20萬t은, 연말경에야 급수할 수 있기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파트建設業体에 대해 금년 아파트建設地域과 規模를 미리 선정해 建設立地申請하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급수사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금년 水道管拡張工事가 이뤄지는 일부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와 79년에 事業承認된 9,800가구분 및 市営아파트 5,000가구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81년 1월 이후에 준공, 입주토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給水量이 적은 単独住宅이나 소규모 聯立住宅건설에 대한 규제는 없다.

都市가스工場 4개로, 82년까지 95万家口에 공급

85년까지 빌딩·商業地区 난방도 - 서울시

서울시는 정부의 都市燃料転換施策에 따라 오는 82년말까지 都市가스 江西工場(江西区木洞)과 江南工場(江南区大峠洞)의 시설용량을 대폭 늘리는 외에 東部工場(城東区松亭洞)과 西部工場(恩平区鷹岩洞)을 신설, 4개 都市가스工場에서 하루 96萬m^3를 생산, 82년 말부터는 서울市内 全家口의 55%인 95萬家口에 都市가스를 공급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는 연탄을 점차적으로 都市가스 또는 LP가스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83년 이후 85년까지 都市가스 공급시설을 계속 확대, 唐人里火電의 연료도 가스로 전환하는 등 産業用 都市가스를 공급하며, 都心地 公共機関·大型빌딩 등 商業地区의 煖房에도 현재의 油類대신 都市가스를 공급, 媒煙과 굴뚝公害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都市가스 확대공급계획은 지난번 大統領 年頭巡視때 별도로 보고된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스工場 신설 및 확장에 소요되는 工事費 670億을 民資로 충당할 방침이다.

建築副資材에 "품"자 표시 義務化 추진

자물쇠등 50品目대상 - 공업진흥청

2월16일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자물쇠등 50개 종목의 建築副資材에 대해 우수품질 표시인 "품"자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KS표시가

된 시멘트·철근 등 主要建築資材 외에 건축부자재의 품질이 나빠 수요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일정한 규격과 품질규정없이 생산 규격통 판매됨으로써 통일을 기할 수 없기때문에 규격을 마련, 우수품질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공업진흥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적용,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내달 중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품"자 표시를 의무화할 건축부자재는 다음과 같다.

△도어로크 5종, △도어클로우저 5종, △자물쇠 5종, △문도르래 5종, △화장실용구 5종, △정첩 2종, △안전보조쇠질이 3종, 위생용 도기 및 쇠붙이 10종, △거울받침 1종, △방수고무 1종, △세시크레신트 3종

不動産投機 강력制裁, 紹介業 許可制로

현 紹介宮業法 폐지, 不動産仲介業法제정 추진

2월18일 당국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를 사회의 건전한 규범을 깨는 행위로 단정하고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制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가 일부 악덕 부동산소개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조장되고 있고 이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감안 현행 "紹介宮業法"을 폐지하는 대신 不動産仲介業法"을 제정, 부동산중개업을 申告制에서 許可制로 전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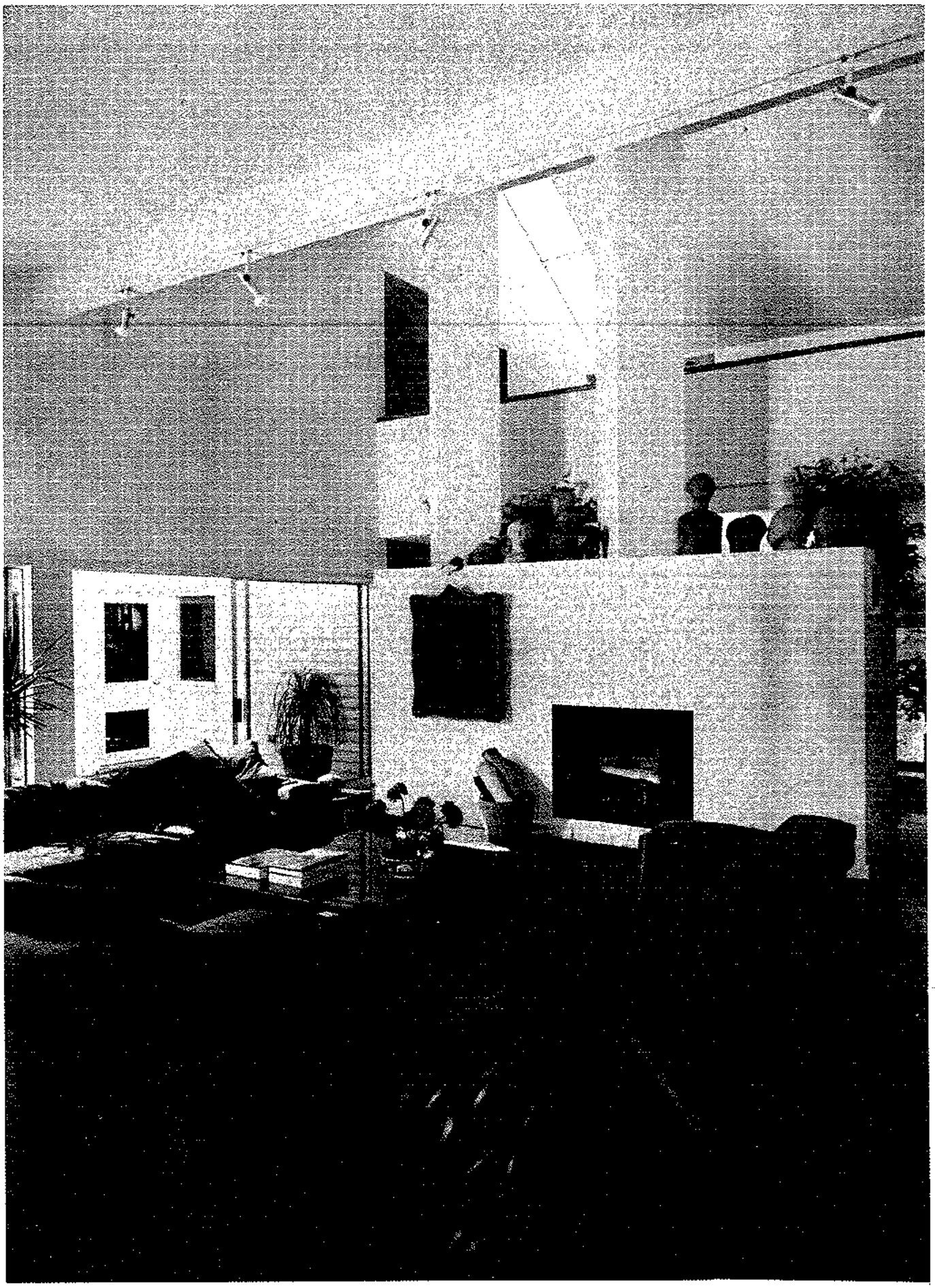
경제기획원은 건설부·내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3~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소개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무부가 성안중인 이 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仲介法人·介仲士·仲介人 등 3종으로하고, 仲介 法人을 국가시험을 거쳐 일정자격을 취득한 仲介士를 고용 해야 한다

서울汝의도에 60층 빌딩 起工

총工事費 3000여億원 投入 - 大韓生命

2월19일, 大韓生命은 총공사비 305億을 들여 서울 여의도에 国内 최대의 60층 빌딩을 세우기로하고 起工式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地下3층 地上 15층의 빌딩을 세우기 위한것으로, 이는 大韓生命이 그동안 추진해온 60층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1차 목표의 착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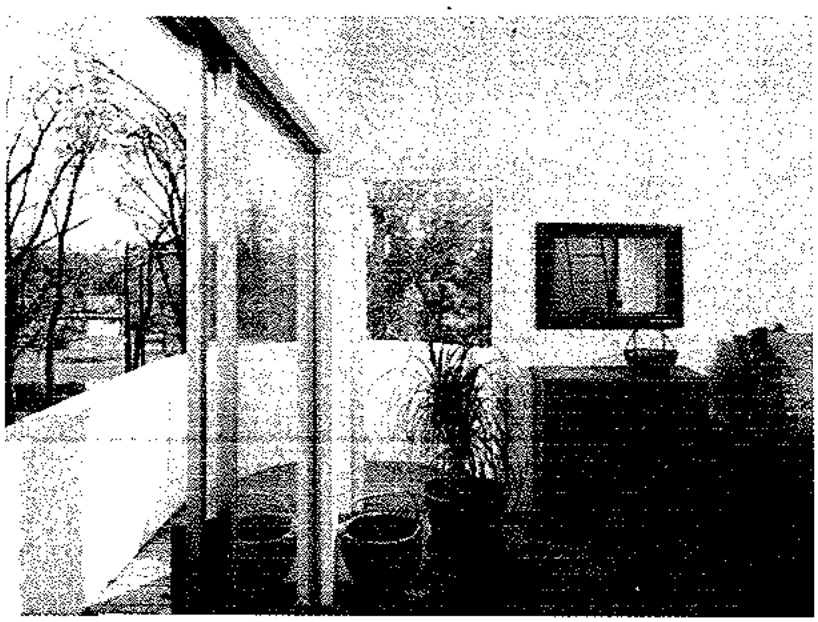


응 접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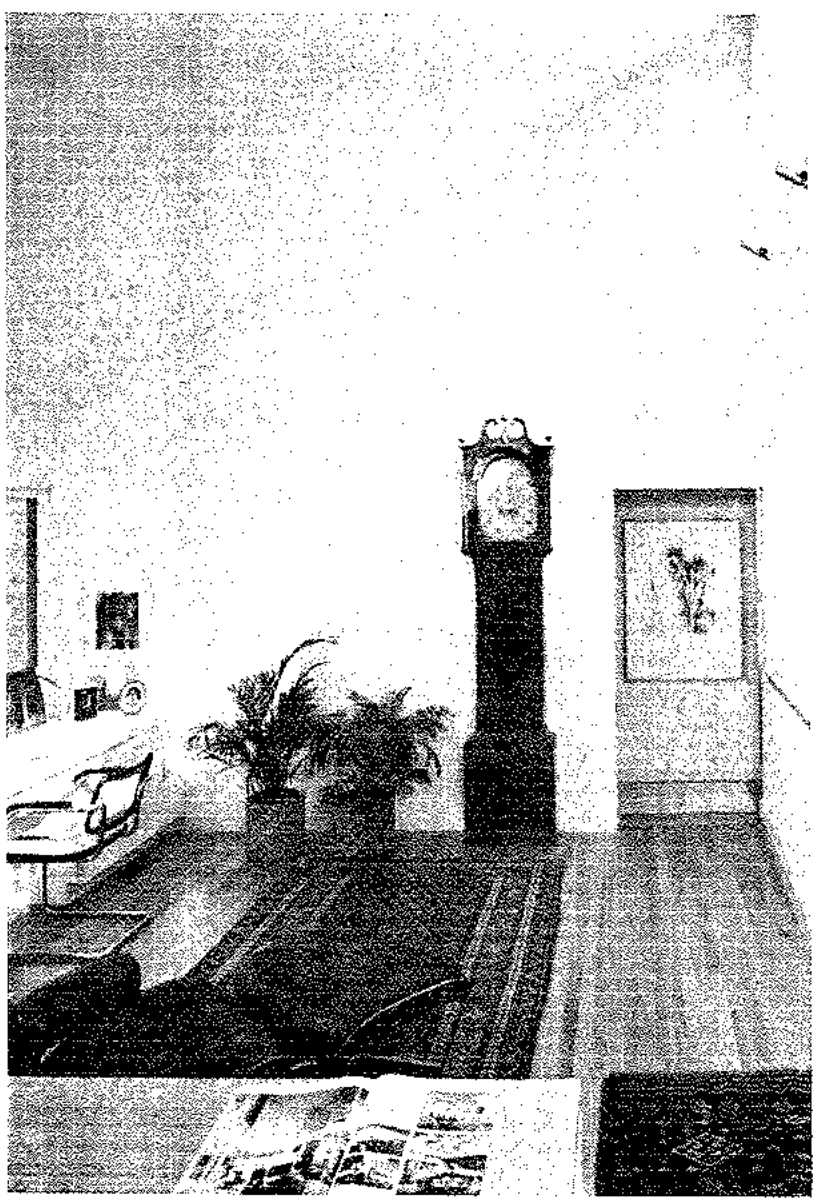
딕손씨의 住宅

概要　設計：CRISSMAN & SOLO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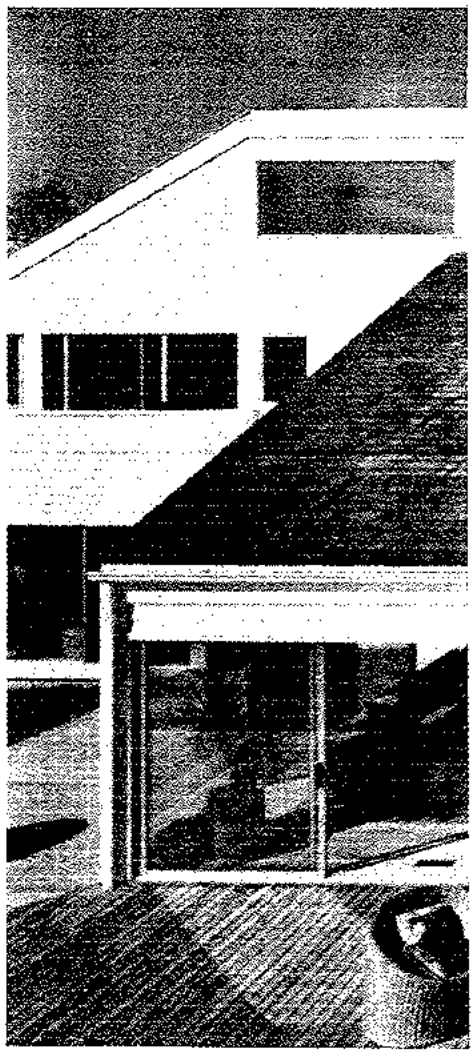
西等全景



2 층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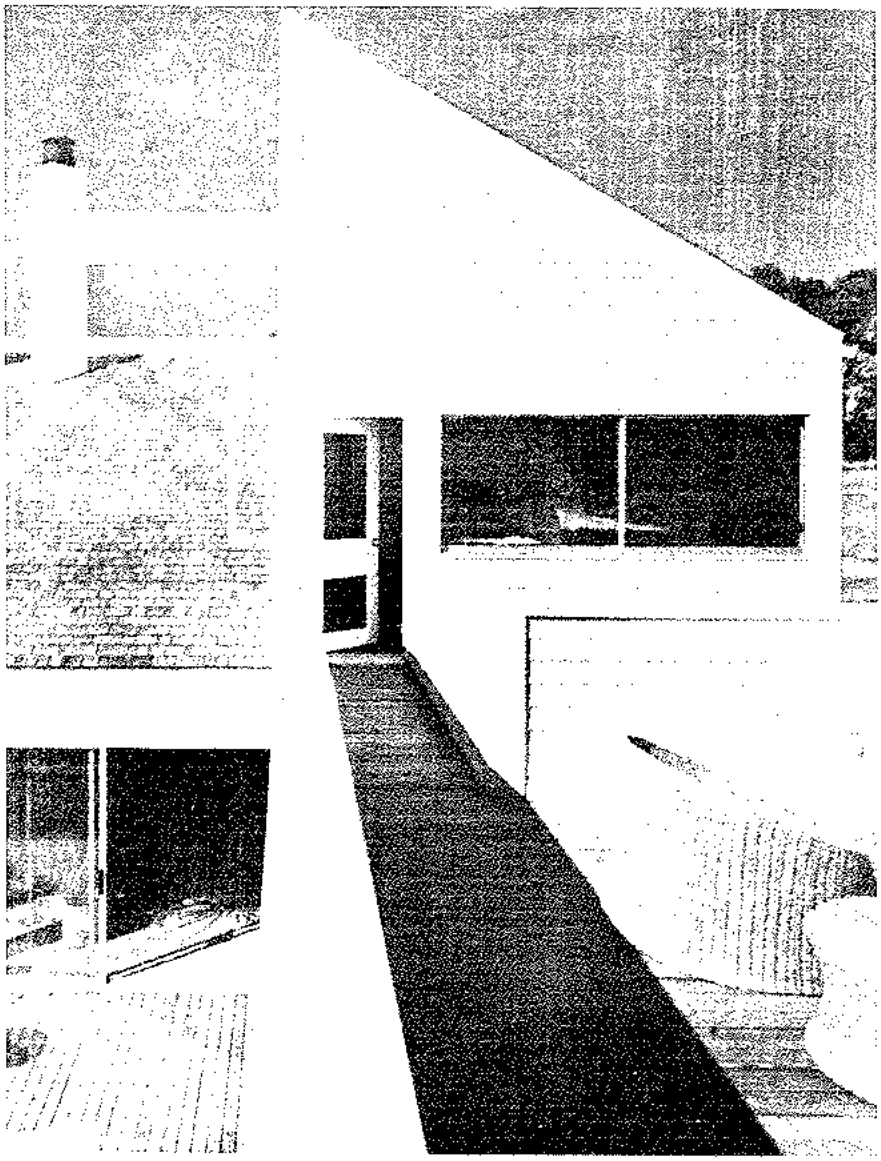
서 재



2 층 멕크에서 본다

식 당

포 - 치



農家의 外形을 살려 現代的 住宅을 実現

이 住宅은 미국 東海岸 뉴저-지州 뉴-바논의 田園地帶에 建築되었다.

아주 農村的인 外観, 허름한 곡간 같은 勾配의 지붕 등을 지닌 이 집은 그런데로 용도는 純粋하게 現代 生活을 하는 家族을 위한 住宅인 것이다.

実際, 風土를 느끼게 하는 形態도 멋 있게 트인 창틀의 調和 洗練된 상세의 마무리를 보면 디자인自体도 現代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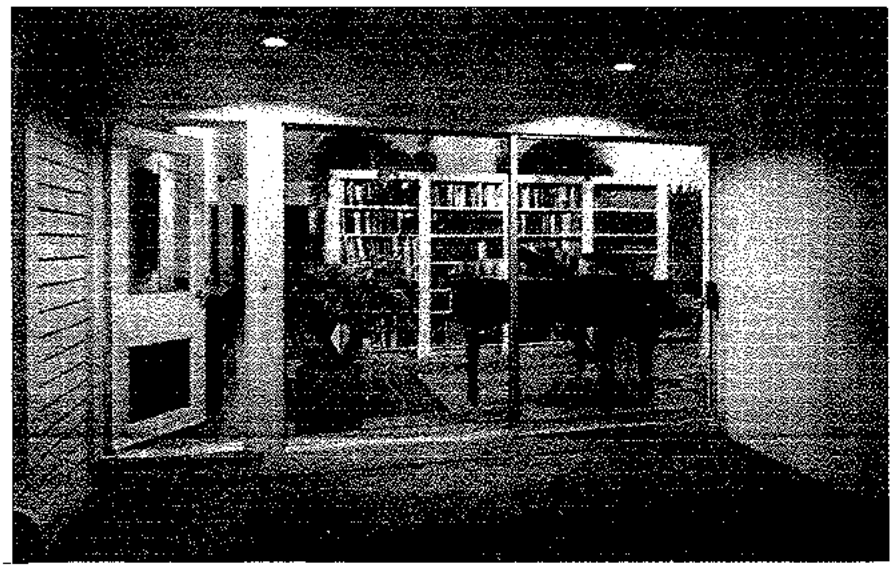
5人 家族인데 어느덧 두子女는 独立했고 両親도 旅行이 잦아 거의 텅 빈 상태로 여유있는 生活空間으로 되 있다.

暖炉와 높은 吹抜을 가진 응접실, 屋上이 썬덱로 되여있는 別棟의 포치 2층 침실 각기에 배로된 지붕방등, 各様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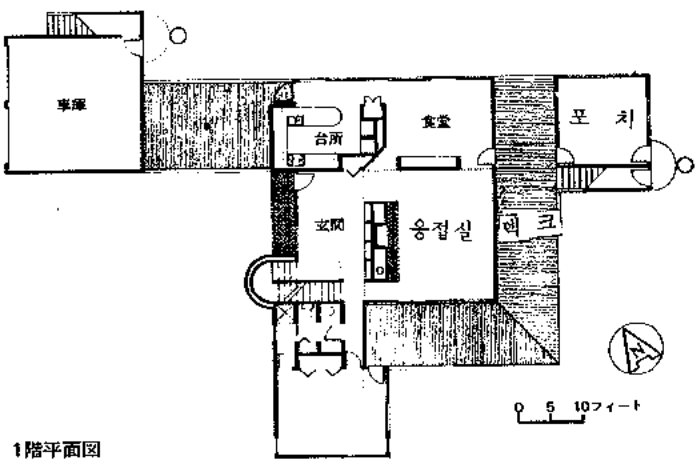
周囲의 景観은 어느쪽이고 탁트인 곳이나, 특히 응접실의 対角線上이 멋이 있고 計画上의 커다란 軸이 되고 있다.

外装은 下見板 바르기 曲線部도 멋진 마감으로 한편 内装은 石膏보-드로 마감처리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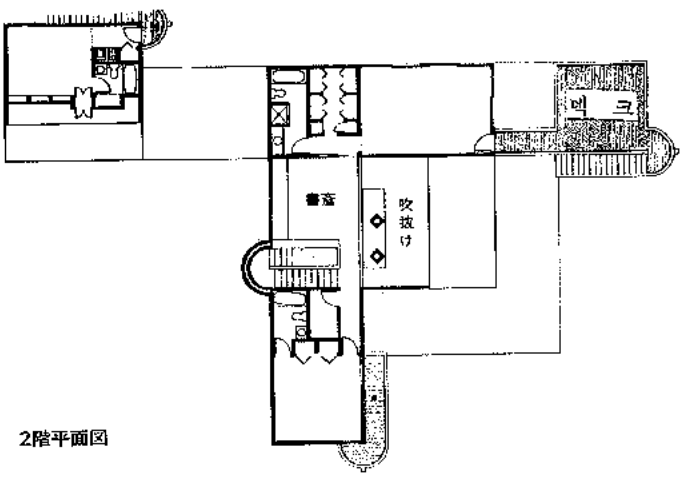
서재에서 응접실을 내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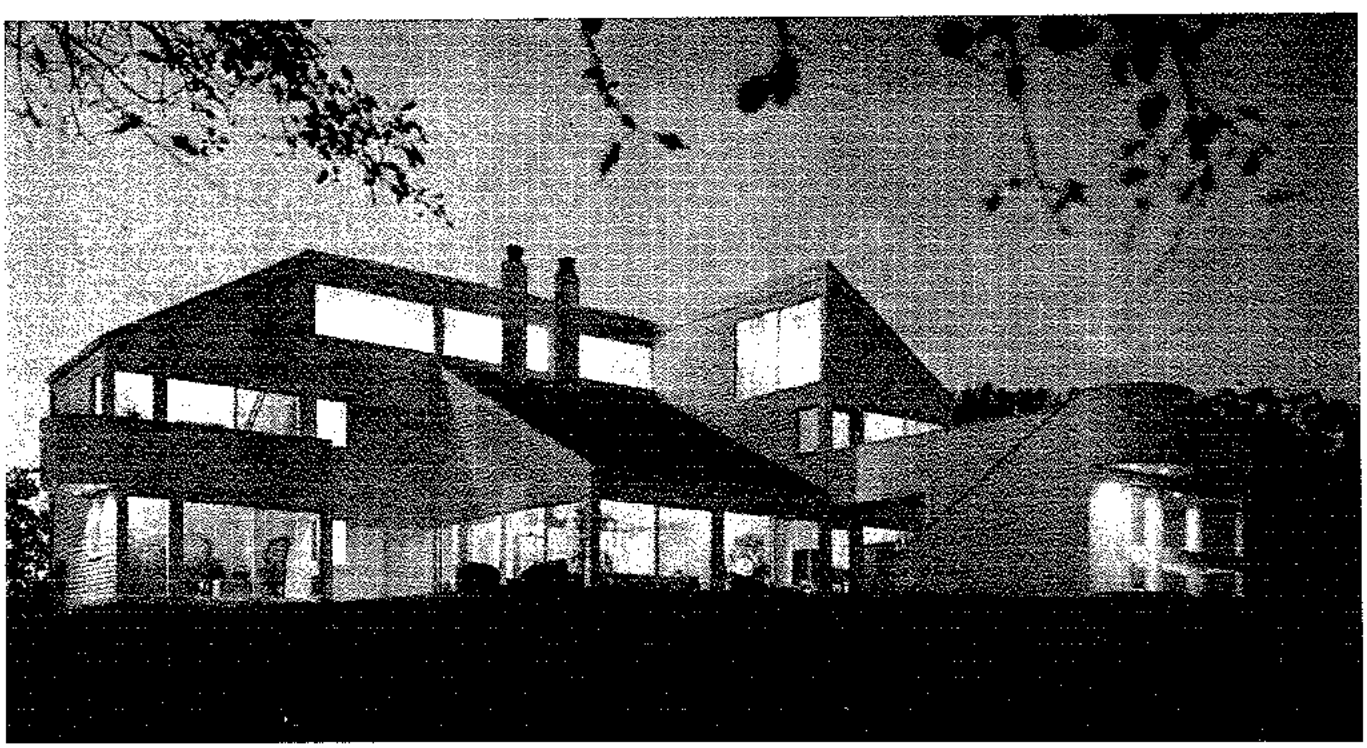
현관(음악실을 겸하고 있다)



1階平面図



2階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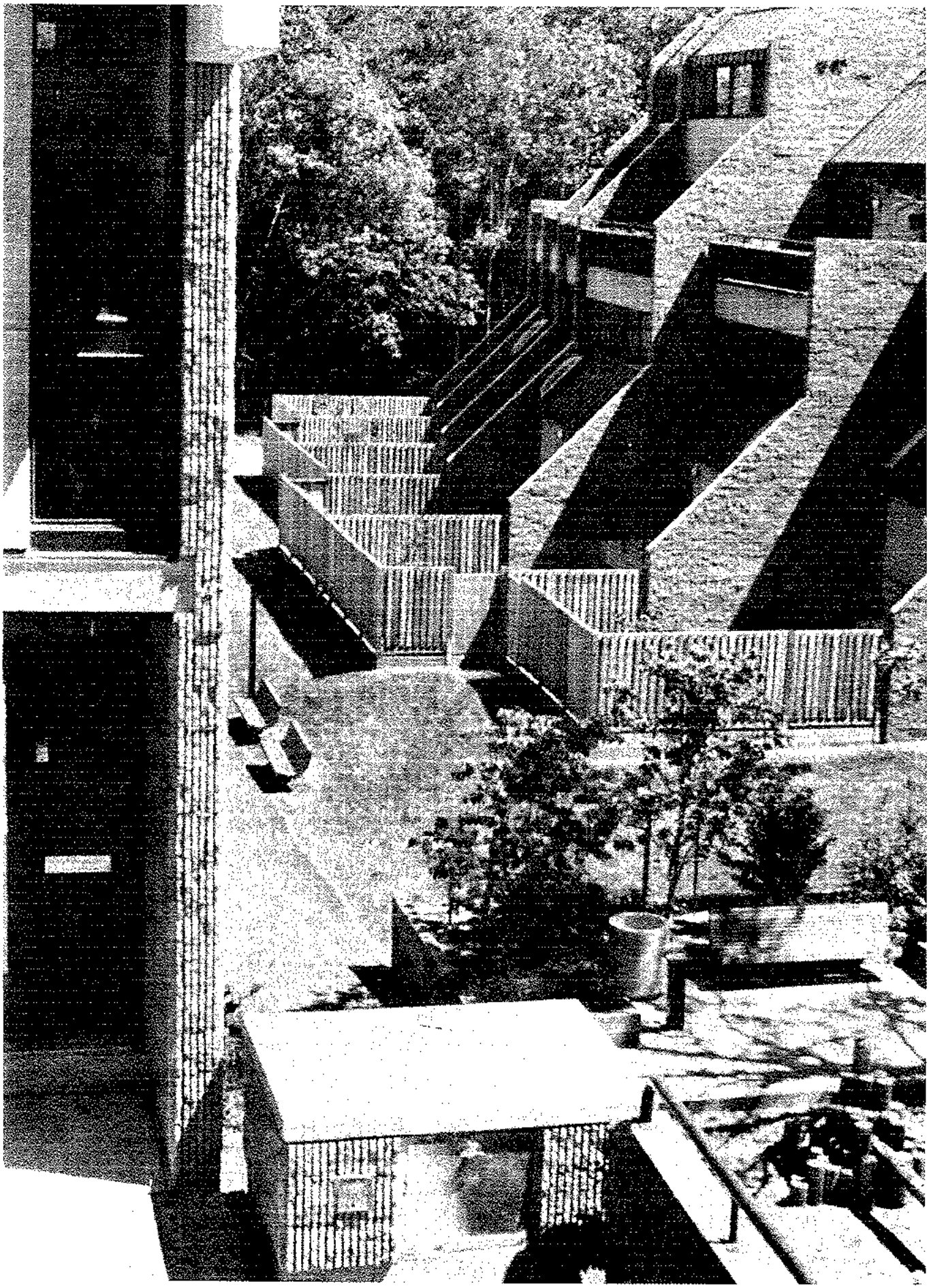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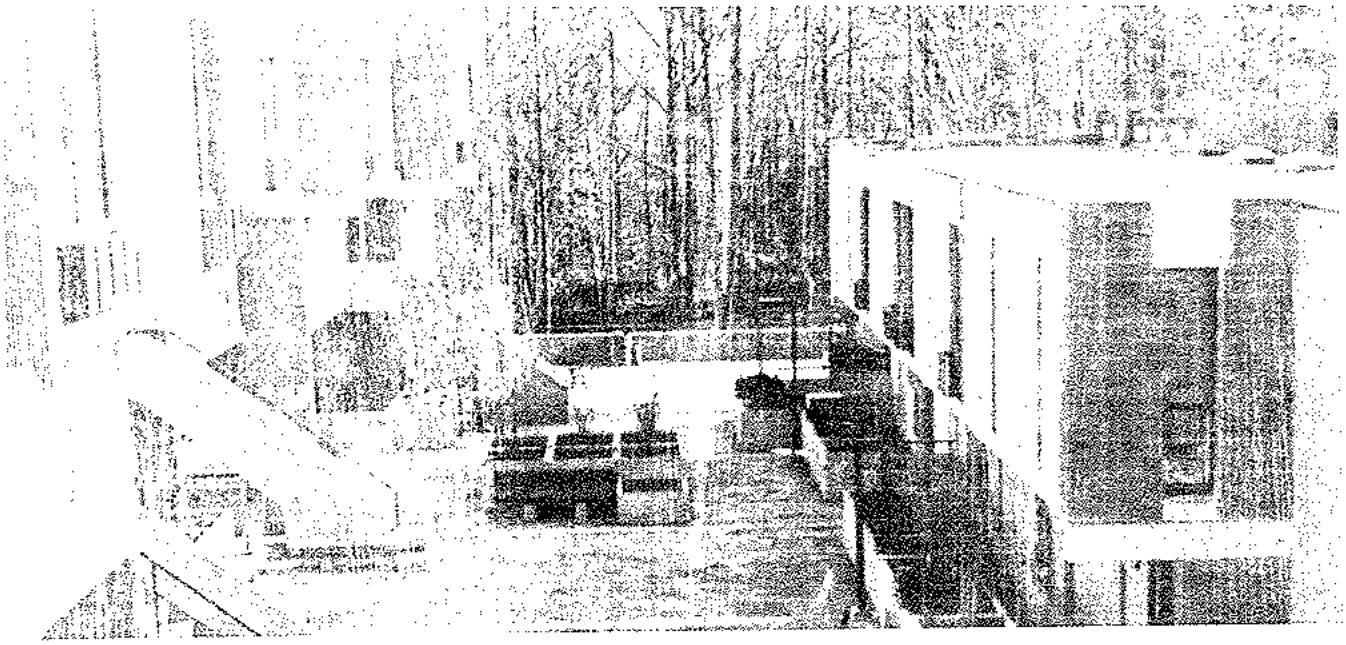
저녁풍경

COLDSPRING NEW TOWN

콜드스프링 뉴타운 -미국-

設計 : Moshe Safdie





홀드 스프링은 발티모아市의 境界內에 있는 새로운 住居 地域으로, 3,780의 住居유닛트, 学校가 셋, 住民센터가 둘, 地域센터, 広範한 오픈스페스 式의 리크레이숀 施設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住居는 발티모니아의 市內에서 約 5마일 떨어진 숀스, 휠·바레의 서쪽에 있다. 約300에-카의 樹木이 울창한 傾斜진 敷地에 建設되어졌다.

이 新市街는 세가지 基本的인 住居 単位로 計画되어져 있다.

첫째型은 平担地에 세워진 民家로, 이 대부분은 駐車空間의 上部에 만들어진 歩行者덱크의 両側에 位置하고 있다. 歩行者덱크의 한쪽으로는, 덱크·레벨과 駐車레벨에 入口를 갖는 2층의 民家가 配置되어, 다른쪽은 肩車形式의 메소넷트 유닛트, 配置되어 있다.

아파트 단위는 아래층 단위의 入口가 駐車레벨에, 윗층단위의 入口가 덱크레벨에 設置되어 있다.

「덱크·하우스」의 2/3는 정원을 갖고 있으며 20~30단위로 되는 各 그룹은 斜路와 부릿지에 의해 連結되어져 있다. 때문에, 歩行者레벨과 車輌레벨은 完全히 分離되어 있다.

제 2型

群型 아파트에서는 傾斜丘陵地라는 敷地状況에서 아파트의 中間層에 入口를 設置하는 것으로 에레베터를 必要치 않게 設計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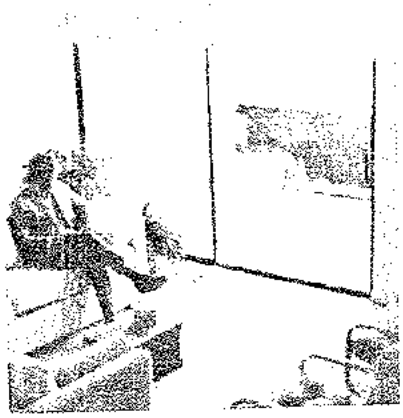
典型的인 Clusters는 13개단위로서 이루어지는 두 建物로 構成되어 있다.

13개 단위는 歩行者 부릿지로서 連結되어, 傾斜地上에 같은 단위上에 다른 단위가 올라가는 形状으로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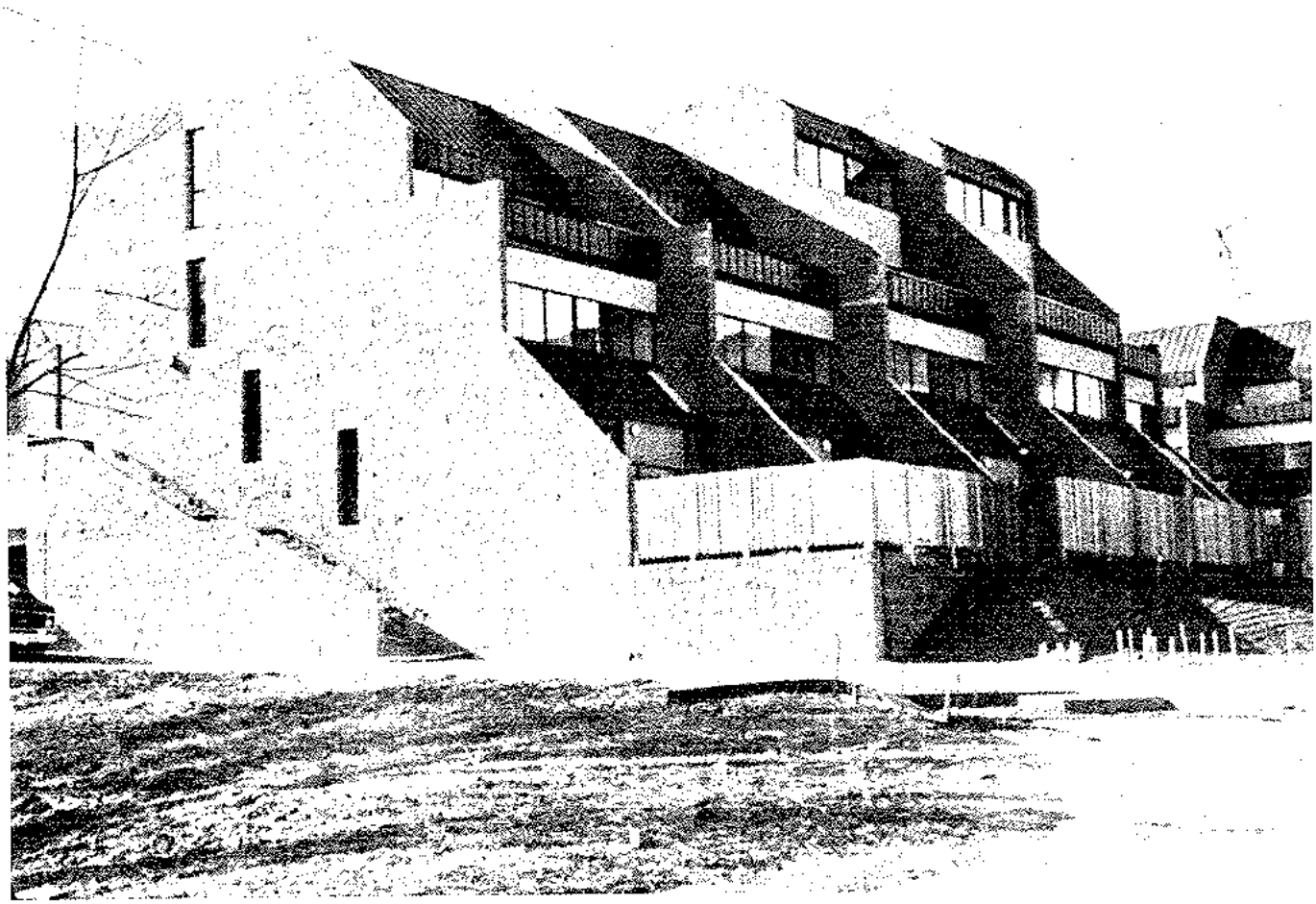
各単位에는 커다란 Roof테라스가 있고, 두 方向 또는 그 以上의 대해서 景観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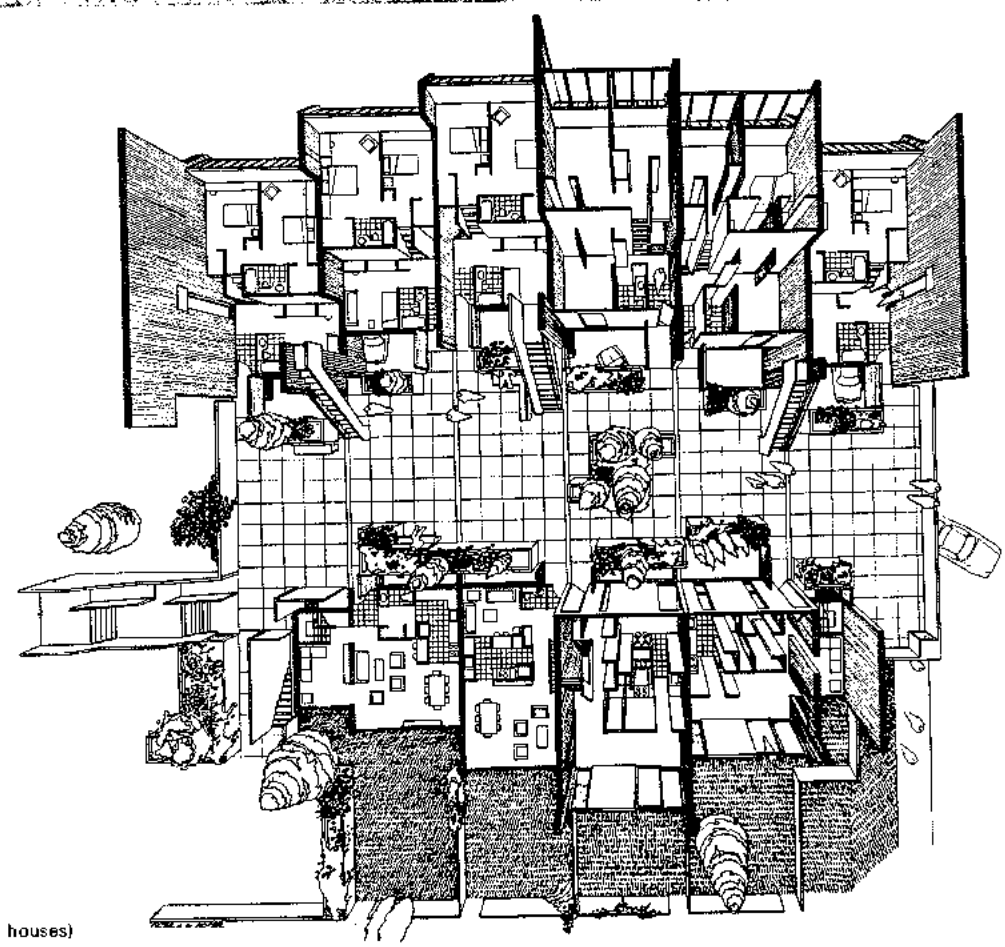
제 3型

一般的인 高層 단위로서 이것은 住民센터 또는 地域센터의 敷地內에 세워질 予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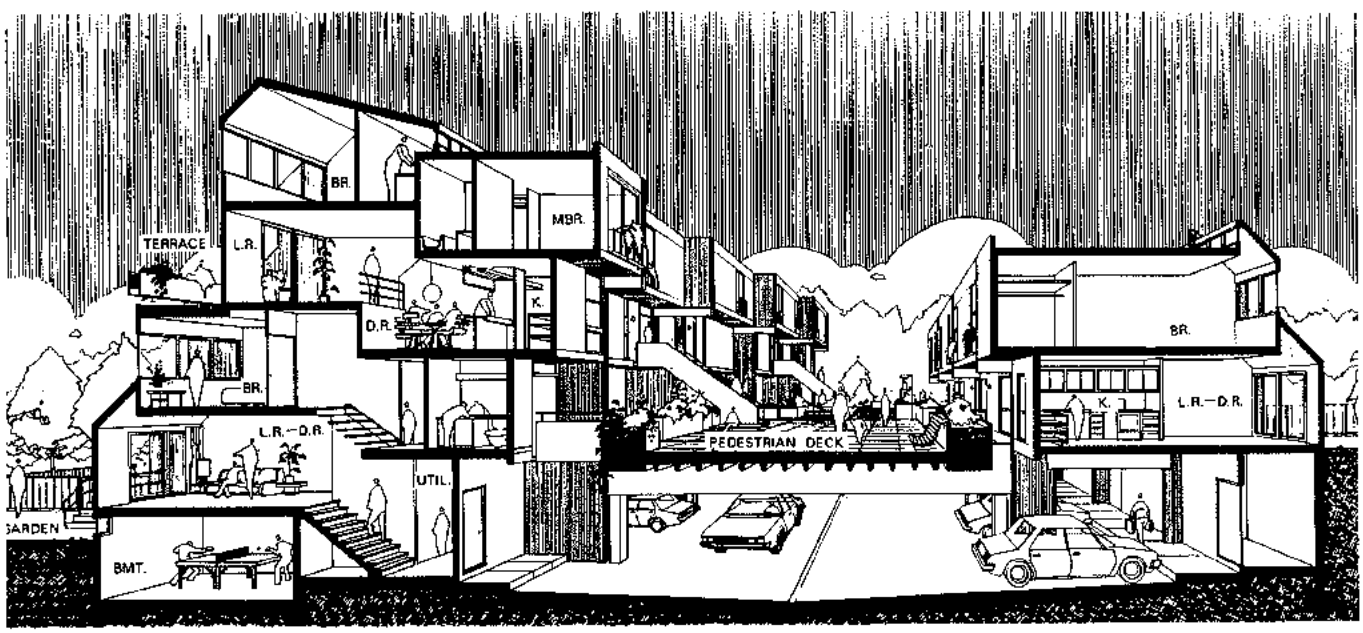


Site plan (phase 1:Deck houses)





Floor plan (Deck ho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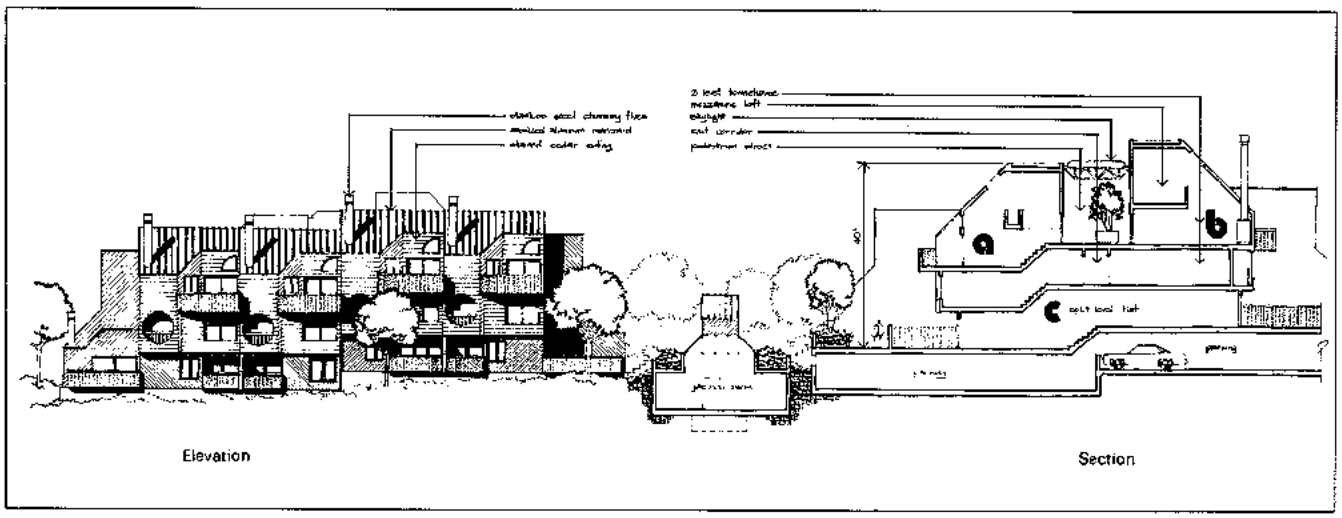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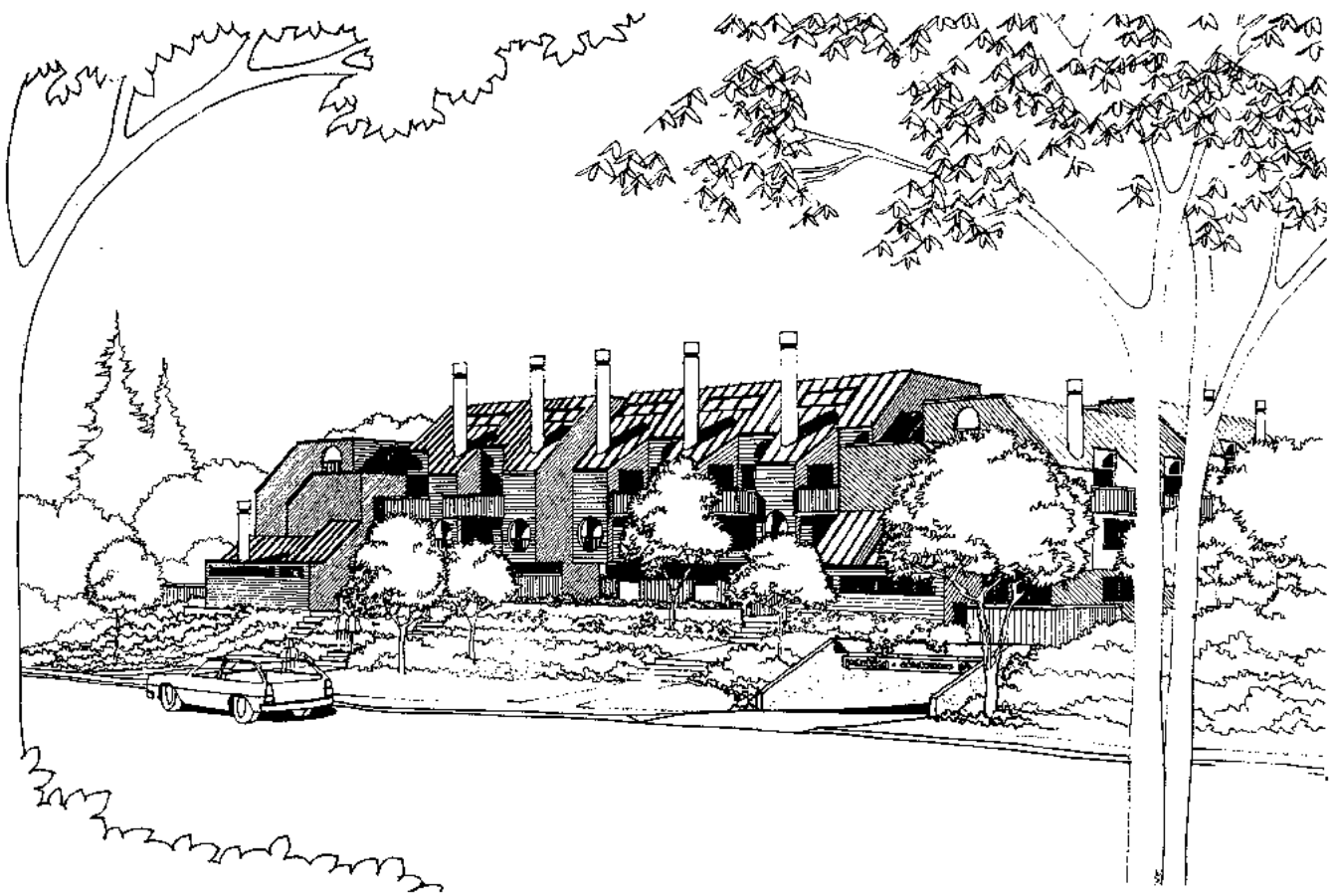
MAISON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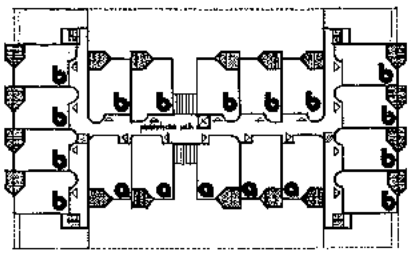
TOWNHOUSE

THE FAIRWAYS CONDOMINIU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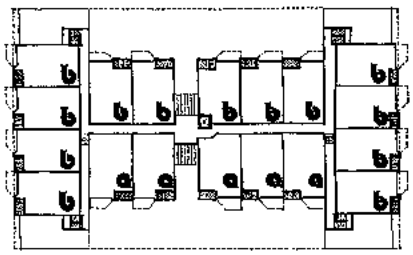
設計 : R. E Hulbert & -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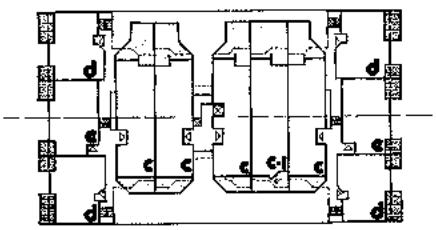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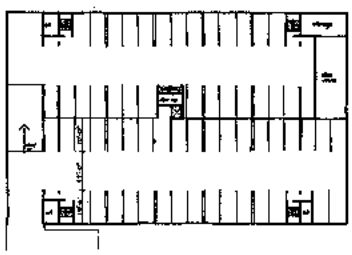
3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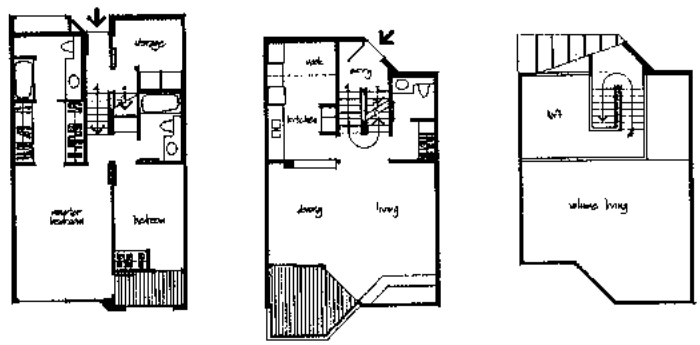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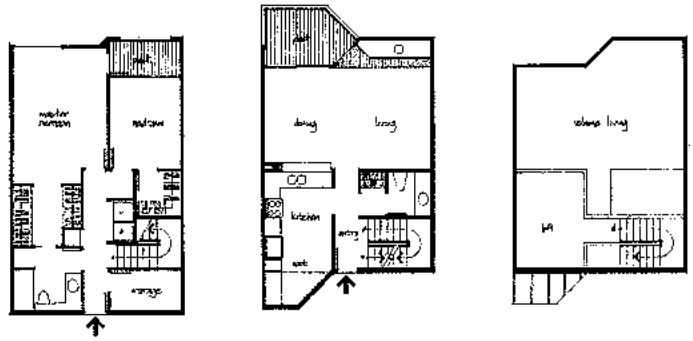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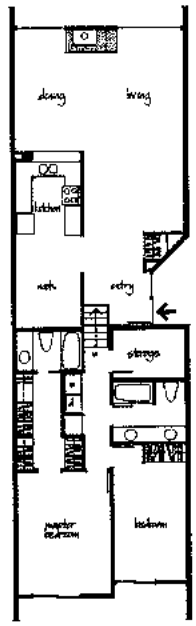
Base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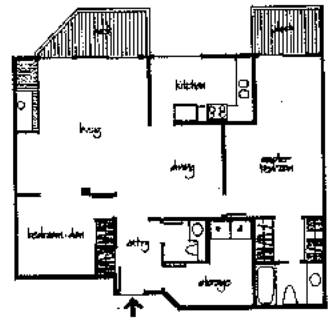
a-unit plan lower level upper level l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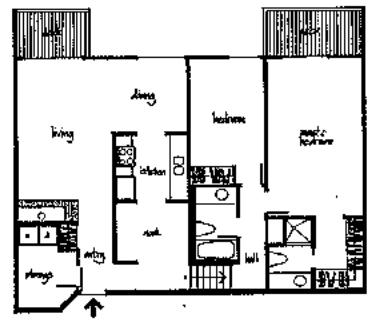
b-unit plan lower level upper level l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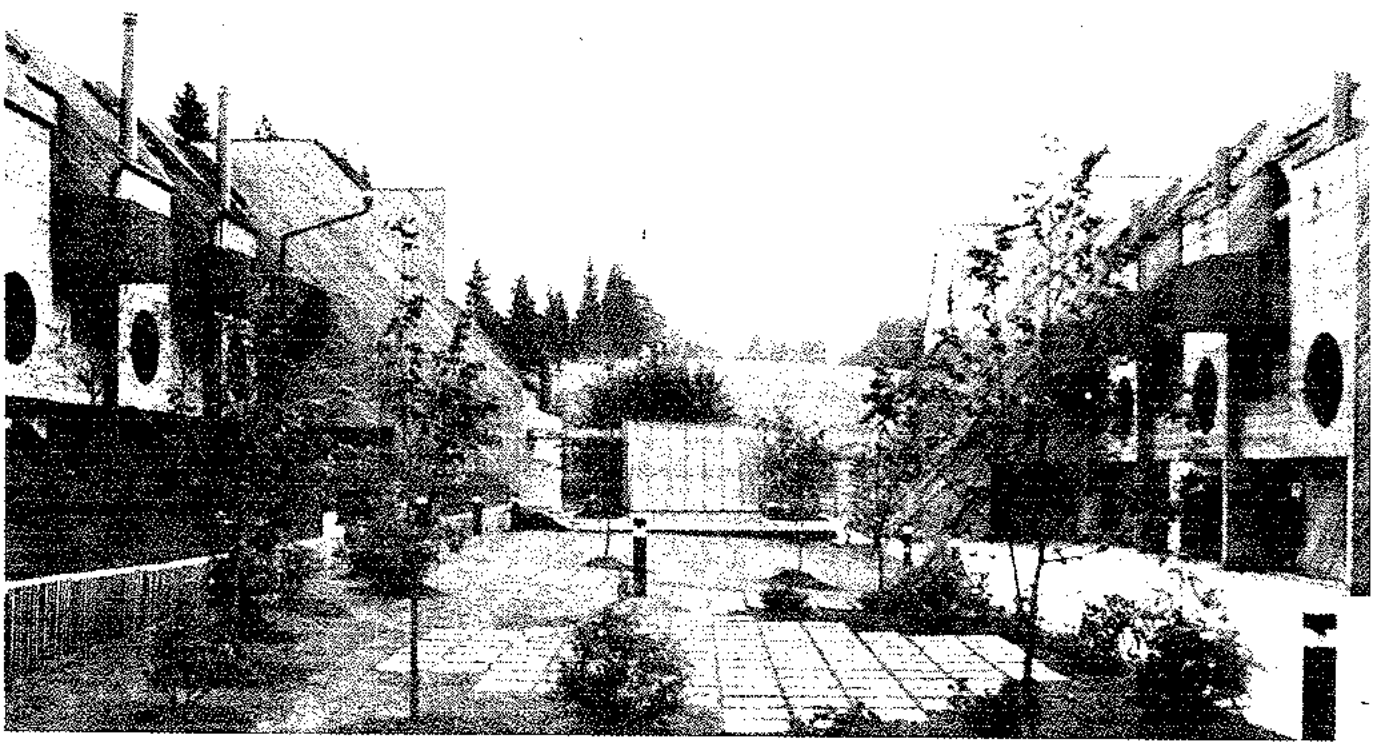
c-uni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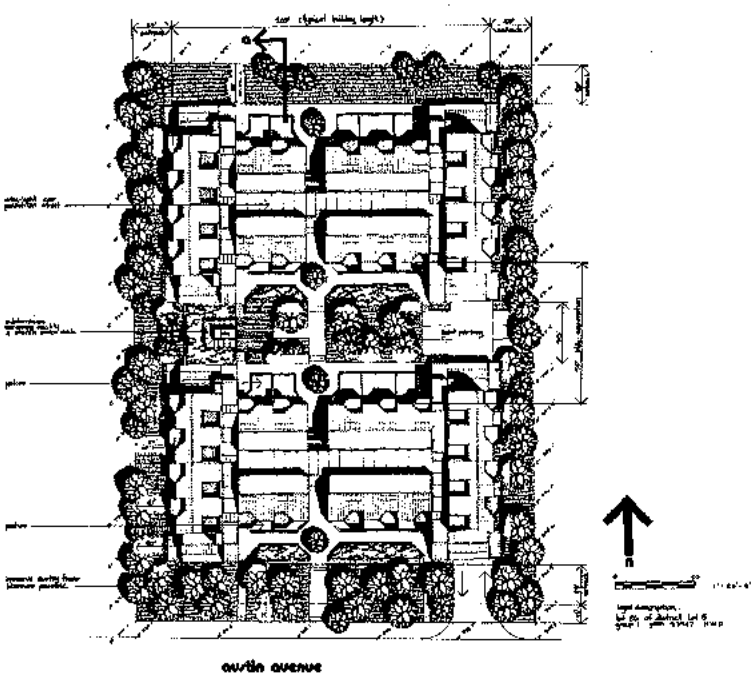


d-unit plan



e-unit plan





Site plan

이 計劃의 設計는, 公園과 골프-코스로서 둘리어진 地価가 높은 2에-카의 傾斜敷地에, 豪華스런 住居環境을 만드는데 있었다.

経済的条件에서, 아파트型의 環境으로서 必要로한 1에카당 30単位라는 密度가 要求되었다.

高密度 아파트型에서 볼수있는 中複道式의 바람직하지 않은 設計를 避하는 意味에서도, 이 計劃에서는 다른方式이 採用되었다.

여기서는, 各単位가 所有感覚, 最適한 景観, 最大의 푸라이버시를 얻을 수있게끔 되어 있다.

125台 収容의 駐車場은 제일 낮은 레벨에 配置되어 있다. 이 레벨은 敷地의 起伏 있는 形状에 맞추어 스프릿트状으로 되어 있다.

1층 住居레벨은, 自然地盤面上의 歩行者 通路에 容易하게 軸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다.

平々한 型 単位에 있어서도 스프릿트型에 있어서도 各単位에는 두 PAT10(정원)이 딸리고 通常一家族用 住居에 있어서도 可能한 屋内-屋外의 関係(雰囲気)를 즐길수가 있다.

各 入口는 分離돼 있고, 1家族用単位, 또는 변두리주거 単位에서 볼수 있는 독립성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도 区別되 있다.

歩行者 通路는, 居室의 正面入口門, 식당, 多層単位의 부엌층으로 各己연결 돼 있다.

居室에는, 2층分의 吹抜을 내려다 볼수 있는, 지붕방 이라든가, 프라이베트한 屋上 테라스上의 둘중 하나가 달려 있어, 居室 그 자체는 크고 넓직한 感을 주는 空間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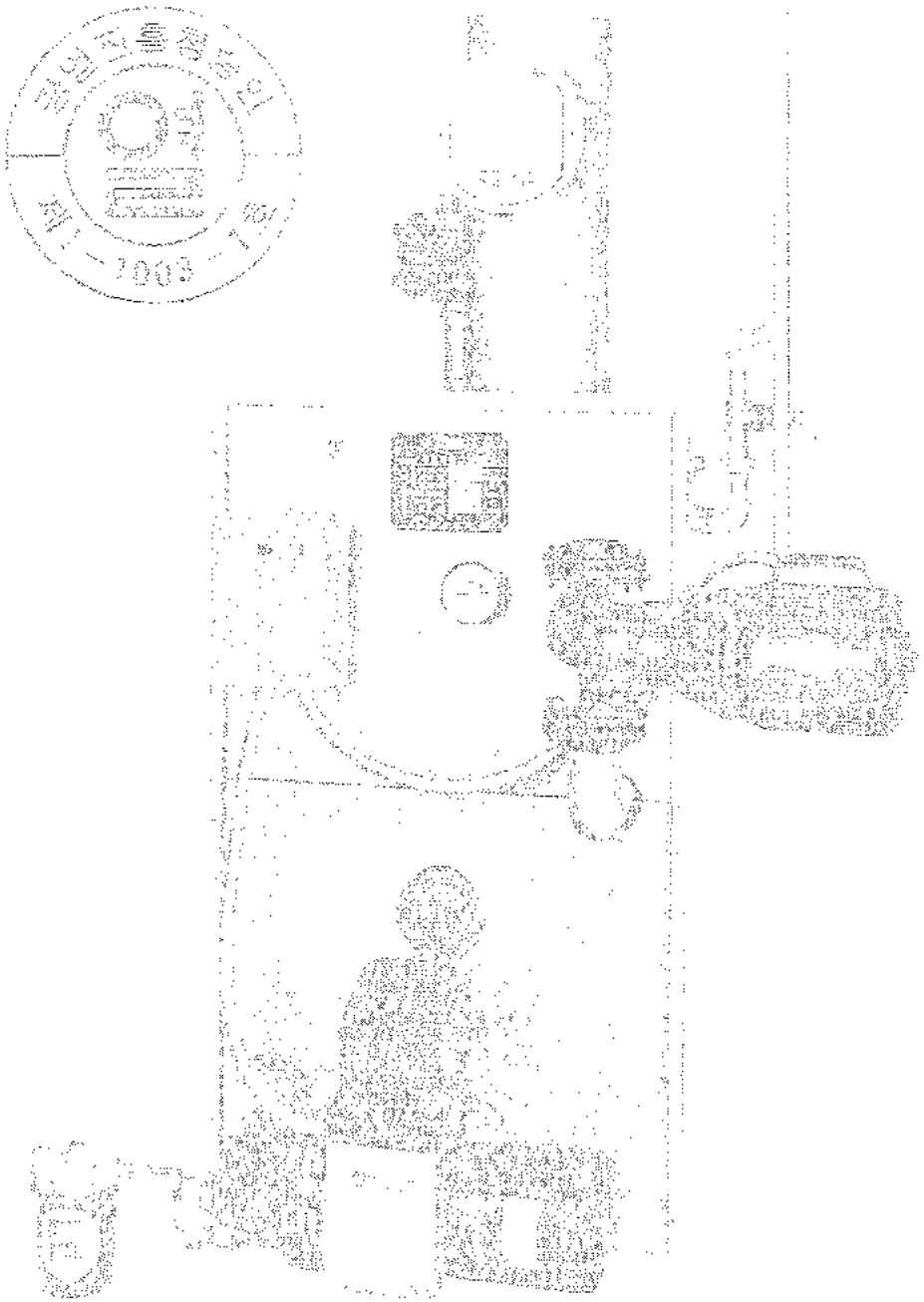
各単位는 簡便과 安全을 위한 出口, 또 退出口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에레베터는 植物이나 植木等을 가지런히 놓아 타일부치기 舗装이 되어진 천정조명의 3층 보행자 통로에로의 軸을 준다. 이 레벨은, 屋外軸으로서 모든 要素를 具備하고 있음과 아울러 典型的인 港市만이 맛볼수 있는 바람에 대한 커다란 役割도 하고 있는 것이다.

cast iron Boilers

높은 열효율 · 연료비절감 · 연구개발수명

주철 제 보일러



製造元 : 三成製作所

우 보 공 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illegible]

전화번호 [illegible] 팩스 [illegible]

열효율 Rocket Boiler 로켓트 보일러

연료비 40%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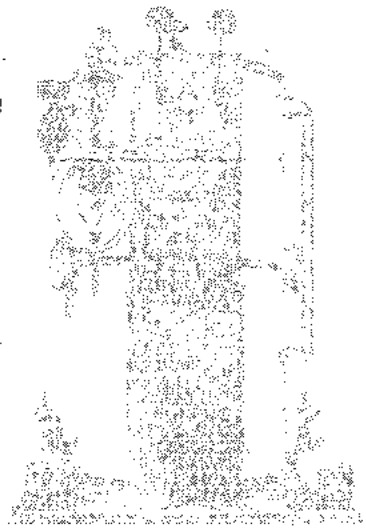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소형 주철식 보일러 (KR-4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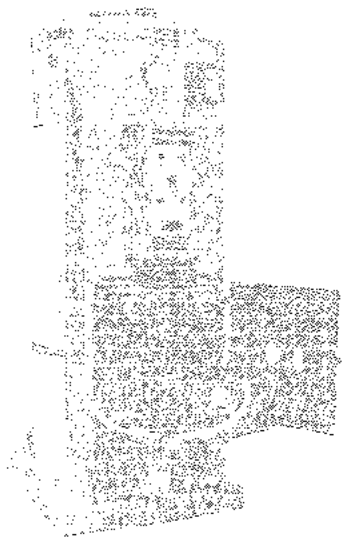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의 주력제품입니다.
- 본기에의 리브와 기둥 내경 설계로 물 순환과 동의 응력 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연소실 보일러의 최고의 제품입니다.

전기 증기보일러 (K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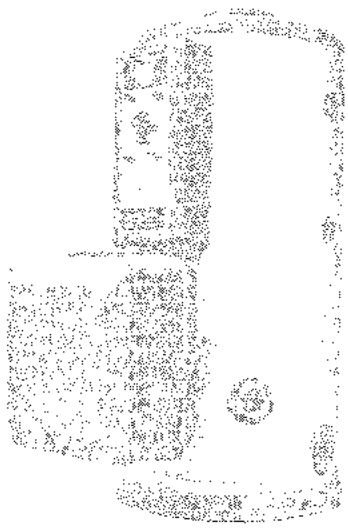
- 1000평 미만 가옥과 회사는 20분내에 허전하다.
- 직공공장 조조 세팅 증기 다리미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차량발전기 장갑 나방등 방방용 세탁기용 · 공장에 적합합니다.
- 미역대용등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용량 0.2톤에서 0.5ton 외 이러한 소형 소형보일러로 종래의 일반보일러보다 40%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가 쉬우십니다.

경유 · 중유 · 등유 보일러 (KAT-2)



- 나방용 분무용 · 수직나방용.
- 경유 · 또는 오일버너 · 고체 · 연탄 · 톱밥 · 폐목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만내지 40만 Kcal까지 8종의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버튼이 작동 one-touch 입니다.
- 내부가 외관 노출되어 안전하고 동보일러 일일의 장단 나방겸용이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주철식보일러 (KRQ)



- 경이적인 고열의 기술의 결실.
- 제품명 KRQ는 일러러의 약 3 기술력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 본제품의 적용범위는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겸할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적정한 시설비와 연료는 기름연료에 있고 P.O.E 오일버너로 경기소비가 적고 대자연적이 확인 시이상 주의 방법등에 관련의 결의 할수 있는 것이 주장입니다.
- 다양성인 기계화로 능률 ·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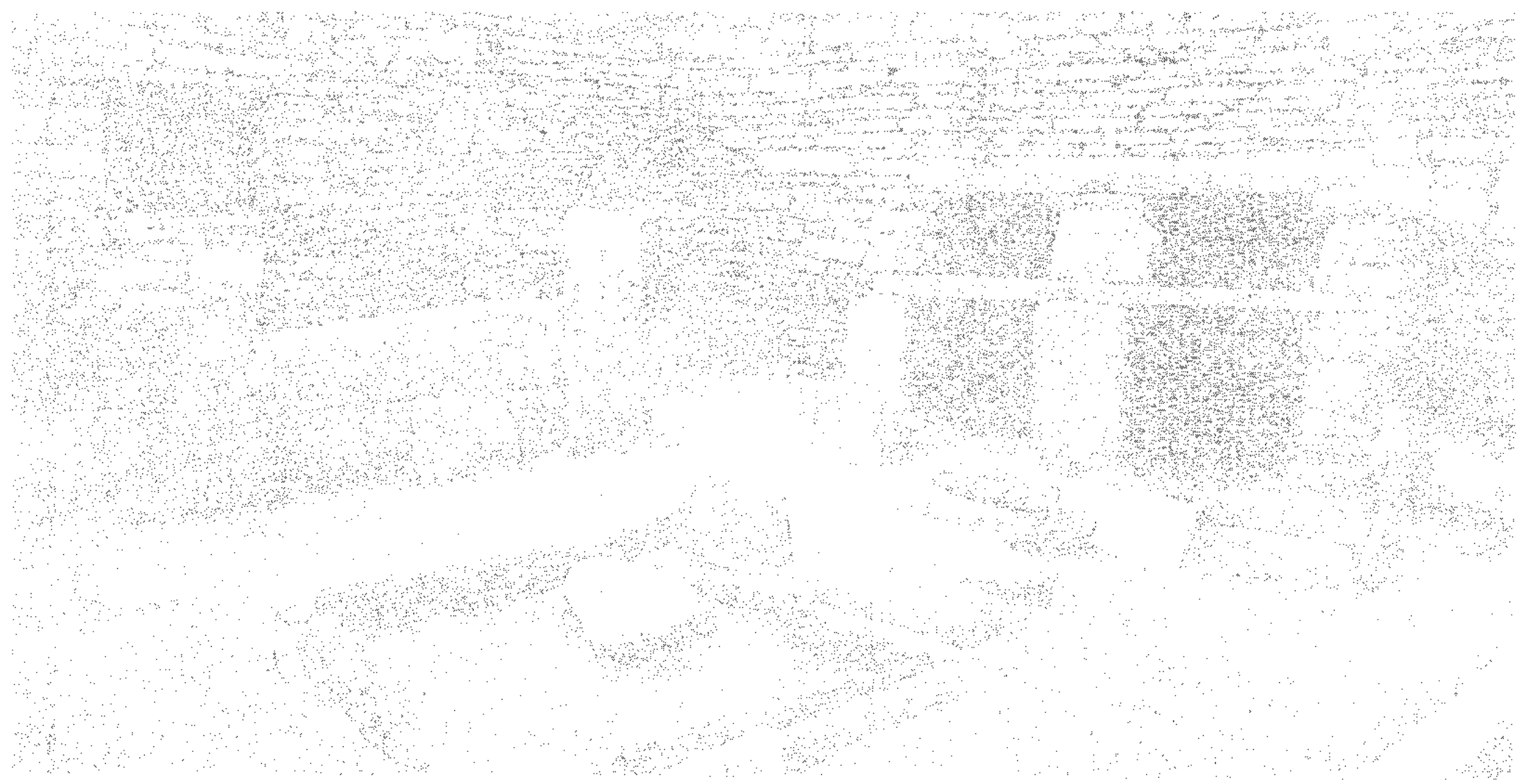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 (6) 5131-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 (세우회관 6층)

전화 : (782) 7373, 7387, 8757



이 특한 옛날 사람이 살던 집은 하나의 부엌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처음 움직이고 사냥과 채집, 갈대와 나뭇가지를 시작했을때, 사람이 사는 집은 하나의 부엌이었습니다. 식사하고 눕고 동물 떨 생물 방이 식은 화덕에서 음식을 굽고 그 열로 난방도 해결하며 부엌이 식당도 되고 거실도 되며 침실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옛날조상들의 주거 방식이 놀랍게도 오늘날 인류가 향하고 있는 주거 양식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좁하는 생존 양식에 따라 부엌이 점점 거실과 대등하여 가고 있습니다. 거실과 나란히 있어도 멋진 가구—10년이 내 한결는 이런 멋지고 튼튼한 부엌 가구, 아름다운 부엌 서구를 정성껏 만들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샘에서는 많은 설계사무소, 대량주택사업자들에게 주방신제 선진시방서를 무료로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연락만 해주시면 누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문가가 성심껏 회답해 드릴 것입니다.

본전은 주방 시스템 쓰는 이점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주식 이건 SYSTEM KITCHEN 이란 부엌가구 일체, 전자 냉장고의 조리의 자리입니다. 가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공학은 물론 도, 안락한 주방 조리 공간 설비 일체의 구조에 사용되어 공간을 위한 조리 작업 이상. 이 두 가지 이치로 나누어 조화한 유일 최선의 부엌 서구를 이룬 니다.

부엌 가구는 주방화의 때는 스테인레스 싱크대가 중에 가구 부분은 중요도 그 때에 주방시요. 주방 부엌은 전자 1965년 이후 이에서 주방을 가지게 중요도 라에서도 있습니다.

한샘 시스템 키친
한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illegible]
TEL [illegible] 팩스 [illegible]
[illegible]

自動ドア

차내에서…
단단만 누르면
9초만에 차고문을
자동으로 여닫게 합니다.

차고의 불편한 점이 해결됩니다.
미관이 우아하고 아름답는 스윙식 차고도어입니다.

- 수입품과 같이 고급품입니다.
- 주입 도어스윙은 30m 가능합니다.
- 레일과 바퀴는 알루미늄 소재이므로 고장이 없습니다.
- 소음 없이 부드럽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빌딩 슈퍼마켓 실내용 Sliding Door

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Wood Folding Accordion Door

- 自動ドアの世界的メーカー 美国 ALLIANCE技術提供
- 韓国総代理店 주식회사 인터스코

本社・工場：京畿道楊州郡長興面銀谷里585-16 TEL：101-17
서울事務所：서울特別市城北区三仙洞 4街533(桂林빌딩)
慶北代理店：大邱 66-6582

93/1976·92/5364